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 정영태 · 홍길표 · 박영호 · 김형기



통일예측시계(Unification Clock) 운영사업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 정영태 · 홍길표 · 박영호 · 김형기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2015년 통일예측시계

통일예측시계(Unification Clock) 운영사업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퍼(02-2277-4718)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978-89-8479-834-2 93340
남북 관계, 남북 통일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04317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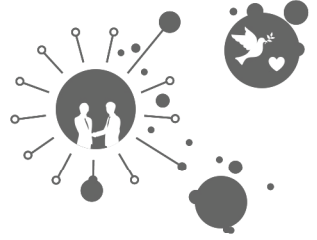
2015년 통일예측시계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요약 / ix

I. 서론	1
II. 연구방법론	5
1. 통일시계의 설계	7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설문	15
3.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21
4. 2015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33
III. 2015년 동태적 통일예측모형 개발	37
1. 통일예측시계 모델의 보완점	39
2.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개발방향 탐색	40
3.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설계	54
IV. 2015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73
1. 통일예측시계	75
2. 통일요인 설문조사	105
3. 계량분석	149



V. 요약 및 결론 163

부록 / 171

참고문헌 /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1

C 표 차례

표 II- 1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개요	23
표 II- 2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25
표 II- 3 2010년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과 비교집단	28
표 III- 1 관찰가능한 신뢰-불신 행동 측정	63
표 III- 2 수집자료 성격별 장단점 비교	69
표 IV- 1 2009년~2015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77
표 IV- 2 2015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후진)	158
표 IV- 3 2015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후진)	159



그림 II- 1	델파이 기법의 절차	12
그림 II- 2	지구중말시계 1947~2015	13
그림 II- 3	2015 환경위기시계	14
그림 II- 4	통일예측시계 설문 문항	18
그림 II- 5	분포의 변화: 양의 왜도 분포→쌍봉형 분포→음의 왜도	32
그림 III- 1	동태성 관점에서 기존 지수모형과 동태적 통일지수 모형의 위치	41
그림 III- 2	북한체제의 원심력-구심력 모델	50
그림 III- 3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상호작용모델	51
그림 III- 4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의 개념적 틀	55
그림 III- 5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I_CC)에 기반한 단계적 통일모형 ..	57
그림 III- 6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I_CC)에 근거한 급격한 체제 위기 현상 이해	58
그림 III- 7	급격한 체제 위기에 따른 남한주도 통일 전망	59
그림 III- 8	신뢰-불신의 1차원적 인식 관점	61
그림 III- 9	2차원적 신뢰-불신에서의 관계 유형	61
그림 III-10	이요인 모형 관점에서의 신뢰-불신의 관계	62
그림 III-11	상호 신뢰-불신 행동 Mix의 추가적 영향	65
그림 IV- 1	2015년 통일예측시계	79
그림 IV- 2	2009년~2015년 합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변화	84
그림 IV- 3	2009년~2015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변화	95
그림 IV- 4	통일요인 조사: 델파이 패널, 평균	105
그림 IV- 5	후계체제 구축과 체제안정성, 2010년~2015년	112
그림 IV- 6	남한국민의 통일인식과 통일비용 부담의지, 2010년~2015년 ..	139
그림 IV- 7	2014년 순환처리된 통일시계와 2015년 통일시계의 상자도표 ..	151
그림 IV- 8	12개 통일시계의 요인 성분도표	155
그림 IV- 9	합의형-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패널의 응답산포도	155
그림 IV-10	합의형-한국주도형 요인에 대한 군집분포	156
그림 V- 1	통일예측시계, 2009년~2015년	167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요인으로,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정세변화에 큰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내부 변화, 남북한 관계 변화,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은 향후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구축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예측 모형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예측수단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예측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었고, 2014년에 다시 5개년 연구사업으로 재개되어 작년에 이어 2년차 연구로 수행되었다. 통일시계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총 12개의 통일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예측시계 연구는 ‘합의형 시계’와 ‘한국주도형 시계’로 구분해 두 가지 방식의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양자 간의 체계적 연동성 기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 통일모형 연구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5년 본 연구는 기존의 통일예측시계를 주축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통일 모형 연구로 신뢰프로세스 기반 통일모델, 원심력-구심력 통합모델, 전략적 상호작용 게임모델, 생태

계 공진화 모델을 포함하는 지수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기존의 통일예측시계를 기반으로 2015년 전문가 조사 연구는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패널 61명 중 4명이 개인사유로 제외되고 3명이 추가되어 총 60명의 패널이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9일간 수행된 조사 결과 52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4년 하반기의 조사 시간보다 1분 진전된 3시 48분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초까지 거의 1년 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합의형 시계가 미세하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와 국제관계 분야에서 후퇴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은 남북 군사적 갈등이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문제가 합의형 통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통일외교의 강화가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부터의 조사 결과의 추세는 상기와 같은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정치 분야의 합의형 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였으나, 정치 분야는 여전히 군사 분야와 함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 시계가 여전히 통일에 부정적 또는 통일의 시간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후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작년 대비 7분

후퇴한 4시 59분으로 조사 되었다. 사회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인 것 이외에는 모든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후퇴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반적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처음으로 5시 이전으로 후퇴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서는 거의 1시간 정도인 57분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5년 9월의 시점에서 예측된 통일시계는 합의형 시계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한주도형 시계에서는 시간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예측 시계 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9년에 비해서는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 모두 시간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후퇴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기구 또는 위원회 참여, 정책자문, 건의, 토론회 및 검토회의, 과제 수행, 언론 활동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투입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 및 통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함의를 검토·파악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향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기반 구축에 보다 구체적 정책 개발과 적극적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통일예측, 통일시계, 델파이 조사

2015 Unification Clock

Hong, Sukhoon et 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optimal model to predict when unification will occur in order to realize the national objective of achieving peaceful unification. This will be based on an objectiv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various factors which may affect unificati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rom 2009 to 2011 and has been resumed in 2014 for another five years. This paper summarizes the second year of research. Using ‘unification clock’ as a metaphor, 12 unification clocks have been constructed. Based on this, the Delphi technique has been applied as a means of predicting when unification could occu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general ‘consensus-based’ unification clock pointed to 3:48, which is one minute earlier than the results presen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previous year. In practical terms, results point to a period of stagnation. From November 2014 to early September 2015, results show that there have been no actu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sensus-based’ unification clock has made a slight progress in term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regression in milita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eas have led to this outcome. This suggests that inter-Korean military rel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progres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and furthermore that issues of military trust-building and peace settlement can act as decisive factors in the ‘consensus-based’ unific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can be deemed that strengthening of unification diplomacy has not yielded significant impact, or tha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has largely not been improved.

In the case of ‘South Korea-led unification’ model of unification clock, results have been on the decline since the 2009 research. In this year’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lock has retreated 7 minutes back, pointing to 4:59. Other than a slight progression in the social field, all times in the ‘South Korea-led unification’ model has shown a retreat. In particular, the general ‘South Korea-led unification’ model has, for the first time, retreated as far back as 5 o’clock. Compared to 2009, this is a 57 minute regres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unification policy centered on the Trust-building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foundation for unification.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future efforts must focus on developing a more specific policy as well as active unification diplomacy in order to build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reate a consensus for peaceful unification.

Keywords: Unification Prediction, Unification Clock, Delphi Technique



I. 서론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요인으로,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정세변화에 큰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내부 변화, 남북한 관계 변화,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은 향후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구축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일 것이다.

장·단기적 차원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는 이제 보다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통일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주관이나 직관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통일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통일을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심리, 국제관계 등 제반 변수로 분류하여 횡적·종적으로 연결하고 그 역할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예측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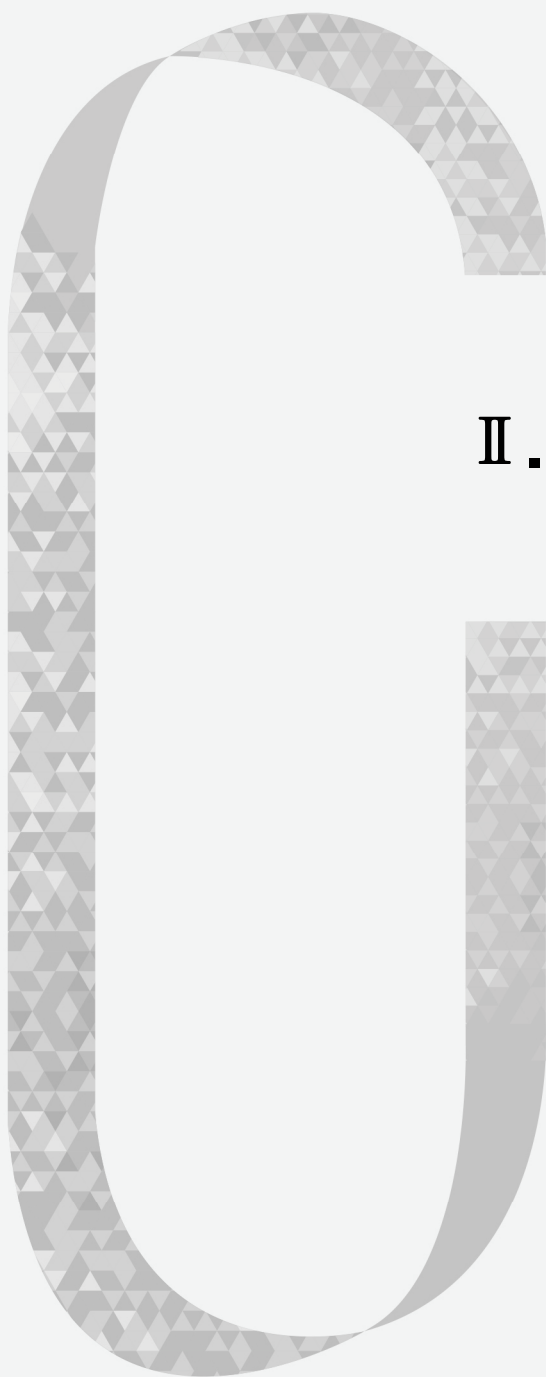
이를 위해 미래예측수단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예측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4년에 다시 5년 연구계획으로 재개되어 작년에 이어 2년차 연구로 수행되었다. 통일시계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총 12개의 통일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예측시계 연구는 ‘합의형 시계’와 ‘한국주도형 시계’로 구분해 두 가지 방식의 통일 가능성을

I
II
III
IV
V

염두에 두고 있다.¹⁾

이러한 통일예측시계를 이번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으나, ‘합의형 시계’와 ‘한국주도형 시계’의 양자 간 체계적 연동성 기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 통일모형 연구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5년 본 연구는 기존의 통일예측시계를 주축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통일 모형 연구는 신뢰프로세스 기반 통일모델, 원심력-구심력 통합모델, 전략적 상호작용 게임모델, 생태계 공진화 모델을 포함하는 지수 모형을 추가적으로 개념화하였다.

1) 박영호·김형기, 『2014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12~17.



Ⅱ. 연구방법론

1. 통일시계의 설계

탈냉전기 이래 한반도, 특히 북한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특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현재 시점의 평가는 학문적·정책적으로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통일예측시계의 연구설계는 초기에 다양한 미래 예측기법의 검토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기법에는 시계열분석, 인과모형,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계량적 기법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시나리오 기법, 퓨처스 휠, 교차영향 분석, 환경스캐닝과 델파이 기법과 같은 정성적 접근도 이용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해당 전문가의 예언이 더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다. 실제 역사 또한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사후설명은 가능하되 체계적인 논리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측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은 일시적인 우연이거나 우발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언’이 아닌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통주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함으로써 현상의 정확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구조적 동인에 의해 작동하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다양한 예측기법을 검토한 뒤 그 결과 현재 형태의 통일예측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일시계가 추적하고 있는 대상은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통일환경 요인으로 자료에 기반한 정량적 접근은 시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판단에 기반한 정성적 접근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검토 끝

에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다 용이하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계의 메타포(metaphor)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로부터 차용하였다. 다만 지구종말시계와는 달리 통일시계의 최종시점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향점으로 대체하였다. 시계의 외형(facade)은 총 12시 기준의 시계를 통해 환경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를 그대로 적용하였다.²⁾

통일예측시계는 크게 ‘합의형’과 ‘한국주도형’³⁾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계로 구성된다. 통일을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의 구체적인 유형은 연구자의 숫자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일유형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개념화를 위해 최소한의 통일유형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의 유형이 크게 합의형, 한국주도형, 전쟁형으로 대별됨을 파악하고, 이 중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이라는 두 개의 유형을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것이다. 두 개의 통일 유형은 다시

2) 본 통일예측시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구방법론 즉, 델파이 기법과 메타포로서의 지구종말시계 및 외형으로서의 환경위기시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09년부터 2011년 및 2014년 조사과정에서 사용되어온 방법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본 연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연구과제이며, 장기적인 지수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절의 내용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2014년 연구방법론을 반복하였으며, 그간 제시되어 온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적인 서술을 하였다.

3) 본 통일예측시계에서 도입한 ‘한국주도형’ 시계는 이전 연구에서의 ‘흡수형’ 시계를 대체한 용어이다. ‘흡수형’이란 용어 대신 ‘한국주도형’으로 변경하였고, 그 의미를 보충하자면, 대한민국 헌법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기초하여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모델을 상정한다.

전반적인 통일환경을 제시하는 총괄시계와 통일의 다양한 분야를 감지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환경의 5개 하위분야 시계로 세분하였다. 즉, 통일예측시계는 2개 유형, 6개 분야로 기획된 총 12개의 시계로 구성된다.

델파이 기법은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집단적인 시각과 정보를 조합하여 조직화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지리적으로 이격된 전문가가 동일 대상을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법의 명칭은 고대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서 행해진 델포이 신탁에서 유래한다. 최초의 시도는 1944년 헨리 아놀드(Henry H. Arnold) 사령관이 미 육군항공대에 미래 기술의 발전이 전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한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엄밀한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였던 이론적 접근이나 정량모형과 같은 전통적 접근법이 통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당시 Project RAND)의 달키(Norman Dalkey)와 헬머(Olaf Helmer)가 델파이 기법을 제안하였다.⁴⁾

델파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집단지성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판단을 제안하고 수정하며, 주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량적 기법과 달리 다양한 단점도 나타난다. 순환과정으로 인해 시간적 제한이 크며, 이로 인해 피조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또한 순환과

4) Norman Dalkey & Olaf Helmer,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vol. 9, no. 3 (1963), pp. 458~467.

I
II
III
IV
V

정에서 편승(bandwago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피조사자의 중립적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기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기법의 예측력을 뛰어 넘는 성과를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작된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분야, 과학기술분야, 교육분야 등에서 매우 유용한 미래예측기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은 전통적인 비구조적 예측방법의 오차율이 20%인 상황에서 3~4%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였다.⁵⁾

델파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⁶⁾

- (1)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지속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자(moderator)들이 델파이 전 과정을 파악하여 탄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다.
- (2) 반복(Iteration): 수회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이 그들의 답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3) 통제된 피드백(Controlled feedback):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 (4) 익명성(Anonymity): 참가자들이 그룹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델파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⁷⁾

5) Shankar Basu & Roger G. Schroeder, "Incorporating Judgements in Sales Forecasts: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at American Hoist & Derrick," *Interfaces*, vol. 7, no. 3 (1977), p. 13.

6)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8.

7) 박영호·김형기, 『2014년 통일예측시계』, pp. 10~11.

1단계: 먼저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2단계: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성격, 델파이 주제를 정의하고,

- 관리팀은 결과 종합·분석, 델파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3단계: • 전문가들은 설문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실현시기를 예측하며,

- 관리팀은 예측된 결과 집계,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한다.

4단계: • 전문가들은 예측 시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 관리팀은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응답을 분석한다. 합의되지 못한 의견도 정리한다.
- 적절한 수준으로 응답결과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질문을 반복한다.

5단계: • 전문가들은 수정된 의견이 포함된 설문을 받아 응답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관리팀은 제 4라운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주제에 대한 예측시기를 발표한다.

2014년 통일예측시계는 이러한 델파이 기법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순환(feedback)의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단치 응답자 중 일부가 다소 평균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순환단계는 생략되었다. 그 이유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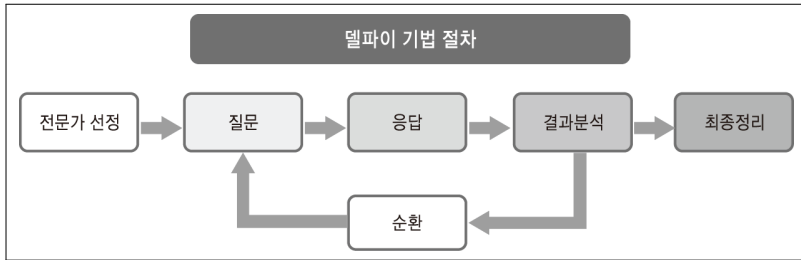
II

III

IV

V

● 그림 II-1 델파이 기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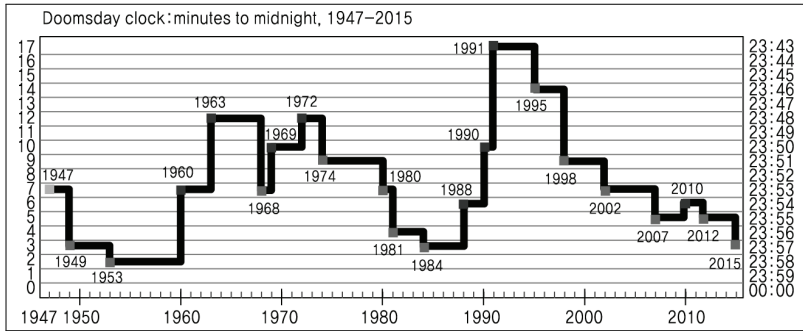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2014년 조사과정에서 순환단계에 따라 다소간의 평균변화가 존재 하였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15년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델파이 기법의 순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 전문가 조사로 마감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2개 유형 5개 하위분야의 총 12개로 구성된 통일예측시계는 그 메타포를 지구종말시계에서 구한 뒤, 시계의 외형 자체는 환경위기시계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주도형과 합의형이라는 유형은 시나리오 기법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구축된 통일시계는 통일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정량지수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계라는 상징성과 가독성으로 인해 정책적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구종말시계는 미국의 맨해튼계획을 추진했던 물리학자들이 원폭투하 이후의 결과에 대해 반성하면서 개발한 상징적 시계이다. 동 시계는 시카고 대학의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1947년 게재된 이래 현재까지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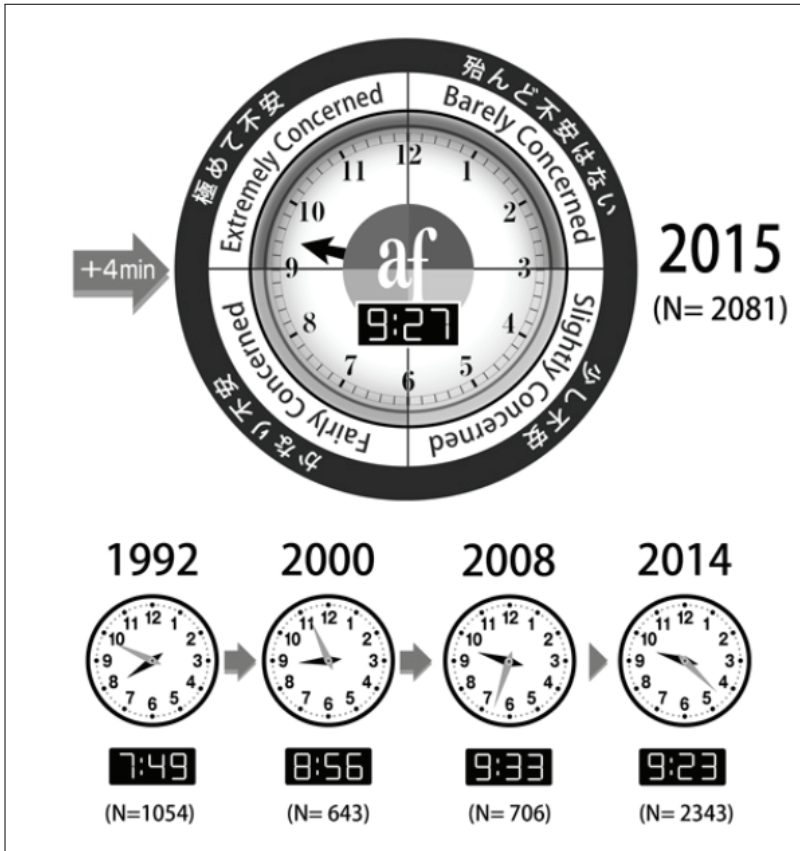
● 그림 II-2 지구종말시계 1947~2015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Doomsday_Clock_graph.svg> (검색일: 2015.11.16.).

과 감축상황 등을 파악해 분침을 지정해 왔으며, 2000년대 이래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시계의 최저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991년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23시 43분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1953년과 1984년 각각 23시 58분과 23시 57분으로 지구종말을 경고하였다. 2015년 현재 시간은 23시 57분이다. 미소 대결에 의한 핵전쟁 위협이 급격하게 감소한 탈냉전기임에도 지구종말인 자정에 불과 3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표시한 지구종말시계는 격월간 발간되는 동 저널에 그래픽으로 발표되고 있다. 통일예측시계는 지구종말시계가 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종말의 시기와 종말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자정으로 표시된 지구종말을 통일로 대치하고 한반도 내외 통일환경이 통일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표현하려 하였다.

- I
- II
- III
- IV
- V



출처: <<http://www.af-info.or.jp/en/questionnaire/clock.html>> (검색일: 2015.11.16.).

통일예측시계는 환경위기를 12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 환경 위기사계에서 그 외형을 따왔다. 환경위기사계는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Asahi Glass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시계로, 리우 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매년 전세계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시계는

0~3시(거의 불안하지 않음), 3~6시(약간 불안), 6~9시(심각), 9~12시(매우 심각)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시간으로 환경의 위험을 측정하고 있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어려워지게 된다. 조사대상은 최근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조사에는 2,08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15년 현재 환경위기시계는 9시 27분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예측시계는 다양한 한반도 환경이 통일을 향해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환경위기시계가 사용하고 있는 4분위와 12시간 단위의 시계를 외형적으로 동일하게 차용하였다. 즉, 12시를 통일시점으로 상정하고 이를 향한 시점을 0~3시(매우 부정적), 3~6시(다소 부정적), 6~9시(다소 긍정적), 9시~12시(매우 긍정적)로 구분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은 100점 척도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12시간 단위의 시간으로 재계산하였다.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설문

통일시계는 지구종말시계 및 환경위기시계와 달리 단일시계가 아닌 총 12개의 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2개의 시계는 각각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로 대별된다. 통일은 다양한 궤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통일유형에 대한 연구를 취합한 결과 몇 개의 통일유형으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한 선행연구에서 통일은 합의형—한국주도형—전쟁형, 의도적 한국주도형—의도적 공존형—우발적 한국주도형—우발적 공존

I
II
III
IV
V

형 등으로 구분된 바 있다.⁸⁾ 또한 미 CSIS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평화적 통합, 북한의 몰락, 전쟁으로 구분하였다.⁹⁾ 이렇게 볼 때 통일은 크게 합의형, 한국주도형, 전쟁형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합의형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인 통일을 상정하는 통일유형이다. 둘째, 한국주도형은 평화통일 원칙에 입각한 남한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통일이다. 마지막으로 전쟁형은 남북이 무력충돌로 통일이 되는 유형이다.

그 중 유력하고 현실성 있는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을 통일 예측시계의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전쟁형 통일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통일유형이므로 시계의 설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을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두 개의 시계를 우선 구성하였다. 또한 통일은 다면적이고 복잡하며 다방면의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예측시계는 이를 반영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로 이루어진 5개의 하위시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요컨대,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이라는 2개의 유형에 포괄적 시계 및 5개 하위분야 시계로 이뤄진 12개의 통일시계가 구성된 것이다.

각 12개 시계에 대한 설문은 시간을 직접 기록할 경우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00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항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1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에 답변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

8)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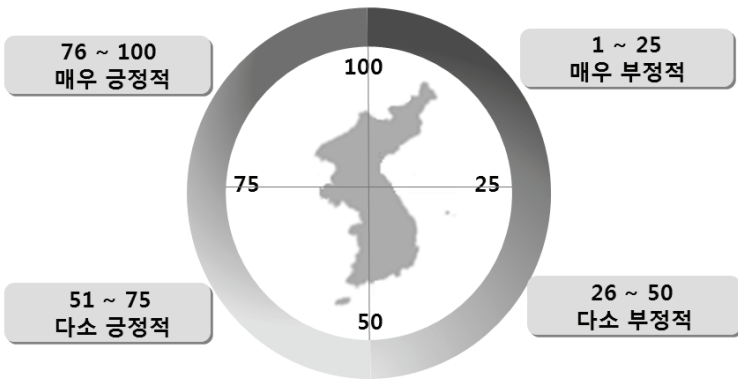
9) CSI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A Working Group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2002), pp. 3~8.

답의 이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이 유형과는 무관하게 통일 그 자체가 미래의 다양한 측면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초래될 수도 있다. 즉, 통일예측시계의 12개 설문은 전문가마다 합의된 상황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설문하기 위해 “현재 합의형 통일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는 설문을 할 수 있다. 이 때 피설문자는 동일 질문에 대해 “긍정-부정”, “가능-불가능”, “단기-장기” 등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질문인지를 혼동할 수 있다. 통일예측시계 초기 조사에서 일부 전문가 패널은 판단준거의 혼동을 토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응답이산성에도 영향을 미세하게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설문을 위해 문항을 분리할 경우 통일시계가 가지는 상징적 함의를 상실하고 통일시계의 숫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델파이 조사 이후 통일시계는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시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순서와 형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우선,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를 각각 한 페이지에 병렬하여 직관적으로 해당 유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판단준거를 제시하기 위해 1-25점은 ‘매우 부정적’, 26-50점은 ‘다소 부정적’, 51-75점은 ‘다소 긍정적’, 76-100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구분하였다.¹⁰⁾

10) 박영호·김형기, 『2011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4.

● 그림 II-4 통일예측시계 설문 문항

아래 그림을 보시면 1부터 100까지 표시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 즉,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합의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1점에서 50점을, 합의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합의형 통일은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출처: 저자 작성

또한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설문과는 별도로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통일요인을 동시에 설문하였다. 통일요인은 2009년 최초 설계 이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개방형 설문의 형태로 설문한 뒤 다시 정리한 것이다. 초기 1,500여 개에 달했던 통일요인은 유사 항목의 정리와 축소과정을 거쳐 33개 문항으로 정리되었으나, 다시 문항 수정을 통해 현 36개의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북한 정치분야 관련문항은 후계체제 구축, 체제 안정성 등 총 6개 문항, 북한경제는 북한의 경제위기, 개혁개방 등 총 4개 문항, 북한사회는 개혁개방과 주민 통제 등 총 5개 문항, 남한의 역량은 통일인식, 경제적 역량, 사회적 역량 등 총 8개 문항, 국제관계 분야는 주변 4국과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총 7개 문항이다. 북한 관련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분야별 문항 수의 결정은 이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통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와 그 영향 비중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모든 문항은 연구대상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9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방향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바로잡았다.

통일예측시계 구축 당시에 비해 설문 문항은 문항의 세련화, 척도정비 등의 과정을 거쳤다. 통일요인설문은 통일예측시계가 장기적인 지수(index)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 문항의 전폭적인 수정은 지양하고 있다. 다만 김정일 집권 시기 관련 문항의 삭제와 미중관계의 중요성 강조에 의한 첨가가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사될 통일시계는 현재 총 36개 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3개의 개방형 설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변화하

I
II
III
IV
V

게 될 통일환경에 대한 패널의 평가를 파악하고 새로운 통일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본 분석에 수행될 통계기법은 기본적인 분석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다. 우선 12개 통일시계의 100점 척도는 시계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해 다시 ‘12시’ 기준의 시계로 변환¹²⁾된다. 또한 중심 집중도와 응답이산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0점 척도로 구성된 12개 통일예측시계와 36개 통일요인은 기본적인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수행한다. 패널의 특성과 설문 문항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통계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의 패널 중 일부가 제외되고 추가됨에 따라 기존 패널의 일관성과 신규패널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패널의 일관성은 2015년 통일시계가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했던 통일예측시계 조사를 통해 전문가 패널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패널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12개 시계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조사에서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와 합의형 통일시계라는 2개의 요인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패널의 응답을 산포도로 그리게 되자 본 연구의 델파이 패널이 각 통일시계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를 보다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11) 3개의 개방형 설문은 향후 1~2년간 예측되는 가)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 나) 국제정세의 변화, 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12) 시간환산은 “(720×‘100점 척도 통일시계’/100)”의 공식으로 100점 척도를 분으로 환산한 뒤 이를 다시 시:분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수행하였으며, 각 군집의 특성을 추적하였다.

2014년 통일시계 구축과정에서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던 36개 통일요인 설문은 새로운 통일요인의 추가 없이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각 요인은 기술분석을 통해 응답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예년의 조사가 축적되었으므로, 각 요인 중 특이한 변화를 가지는 요인의 경우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통일시계가 통일요인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2009년 최초로 설계되고 측정된 통일예측시계는 2011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통일예측시계는 이 분야 최초로 수행된 델파이 조사로서 설문의 체계적 구조화와 델파이 패널 유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2014년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제2기 통일예측시계 조사가 시작되었다. 2014년 통일예측시계의 전문가 패널은 2011년 조사에 참여한 패널 및 비패널 전문가 80명 중 조사에 동의한 54명과 통일연구원 원내응답자 7명으로 구성된다.

재개된 2014년 통일예측시계의 설문 문항은 지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동일한 구조와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즉, 100점 척도의 12개 통일예측시계 설문, 36개의 통일요인설문, 3개의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예측시계는 크게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시계로 구분한 뒤, 각각 정치·경제·사회·군

I
II
III
IV
V

사·국제관계의 5개 하위분야 시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피조사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통일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일요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구성은 동일하였다. 새로운 문항의 추가나 기존 문항의 제거를 위한 개방형 설문에서 특이한 통일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텔파이 조사의 타당성은 전문가 패널의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2011년 및 2014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되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의 균형성을 반영하는 패널을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패널로 유지되는 것에 유의하였다. 다만 은퇴나 해외체류 및 자발적 탈퇴로 인한 패널의 인원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2011년 조사참가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신규패널에 의한 패널특성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2009년 최초의 패널 구성 이후 총 4개년간 수행된 조사에 있어 패널의 연속성은 매우 높다. 이는 통일예측시계 측정과 연구 수행이 큰 대가 없이 통일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기꺼이 동참해주는 패널의 적극적 협력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2009년 통일시계 구축과정에서 총 3회 수행했던 통일예측시계 조사는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1회 수행하였다. 2년간 조사가 1회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텔파이 기법의 간접적 적용을 위해 전년도 조사결과를 패널에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상적인 텔파이 기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취약하며, 응답이산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4년 다시 5개년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텔파이 기법의 전면적인 적용과 함께 과거 연 1회

표 II-1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개요

연도	대상	기간	구조	비고
2014 하반기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61명	2014. 9.22.~10.13.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총 1차 조사 상반기 61명 동일
2014 상반기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61명	2014. 4.18.~6.5.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총 3차 조사 2011년 패널 중 조사동의자 61명
2011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80명	2011. 6.7.~6.27.	2010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2010년 패널 + 29명 추가
2010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51명	2010. 9.3.~9.15.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2009년 패널 일부 교체
2009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51명	2009. 10.19.~11.13.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총 3차 조사 3차 응답 45명

출처: 저자 작성

시행했던 조사의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로 증가시켰다. 특히 상반기 조사는 전형적인 델파이 기법의 절차를 적용하여 2차에 걸친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제1기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응답이산성 문제가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차 조사, 2차 조사(피드백), 3차 조사(최종)의 과정에서 총 3개 세트의 시계가 산출되었다. 델파이 기법의 적용과정에서 소수의 응답자들이 제2~3차 조사과정에서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순환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결과는 1차 조사만 시행했던 여타 연도와 크게 상이하지 않았다. 요컨대, 통일시계의 평균값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패널

I
II
III
IV
V

의 군집성은 어느 정도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하의 극단치 응답자들이 패널 전체의 평균값에 가까운 방향으로 다소 수렴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4개년간의 조사과정에서 12개 통일시계의 시계 간 일관성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지되었다. 한국주도형과 합의형 및 각 5개 하위분야 시계는 모든 조사시기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매우 높은 응답이산성과 극단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 오차의 상쇄효과로 비교적 균질적인 시계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가. 델파이 조사 및 비교집단 조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과정에서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전반적으로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 4시 19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상반기 3시 17분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4년 하반기에 3시 47분으로 다소 회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대로 점진적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이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여전히 시간적으로 멀지만 합의형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 조사기간에 걸쳐 합의형에 비해 한국주도형은 대체로 1시간 20분~30분가량 12시(통일시간)를 향해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역시 2009년에

표 II-2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통일전반		정치		경제	
	합의형	한국주도형	합의형	한국주도형	합의형	한국주도형
2009	4:19	5:56	3:53	5:44	4:57	6:26
2010	3:45	5:20	2:45	4:25	4:42	6:22
2011	3:31	5:30	2:40	4:38	4:48	6:35
14-1-1	3:22	5:08	2:35	4:24	4:41	6:19
14-1-2	3:16	5:07	2:29	3:54	4:21	6:05
14-1-3	3:17	5:06	2:27	4:06	4:34	6:10
14-2	3:47	5:06	2:56	4:12	4:58	6:05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형	한국주도형	합의형	한국주도형	합의형	한국주도형
2009	4:26	5:38	2:51	4:53	4:27	5:40
2010	4:01	5:26	2:14	4:01	3:44	4:29
2011	4:07	5:35	2:11	3:46	3:35	4:53
14-1-1	3:47	5:20	2:12	3:51	3:31	4:53
14-1-2	3:49	5:22	2:05	3:33	3:28	4:43
14-1-3	3:47	5:15	2:07	3:41	3:29	4:49
14-2	4:09	5:23	2:27	3:35	3:53	4:51

출처: 저자 작성

비해 다소 통일에 멀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5시대를 기록하여 중간점인 6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일시계에서 6시는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중간지점을 의미한다.

조사기간 중 전반적인 합의형 및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하락추세는 5개 하위분야의 통일시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분야와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시대로 전체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낮은 시간을 기록하였다. 2시 59분보다 낮은 시간대는

I
II
III
IV
V

동 분야의 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패널의 판단을 반영한다. 5개 하위분야 통일시계 역시 한국주도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 중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12개 시계 중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를 넘겨 매우 미세하게 조사시점 당시에 통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 시계는 2009년 6시 26분으로 출발하여 2014년 6시 5분으로 기록되었으며, 완만한 하락추세를 그리고 있다.

한편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평가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는 그 자체로 유용한 현상평가의 자료로 기능한다. 즉, 델파이 패널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개방되어 있고 더 높은 분석력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집단지성은 다른 집단이나 국민여론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다른 전문가나 특정 집단의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델파이 패널의 현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이들 집단과 델파이 패널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델파이 패널은 장기간 북한·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델파이 패널은 2009년 이후 조사에 참여하여 통일예측시계 조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우선 유사한 북한·통일·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들 비패널 전문가는 델파이 패널 선정과정에서 표집된 동일 모집단(전문가 목록)에서 추가로 선정된 30명의 집단이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한 전공과 관심분야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비교집단은 개성공단

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동 집단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위임하여 2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 비교 집단은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주민 99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동 집단은 NK지식인연대에 위탁하여 조사하였으며, 되도록 탈북시기가 가깝고 높은 학력을 가진 표본을 선정하려 하였다. 끝으로 일반 국민의 통일시각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동 국민의식조사는 2010년 조사에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어 2011년 조사에서 반복되었다.

비교집단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비교집단과의 시간차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본 통일예측시계 조사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게 하였다. 즉, 해당분야 전문가의 시각에 대한 상대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특정 집단의 통일시계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희망하는’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델파이 패널에게 주어진 12개 통일예측시계와 36개 통일요인을 그대로 설문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2개 통일시계와 18개 통일요인설문으로 축약하였다.

델파이 패널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비패널전문가 집단이었다. 비패널전문가는 델파이 패널에 비해 비교적 넓은 응답분포를 표출했으나 패널과 시간차가 20분 이내로 매우 좁으며, 각 시계의 상대적 크기도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한편 대북사업자는 직접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조사설계 당시부터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조사결과 매우 특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다른 모든 집단이 그 편차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합의형보다 12시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된 데 반해, 대북사업자의 경우

I
II
III
IV
V

유일하게 합의형 시간이 5시 16분으로 한국주도형 5시 5분보다 더 빠르다. 이는 동 집단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합의형 통일의 상황이 가장 기대되는 사업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주민의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탈북주민은 모든 통일시계에 대해 델파이 패널에 비해 1시간 이상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 집단의 통일에 대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합의형의 경우 패널에 비해 1시간 26분 통일에 가까우며, 한국주도형은 1시간 20분 빠르다. 국민여론의 경우도 독특한 시간이 산출되었다. 한국주도형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비해 16분 빠르며, 이는 거의 동일한 시간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합의형 통일시계는 49분의 격차가 나고 있다. 즉, 국민여론은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해서는 델파이 패널과 거의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합의형 통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표 II-3 2010년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과 비교집단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
합의형	3시 45분	4시 7분	5시 16분	4시 47분	5시 11분
한국주도형	5시 20분	5시 36분	5시 5분	5시 36분	6시 40분

출처: 저자 작성

여러 관심집단을 비교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했던 2010년의 경험에 따라 이후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국민의식조사의 목적은 매우 높은 정보와 지적

수준을 갖춘 전문가에 비해 국민의 통일인식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은 북한문제에 대한 지식과 예측력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합의와 의지가 통일여부와 그 과정을 결정하는 주요 추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통일의 역량을 담보하는 남한 국민의 의사와 인식은 때로 전문가의 집단지성에 의한 평가보다 더 앞설 수 있으며, 그러한 국민의식을 추적하는 것 역시 중대한 통일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역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2010년 국민의식조사와 유사하게 수행되었던 2014년 국민의식조사는 합의형 통일시계가 4시 14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4시 43분으로 기록되었다. 두 개의 시계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통일시계가 뒤로 후퇴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패널의 동 시계에 대한 경향과 일치한다. 다만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10년 당시 패널과의 시간차가 1시간 2분이었음에 반해 2014년 조사에서는 그 간극이 27분으로 줄어들었다. 즉, 패널보다 27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주도형 통일의 경우 2010년 패널보다 16분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2014년의 경우 패널보다 23분 통일에 멀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응답이산성과 쌍봉형 분포

총 4개년에 걸쳐 수행된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연구진이 가장 우려했던 현상은 패널의 각 통일시계에 대한 응답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며, 간헐적으로 쌍봉형 분포(bimodal distribution)가 나타났던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36개 통일요인에 대한 답변에

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예측시계 패널은 장기적으로 북한·통일·안보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 집단으로 비교적 균등한 통일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학자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문항에 대해 매우 큰 범위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점이다.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응답이산성의 경우 대체로 패널은 합의형보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해 더 높은 응답이산성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조사에서 합의형 통일시계의 표준편차는 15.994인데 반해 한국주도형은 17.964를 기록하였다. 통일요인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패널의 평가는 사안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위기나 북한 체제의 독재성 등 비교적 분명히 구별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응답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시장경제나 사회적 이완 등에 대해서는 그 이산성이 크게 부각된다. 이는 일면 불완전하고 불가측한 통일분야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패널 개개인이 통일전반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예컨대, 2014년 상반기 반복조사과정에서 패널은 일부 평균에 근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전체 표준편차의 차이는 그리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패널 구성원 대부분은 대체로 주어진 사안에 대해 매우 휘발성이 낮은 견해를 공고히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 비교적 일치되는 예측값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산성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쌍봉형 분포는 평균값으로 계산되는 통일시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다. 또한 통일요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쌍봉형 분포는 해당 항목의 해석에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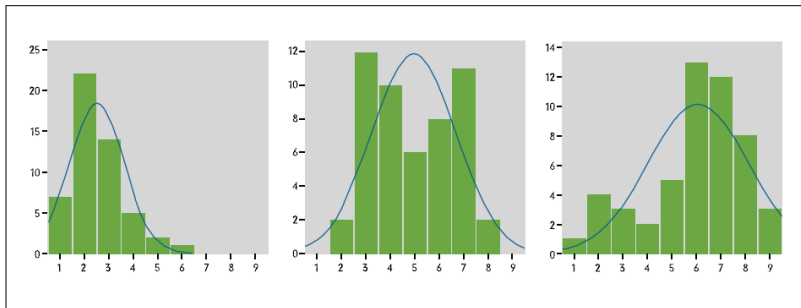
응답이산성과 관련하여 우선 통일시계의 경우 2014년 순환측정에 의한 경향을 고려컨대 앞으로도 수년간 그 범위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 패널의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양분되는 경향이 존재하며, 그러한 경향은 가까운 미래에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패널의 두 통일시계군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제IV장의 군집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통일요인에서 나타나는 넓은 응답범위와 쌍봉형 분포는 단일 조사만을 고려할 경우 그 해석이 매우 어려우며,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문항에 대한 연속적인 반복조사 과정에서 이산성과 쌍봉형 분포는 오히려 북한과 통일환경의 변화과정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소수의 패널로 구성된 과소사례 분석이다. 통상 과소사례의 경우 중심집중치를 중심으로 한 정규분포 곡선이 나타나기 어려우며, 극단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즉, 분포의 형태는 과소사례의 문제이며 이 때문에 통일요인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쌍봉형 분포는 단일 조사에서는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만 연속 조사에서는 오히려 해당 분야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포라는 점이다.

2009년~2014년간 수행된 통일요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쌍봉형 분포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변화의 초기에 들어서는 요인의 경우 응답분포는

매우 넓다. 둘째, 넓은 응답분포는 점차 매우 큰 양(+)¹의 왜도(skewness)를 가진다. 셋째, 변화가 지속될수록 중앙점을 기준으로 좌우 두 개의 최빈값(mode)을 가지는 쌍봉형 분포로 변화한다. 넷째,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응답은 점차 음(-)²의 왜도를 가진 분포로 변화한다(통일요인에 따라 반대부호의 왜도로 이동할 수 있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일부 통일요인의 경우 전체 평균이 5 이하 → 5 → 5 이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분포의 형태 자체도 단봉형 → 쌍봉형 → 단봉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봉형 분포가 나타나는 통일요인은 변화가 시작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였으며, 2014년 조사에서 그 변화과정을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II-5** 분포의 변화: 양의 왜도 분포 → 쌍봉형 분포 → 음의 왜도



출처: 박영호·김형기, 『2011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0.

4. 2015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조사	대상	기간	구조	비고
델파이 조사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0명	2015.9.10.~18.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52명 응답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제1기 통일예측시계 구축 이후 2014년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조사가 재개되었다. 2015년은 5개년 계획 중 2번째 조사이다. 2015년 조사는 기존에 수행했던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으며, 비교집단 및 국민의식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여건이 불비하여 순환(feedback) 과정을 거치지 않고 1회 조사만을 수행하였다. 패널은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패널 61명 중 4명이 개인사유로 제외되고 3명이 추가되어 총 60명의 패널이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9일간 수행된 조사 결과, 52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전문가 패널에 대한 설문 문항은 지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예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 설문으로 구조화되었다. 통일예측시계는 해당분야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을 100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00점 척도에서 100점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1점은 통일이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다. 동 문항은 2011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문항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복합적 문항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시간을 감소하고 피설문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문항이다. 문항은 크게 합의형 통

I
II
III
IV
V

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로 양분하였으며, 각각 전반적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분야의 시계를 할당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총 12개의 시계는 각각 합의형 및 한국주도형 6개씩 별도의 페이지에 설문함으로써 다수의 조사항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피설문자의 편의를 위해 4개의 안내구간을 설정하였다. 즉, 1점~25점은 ‘매우 부정적’, 26점~50점은 ‘다소 부정적’, 51점~75점은 ‘다소 긍정적’, 76점~100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판단준거를 제시함으로써 각 구간에 대한 응답이산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설문구조로 인해 2014년 상하반기 각각 수행된 통일시계에 대한 조사에서 단 한 개의 결측치만 발생하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단 한 개의 결측치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09년~2014년의 4개년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전문가 패널의 응답이산성 문제는 2015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통일요인 설문은 조사 당시 통일관련 제반 요인의 달성수준을 파악하고 통일의 각 방식에 대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통일요인은 2009년 조사과정에서 통일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260여 개¹³⁾로 요약한 뒤, 이를 다시 33개로 축약하여 구성된 2009년 통일요인 설문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2010과 2011년 조사에서 기존 설문문항을 세련화한 뒤, 10점에서 9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변형하였다. 피설문자의 응답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의 확대를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통일요

13) 박영호·김지희, “부록-1,2차 전문가델파이조사 통일요인 비교분석 결과,”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207~218.

인으로 인해 2011년부터 현 36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다의적 문항의 분해를 제외하고 추가된 문항은 미중관계(문35) 1개 항목이다. 2014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의 이후 김정은 시대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후계승계와 관련된 문항(문1)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으로 대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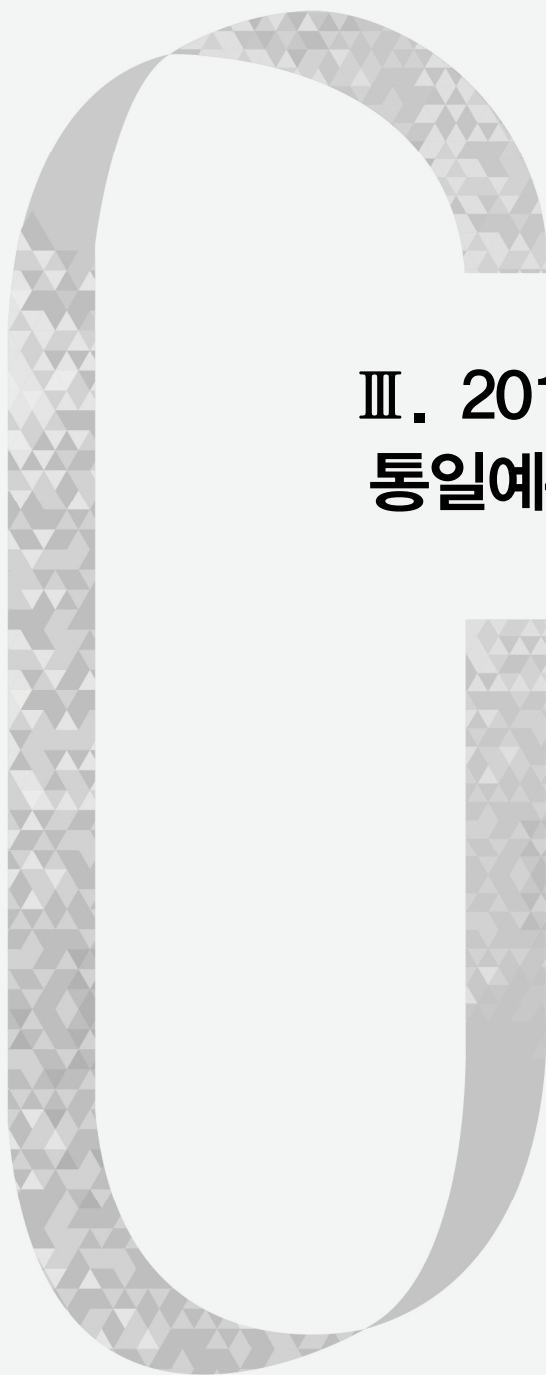
I

II

III

IV

V



Ⅲ. 2015년 동태적 통일예측모형 개발

1. 통일예측시계 모델의 보완점

현재의 통일시계 연구는 주로 전문가 델파이 방법에 의존하는 단일 자료원 활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 방식과 함께 탈북자 조사결과, 객관적 2차 자료 및 이벤트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의 가능성을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국내외 지수모형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통일시계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수모형 개발의 목적 및 활용방안을 개발 이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통일시계 연구는 ‘합의형 시계’와 ‘한국주도형 시계’로 구분해 두 가지 방식의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양자 간의 체계적 연동성 기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의 연계성을 지수모형 내에 내포한 설명논리를 담는 방향에서 지수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개발된 통일예측시계 모형을 지속시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은 첫째, 단일 자료원보다는 다원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현상평가를 위한 정태적 지수모형과 미래예측을 위한 동태적 지수모형을 개발해 병행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특히 예측을 위해서는 자료수집 방법론과 다른 별도의 예측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수모형으로 측정하

I

II

III

IV

V

고자 하는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수모형 활용 목적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통일시계 연구는 시계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보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보완된 새로운 모델 역시 최종 지수 결과를 시계방식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시점의 상태 평가와 가까운 미래 예측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로 향하는 방향성과 분열로 향하는 방향성을 구분해 표현해 주는 방식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개발방향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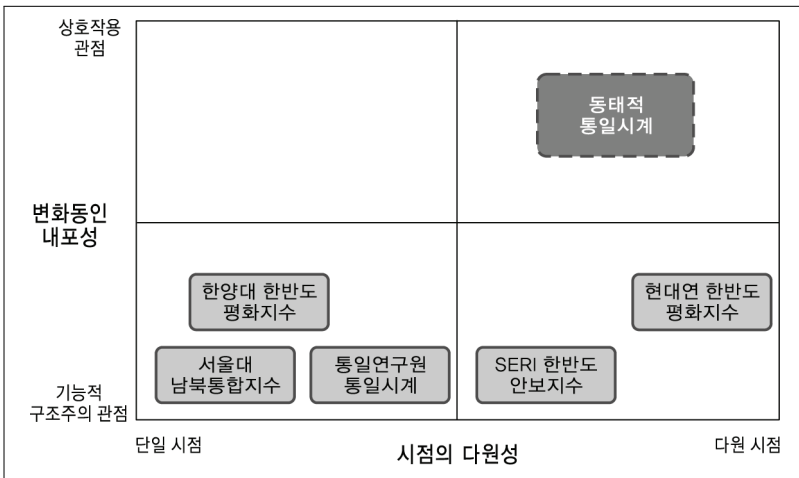
가. 동태적 지수모형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동태성(dynamics)의 일반적 의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동태성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동태(動態)의 의미는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을 지칭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동태성이나 역학, 동역학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dynamics’의 의미를 웹스터사전에서 찾아보면, ‘the pattern of change or growth of an object or phenomenon’을 지칭하는 용어로, 물리현상에서는 ‘a branch of mechanics that deals with forces and their relation primarily to the motion but sometimes also to the equilibrium of bodies’를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된다.¹⁴⁾

14) 웹스터사전, <webster.com/dictionary/dynamics> (검색일: 2015.11.16.).

이러한 일반적인 동태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동태적 지수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태적 지수모형이 통상 특정 시점에서의 관찰하고자 하는 상태를 기술함에 비해, 동태적 지수모형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술함은 물론 향후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수모형을 지칭한다. 둘째, 현상 기술적인 기능적 구조주의 관점을 넘어서, 변화의 동인과 이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을 내포한 상호작용 관점을 지향하는 지수모형을 지칭한다.

● 그림 Ⅲ-1 동태성 관점에서 기존 지수모형과 동태적 통일지수 모형의 위치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와 같이 통일 예측연구, 특히 통일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동태성 요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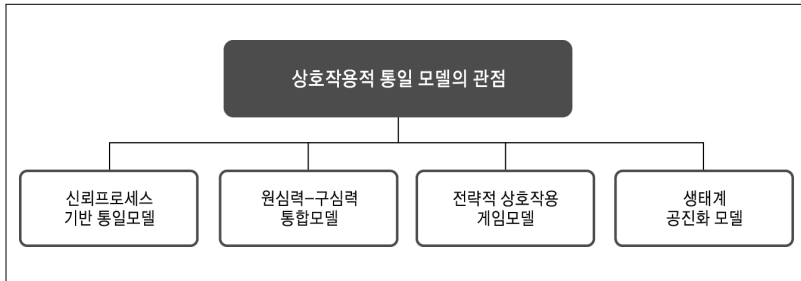
첫째, 통일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술함은 물론 향후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수모형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 평가’와 ‘가까운 미래 예측’ 간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모형 내에 변화의 동인과 이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을 내포한 상호작용 관점을 지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은 어느 한 편의 의지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중 어느 한편의 특정한 행동이나 현상이 연구모형 내에서 ‘확정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행동이나 현상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는 값’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태성 요건을 고려할 때,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개발의 방향성은 첫째, 남북통일과 관련해 ‘현재의 상태 평가’와 ‘가까운 미래 예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수모형이어야 하며, 동시에 ‘현재의 상태 평가’와 ‘가까운 미래 예측’ 간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통일과 관련해 남북 중 어느 한편의 특정한 행동이나 현상이 지수모형 내에서 ‘확정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행동이나 현상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는 값’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호작용 함수를 내포한 지수모형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 동태적 통일모형과 관련된 연구관점

동태적인 통일 과정이나 통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음의 4가지 연구관점을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을 위한 근거 이론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출처: 저자 작성

(1) 신뢰프로세스 기반 통일모델 연구

국제관계에서의 신뢰구축(C Confidence Building)은 “양 국가 간 또는 다수의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 교류, 합의를 통해 이해와 신뢰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문화적인 면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¹⁵⁾ 이를 위해 DIME(Diplomatic, Information, Military, Economic)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교환, 경제적 교류와 협력, 사회 문화의 교류와 교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보는 접근

¹⁵⁾ J. Macintosh,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Canadian Perspective* (Ottawa, Canad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1985), pp. 12~14.

법이다.¹⁶⁾

국가 간 신뢰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군사적 신뢰구축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가들 상호 간에 안보와 군사문제에 있어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특별한 국가행위를 지칭하며, 이 관점에서는 국가 간 상호 군사안보관계에 있어 불신을 배양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와 오인(misconception), 두려움(fear)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주목한다.¹⁷⁾ 군사적 신뢰구축은 양국 간 비공격적 군사활동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군사의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신뢰구축은 군사 의도(intentions)를 강조하는 반면, 군사 능력(capabilities)을 다루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남북한 신뢰구축은 박근혜정부의 대북관계 정책 특징을 일부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관계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일반원칙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 초기 박근혜정부의 대북관계 정책 및 행동을 근거로 그 특징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¹⁸⁾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천명하였다. 양운철은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이행하여 남북한 관계에 신뢰가 축적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대북 지원 성격을 지니고

16)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2002), p. 49.

17) 위의 글, pp. 47~75.

18) 양운철, “박근혜 정부의 주요현안과 정책제언: 남북관계,” 『정세와 정책』, 통권 202호 (세종연구소, 2013), pp. 2~5.

있다”고 논했다.¹⁹⁾ 여기에 남북한이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합의를 이행하고,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안과 함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 초기 군사적 긴장 증대 및 대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당초의 정책의지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커다란 전환을 맞이할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현재에도 호전적인 북한의 태도(장거리 로켓 발사, 제3차 핵실험 등)로 인해 신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국면 완화 및 남북 간 대화조차 단절된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향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관계 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향후 전개전망을 추적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프로세스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²⁰⁾

- [1안] 선 평화체제구축 후 군비통제 프로세스: ① 교류·협력증대
→ ② 신뢰구축 형성 → ③ 평화체제 구축 → ④ 군비통제
→ ⑤ 통일

19) 위의 글, p. 2.

20)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세종정책연구』, 제2권 2호 (2006), pp. 5~78.

[2안] 선 군비통제 후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 ① 교류·협력 증대
→ ② 신뢰구축 형성 → ③ 군비통제 → ④ 평화체제 구축
→ ⑤ 통일

[3안] 선 군비통제-평화체제구축 후 신뢰구축 프로세스: ① 교류·
협력 증대 → ② 군비통제 → ③ 평화체제 구축 → ④신뢰
구축 형성 → ⑤ 통일

[4안] 선 평화체제구축-군비통제 후 신뢰구축 프로세스: ① 교류·
협력 증대 → ② 평화체제 구축 → ③ 군비통제 → ④ 신뢰
구축 형성 → ⑤ 통일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우선시한 김대
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다. 선 교류협
력보다는 선 신뢰구축을 우선시하는 정책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선 신뢰구축 이후에 본격적
인 평화체제 구축 또는 군비통제 등의 후속적인 단계 완료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프로
세스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군사적 대결국면 및 교
착상태의 해소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 → ② 남
북한 직접적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 → ③ 신뢰구축 (기존 합의
존중 및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 ④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규모
지원 등의 선행 필요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체가 남북한의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
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직적인 남북한 신뢰지수가 아닌 유연성을
지닌 남북한 통일지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반영한 통일지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와 유사 지수모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신뢰프로세스 개념에 가장 근접한 국제관계 연구 분야로, 국가 간 신뢰구축(international confidence-building)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한반도 국가 간 신뢰구축의 단계 및 신뢰구축 방법론 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은 편이다. 다만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만, 지수모형으로 개발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가 간 신뢰구축 연구 중 통일 지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로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군비 축소나 대립국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군비 관리·군축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립국 간의 오해와 경계선을 풀게 하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비록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호 간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꾀함으로써 위기발생 시의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 특히 신뢰구축조치 연구에서 상정하는 긍정-부정 피드백(positive feedback-negative feedback) 개념은 통일시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리적으로 긍정 피드백(positive feedback, 군사적 공격 또는 인권침해 우려/의심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갈등/긴장이 증대하는 모델)과 부정 피드백(negative feedback, 신뢰구축 행동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갈등/긴장을 감소시키는 모델)시키는 방법을 통일시계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간 갈등 지수모형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준 및 유형을 평가하고, 그 해소 방안을 연구했던 선행연구들을 지칭한다. 이는 신뢰구축의 대전제로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

I
II
III
IV
V

요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정부신뢰(Government trust, Confidence in government)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분야에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다양한 지수모형 및 지표, 측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방법론 측면의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2) 원심력-구심력 통합모형 연구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을 적용한 통합모형 연구로는 지리경제학적 지역통합모형과 함께 체제안정성 모형 연구 등이 존재한다.

먼저 지리경제학적 지역통합모형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유럽공동체 형성과정 모형 연구를 들 수 있다.²¹⁾ 유럽공동체(EU)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원심력과 유럽공동체 지향의 초국가적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라는 두 개의 힘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제도적 측면에서의 원심력(국민국가 요구)과 구심력(초국가적 제도)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개념적 연구로 지수모형을 지향하는 경험적 연구 관점에서의 직접적 시사점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가간 통합을 설명함에 있어 원심력과 구심력 개념을 접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신지리경제학 관점의 경제적 집적지 형성논리의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

21) 박찬욱·구갑우·김영순, “유럽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국가와 초국가적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4), pp. 45~108.

22) 김정훈,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재정포럼』, 제14권 6호 (2009), pp. 6~23.

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입지패턴, 특히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집적(agglomeration)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대표적 주창자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전방연관효과(노동자들이 공산품의 생산지에 근접하려는 유인)와 후방연관효과(생산자들이 시장규모가 큰 곳에 입지하려는 유인)에 따른 구심력(centripetal force)이 농부의 비이동성에 따른 원심력(centrifugal force)보다 크다면, 이 경제는 중국에는 핵심부-주변부의 형태로 귀착되어 모든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 집적지 형식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제적 집적지가 형성되는 구심력과 분산을 유지하려는 원심력의 크기를 경제적 개념을 활용한 수리적 모형으로 접근하고 있어 동태적 통일모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경제력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지리경제적 힘을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단순화해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수리적 모형을 활용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가지 핵심 경제개념을 수치화해 적용하는 한계 또한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을 적용해 북한 체제안정성을 연구하고 있다.²³⁾ 특히 송경재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을 활용한 북한체제 안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²⁴⁾ 이 연구에서는 위기요인을 그 체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으로, 안정요인을 체제 안정화를 위한 내부로 응집하려는 구심력으로 설정하여 모델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모형과 같이 1단계 안정화 단계를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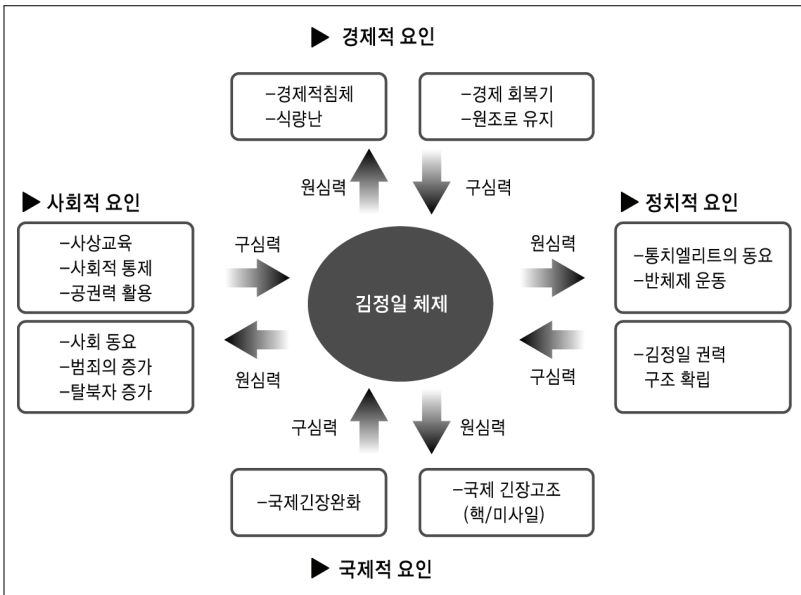
23) 송경재, “북한 체제 안정요인 분석: 김정일 체제를 중심으로(1994년~2001년),” 『사회연구』, 제3권 1호 (2002), pp. 177~204.

24) 위의 글, p. 182.

I
II
III
IV
V

제 안정 단계(구심력 > 원심력), 2단계 부분적 안정 단계(구심력 ≥ 원심력), 3단계 부분적 위기단계(구심력 ≤ 원심력), 4단계 위기단계(구심력 < 원심력)로 설정하고 질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Ⅲ-2 북한체제의 원심력-구심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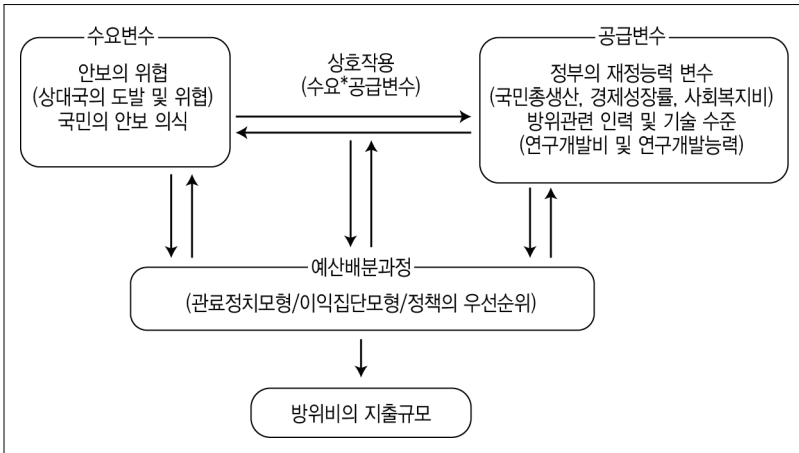
출처: 송경재, “북한체제 안정요인 분석: 김정일 체제를 중심으로(1994년~2001년),” p. 182의 그림 인용.

이 연구는 원심력=위기요인, 구심력=안정화요인으로 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제 안정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원심력-구심력 개념보다는 위기-안정화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개념 차원을 넘어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인(일종의 지표)으로 구체화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전략적 상호작용 게임모델 연구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이란 게임과 같이 특정한 상황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활용해 잇점을 얻고자 하는 상호작용을 지칭한다.²⁵⁾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내포한 연구로 군비경쟁 모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²⁶⁾ 군비경쟁 모형은 미소 냉전상황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델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게임의 당사자 모두 군비경쟁을 통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군비증강을 행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군비경쟁 모델에 근거해 남북

● 그림 III-3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상호작용모델



출처: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p. 44의 그림 인용.

25) E. Goffman, *Strategic Intera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9), pp. 100~101.

26)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전략논총』, 11권 (1999), pp. 7~49.

I
II
III
IV
V

대치 상황에서의 방위비 결정모형을 구조방정식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⁷⁾

한편 홍우택은 게임모형을 활용한 남북관계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²⁸⁾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되려면 한 국가가 취하게 되는 이득 (payoff)은 상대방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분석은 행위자가 선택하는 전략(strategy)과 이에 따른 이득(payoff)이 상대방의 전략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석 바탕으로 삼기에 상호의존관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국가 간 관계분석에 적용하기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호의존 게임모형은 행위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독립(independence), 의존(dependence), 그리고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⁹⁾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개념을 활용한 남북관계 연구도 있다.³⁰⁾ 박영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본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 특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개념을 활용해 행위자로서 남북한 정권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상호작용의 환경과 메커니즘, 둘째, 행위 양상과 목표, 셋째, 피드백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철저히 당국 차원의 상호작용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남북 정권 간 밀고 당기기라는 힘겨루기 게임이 순환하고 있다는 점, 셋째, 남북 정권 공히 자신의 주도권 위기를

27) 위의 글, p. 44.

28) 홍우택, “이슈연계(Issue Linkage)전략의 성공조건 분석: 게임모형을 이용한 ‘비핵·개방·3000’정책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주관 건국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주관패널 발표자료』 (2008), pp. 7~28.

29) 위의 글, pp. 12~14.

30) 박영자,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5~28.

느낄 경우 강성의 긴장고조 행태를 보인다는 점, 넷째, 갈등 긴장도가 고조되면 한 측에서 긴장완화 계기를 만들고 또 다른 한 측에서 이를 조율하며 파국위기를 봉합한다는 특징을 제시한다.³¹⁾

(4) 생태계 공진화모델 연구

전략적 상호작용 모델이 남북한 양자 간 동일목표 의존성으로 인해 승리-패배, 이익-손실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면, 생태계 공진화 모델에서는 양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남북통일의 최종 지향점이 승리-패배, 이익-손실의 관계를 전제하기보다 양자 간의 공동승리(win-win)에 있다면, 생태계 관점에서의 공진화 개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관점에서는 공진화의 조건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진화 생물학 연구자들은 고전적인 게임 이론의 가정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의 합리성(rationality) 대신 다윈 선택(Darwinian selection)에 의해 게임의 해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진화적 안정 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 ESS)을 제안한다. 이러한 진화적 게임 이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생태계의 공진화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카우프만(S. A. Kauffman)은 다른 종들 간의 공진화적 동역학(dynamics)을 분석하기 위한 NK 모델(복한 모델)을 이용하여 공진화 현상이 어떻게 정적 상태(static state)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한다.³²⁾ 한편 김여근·김재윤은 수리적 방법을 활용한 공진화 조건을 연구한

31) 위의 글, pp. 32~52.

32) 심귀보·김지윤·이동욱, “게임 이론에 기반한 공진화 알고리즘,”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14권 3호 (2004), pp. 253~261.

I
II
III
IV
V

다.³³⁾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경쟁공진화 알고리즘은 생태계에서 진화적 무기경쟁을 통해 생물학적 종들이 공진화하는 현상을 모형화하여 개발한 확률적 탐색기법을 지칭한다.

생태계 공진화 모델은 남북통일의 최종 지향점을 양자 간의 공동승리(win-win)에 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중요 개념과 원리,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진화생물학 관점의 실제적 연구들이 매우 정교한 수리적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와 동태적 통일모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설계

가.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의 개념적 틀 구상

앞선 상호작용 개념을 중시한 4가지의 연구관점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의 개념적 틀을 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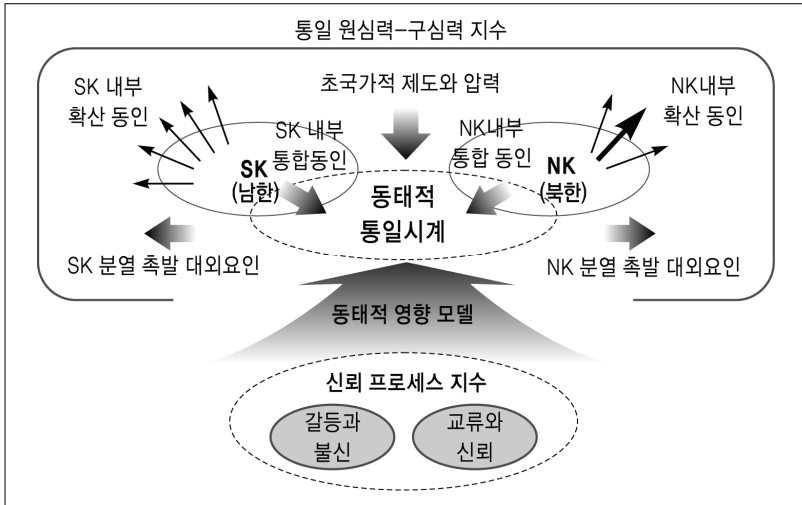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은 다음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 ① 통일 원심력-구심력 지수: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지수모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 ② 신뢰프로세스 지수: 통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 양측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갈등과 불신-교류와 신뢰의 2차원 축으로 평가하는 지수모형. 자체로 현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모형의 한 축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동태적 영향 모델링에 투입되는 핵심 변인으로 작동

33) 김여근·김재윤, “경쟁 공진화 알고리즘에서 경쟁전략들의 비교분석,” 『대한산업공학회지』, 제28권 1호 (2002), pp. 87~98.

- ③ 동태적 영향 모델링: 통일 가능성과 관련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동태적 모델링의 핵심부분. 이 부분은 상호작용의 함수가 포함된 방법론을 그 핵심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2~3년 내의 가까운 미래 영향 추정

그림 Ⅲ-4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의 개념적 틀



출처: 저자 작성

나. 통일 원심력-구심력 지수(TUI_CC)모형의 개발 논리

통일 원심력(centrifugal force)-구심력(centripetal force) 지수모형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지수모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통일시계(0시~12시) 비유 Vs. 통일온도계(-100℃~100℃) 비유 문제가 제기된다. 원심력-구심력 모델 관점에서는 통일로 가는 힘과 분열로 가는 힘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시계보다는 -100℃

I
II
III
IV
V

(극단의 분열 상태)~100℃(통일 완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통일온도계가 더 적합한 비유로 판단된다.

통일 원심력-구심력 지수모형은 다음과 같은 구조와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 원심력-구심력 지수는 SK(남한)와 NK(북한), 국제관계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즉 SK와 NK 각국의 원심력-구심력 지수(U_LSK, U_LNK)와 이것의 상호연계(상호작용)를 통한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_LCC)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국제관계 측면의 원심력-구심력 영향요인(CF_{IR}, CP_{IR})을 반영한 통일 원심력-구심력 통합지수(TU_LCC)를 산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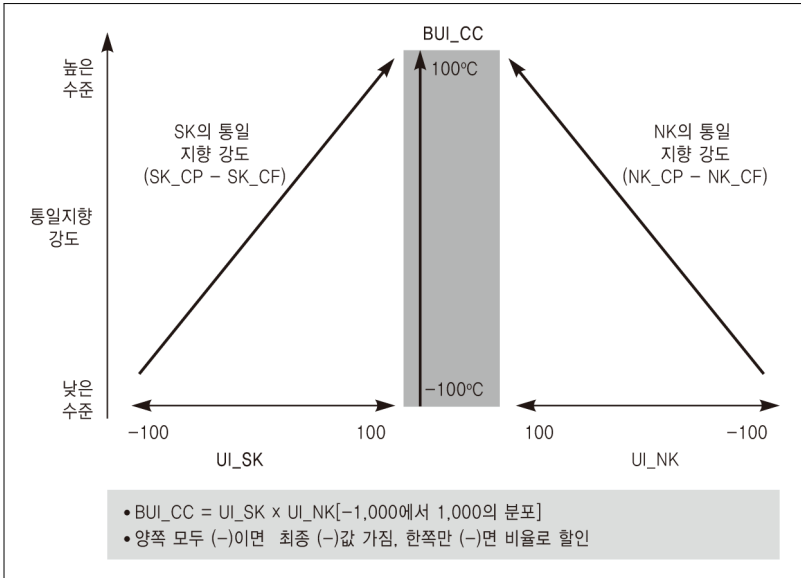
둘째, SK와 NK 부문은 하나의 국가로 상정하고 각각의 국가단위 원심력-구심력 지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원심력-구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 필요, 각국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및 측정항목 개발, 각국별 원심력(100점 만점), 구심력(100점 만점) 지표 구성 및 측정 등의 추가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원심력-구심력 모형에 기반한 각국의 통일지향 강도(U_LSK, U_LNK)는 [구심력-원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셋째, 각국 원심력-구심력 지수의 상호연계(상호작용)를 전제한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_LCC)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K와 NK 각각 원심력-구심력 지수의 상호연계(상호작용)를 위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우선, 원심력 < 구심력의 점진적 진화에 따른 단계적 통합 모델 접근법을 소개하자면, 각국의 원심력 < 구심력의 점진적 진화에 따

른 단계적 통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K와 NK 각각에서 독자발전을 지향하는 원심력보다 통일을 향하는 구심력이 높아진다면 통일 온도는 통일의 방향으로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통합모형은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전제한 연방형식으로 준비된 통일이라 할 수 있으며, 현 통일시계의 [합의형 시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 **그림 Ⅲ-5**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I_CC)에 기반한 단계적 통일모형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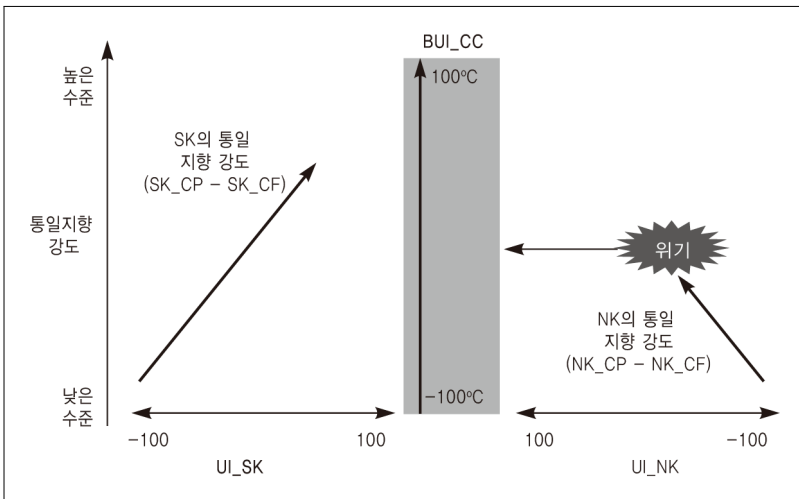
위 그림은 SK와 NK 각각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원심력 < 구심력의 점진적 진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단계적 통합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즉 SK와 NK 각각에서 분열을 향하는 원심력은 약화되

- I
- II
- III
- IV
- V

고(-100℃ → 0℃ 방향), 반대로 통일을 향하는 구심력이 강화된다면(0℃ → 100℃ 방향) 통일 온도계는 통일상태를 의미하는 100℃로 움직일 것이다.

또한 급격한 체제 위기와 구심력에 의한 한국주도형 통합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문제, 통일 이후의 부작용 문제를 고려할 경우, 단계적 통합 모형이 바람직하지만 남북의 현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의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NK의 급격한 체제 위기 상황이다. 동태적 통일모형은 이러한 상황도 지수 체계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원심력-구심력 모형 관점에서 NK의 급격한 체제 위기는 SK의 통일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NK 측의

●그림 III-6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I_CC)에 근거한 급격한 체제 위기 현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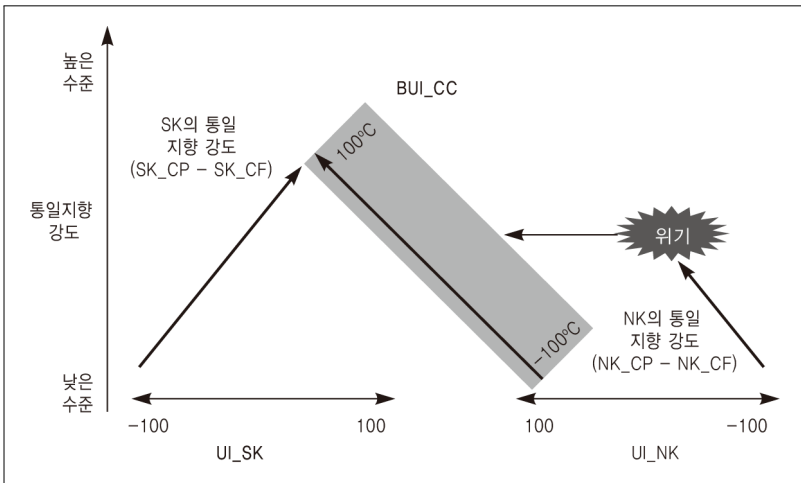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통일 구심력만 작동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특정 국가(NK)의 원심력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 통일 온도계에서 작동하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면서 온도계를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 그림 III-7 급격한 체제 위기에 따른 남한주도 통일 전망



출처: 저자 작성

그렇게 된다면 위의 그림처럼 구심력에 의한 급속한 통합(준비되지 않은 남한주도 통합)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 통일시계의 [한국주도형 시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부분이다.

넷째, 남북통일의 문제는 한반도의 정세 특성상 당사자 간 관계로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초국가적 제도와 압력, 각국의 원심력을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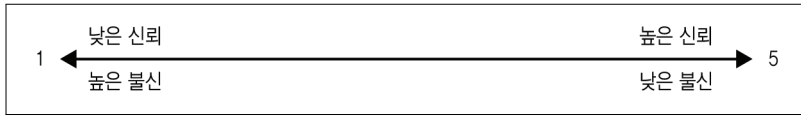
강화하는 분열 촉발요인의 영향을 반영한 통일 원심력-구심력 통합지수(TUI_{CC})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심력을 강화하는 초국가적 제도와 압력은 통일 원심력-구심력 기본지수(BUI_{CC})의 수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분열 촉발요인은 각국의 통일지향 강도(UL_{SK}, UL_{NK})를 계산함에 있어 각국의 원심력 강화요인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국제관계 측면의 초국가적 제도와 압력과 분열 촉발요인의 영향을 반영한 최종 통일 원심력-구심력 통합지수(TUI_{CC})를 산출할 수 있다.

다. 통일시계를 위한 동태적 영향 모델링 구상

개념적 틀을 통해 제시된 동태적 영향 모델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적 축의 하나가 바로 신뢰-불신(trust-distrust) 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남북 간 발생하는 신뢰-불신의 동태적 영향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신뢰-불신의 동태적 영향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뢰-불신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신뢰-불신 관계의 차원을 연구함에 있어 1차원적 인식 관점이 존재한다. 이는 낮은 신뢰=불신, 불신이 없는 상태=신뢰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주로 긍정적인 신뢰 관계, 또는 부정적 불신관계에만 초점을 둔 연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 그림 III-8 신뢰-불신의 1차원적 인식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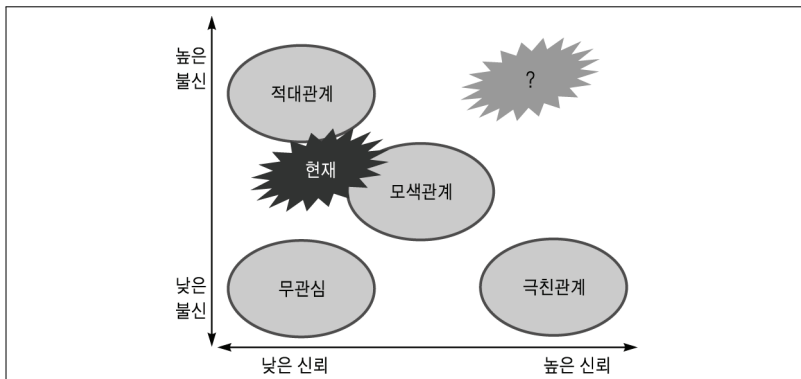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이 관점은 주로 긍정적인 신뢰관계, 또는 부정적 불신관계에만 초점을 둔 연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행동과 함께 불신 초래행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신이 없다는 것이 신뢰의 필요요건은 될 수 있어도 신뢰의 충분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관점을 동태적 통일모형에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뢰와 불신을 상호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보는 2차원적 인식 관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뢰와 불신이 부분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모색 단계를 연구할 수 있다.

● 그림 III-9 2차원적 신뢰-불신에서의 관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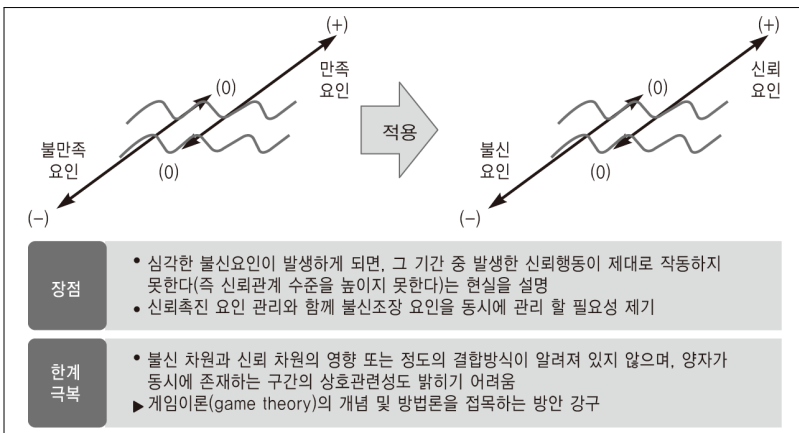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문제는 개념상 높은 신뢰-높은 불신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정해야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무의미해 완벽한 2차원 관점 또한 채택하기 어렵다.

신뢰-불신 관계의 차원을 보는 제3의 관점은 이를 이요인(two factor) 이론에 입각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허즈버그(Herzberg)는 인간의 동기부여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만족-불만족(위생) 이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만족(위생) 요인은 만족도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다른 만족요인의 영향을 배제시키는 영향을 지닌다. 즉 불만족(위생)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만족요인의 영향력이 제한됨에 비해, 불만족(위생) 요인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만족요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신뢰-불신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불신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뢰 요인의 영향력이 제한됨에 비해, 불신 요인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신뢰 요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Ⅲ-10 이요인 모형 관점에서의 신뢰-불신의 관계



출처: 저자 작성

이요인 모형 관점에서의 신뢰-불신관계는 심각한 불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뢰행동이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양자 영향력의 구체적인 결합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다만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신뢰-불신 행동의 기록이 남아 있고, 이것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도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링의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연구과제이다.

통일 원심력-구심력 모형에서 논의하는 신뢰-불신 행동은 상대방의 통일 원심력 또는 구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행동을 지칭한다. 통일과 관련된 신뢰-불신 행동은 군사적 행동, 정치적 행동, 사회경제적 행동 등으로 구분해 관찰이 가능하다. 다음의 표는 군사적 행동, 정치적 행동, 사회경제적 행동관점에서의 신뢰와 불신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일 원심력 또는 구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가능한 신뢰-불신 행동을 측정

● 표 III-1 관찰가능한 신뢰-불신 행동 측정

구분	신뢰행동	불신행동
군사적 차원	- 군비, 무기 감축 - 국제규약 차원 평화협정	- 군사적 충돌, 테러 등 - 군비, 무기 증대
정치적 차원	- 남북 간 대화 및 협약 - 국제사회 동반협력, 공동행동	- 상호약속의 무단 불이행 - 국제사회 공식 대결/반목
경제사회적 차원	- 새로운 경험 및 교류 확대 - 인도적 지원 - 사회문화적 교류	- 위협적인 체제비난 행동 - 일방적인 교류 중단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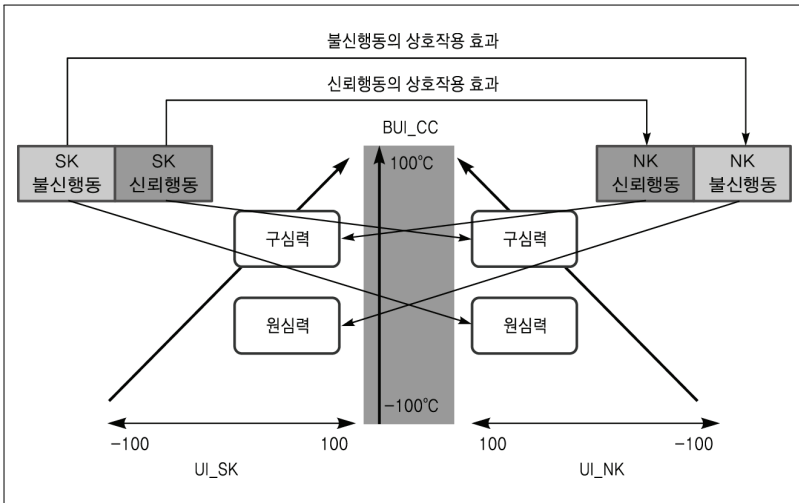
측정시점(t1)의 신뢰-불신 행동은 다음 평가시점(t2, t3, t3 등)의 통일 원심력-구심력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누적된 신뢰행동 또는 불신행동, 즉 불신이 없는 연속적인 신뢰행동 또는 신뢰가 없는 연속적인 불신행동의 영향력은 불연속 상태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신뢰-불신지수의 영향력 반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신뢰-불신 행동의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불신 행동의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례분석을 통한 영향도 평가(assessment)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영향력의 반영방식과 관련해 원심력 또는 구심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원심력(구심력) 구성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추후 시범적용 단계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뢰-불신 총합으로 영향력을 반영한다면, 원심력 또는 구심력 전반에 가감방식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력(구심력) 구성요인에의 개별적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영향 반영방식에 따라 뒤에 나올 동태적 영향 모델링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호 신뢰-불신 행동의 조합(Mix)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통일 원심력 또는 구심력에 미치는 신뢰-불신 행동의 영향력을 모델링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행위자가 등장함은 물론 특정 행위자의 신뢰-불신 행동이 상대방의 신뢰-불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K의 불신행동은 상대방인 SK 내부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NK의 신뢰행동은 상대편인 SK 내부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NK의 불신행동과 신뢰행동이 상대편의 내부 원심력이나 구심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론, 전략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상대편의 대응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NK의 국지적 무력도발이라는 불신행동은 전략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곧바로 SK의 대응 군사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SK의 대응 군사행동은 상대편인 NK 내부의 원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양국의 대결행동이 단기적으로 진정국면으로 진입한다면 이러한 영향은 1차례의 상호작용 영향으로 그치겠지만, 만약 대결행동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그 영향은 반복적인 상호작용 영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신뢰-불신 행동 Mix의 추가적 영향을 이미지로

●그림 III-11 상호 신뢰-불신 행동 Mix의 추가적 영향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설명한 것이 바로 <그림 III-11>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영향력 반영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특정 국가의 신뢰-불신행동은 상대편 국가의 구심력-원심력 각각을 강화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 국가의 신뢰-불신행동은 상대편 국가의 대응 신뢰-불신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다시 행위 개시 국가의 구심력-원심력 각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문제는 2번째 단계의 영향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상호작용의 패턴에 따라 가변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국가의 불신행동에 상대편 국가가 동일한 불신행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대응 또는 반대의 신뢰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2번째 단계의 영향은 2명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게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에서 영향 모델링은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첫째, 영향 모델링은 일종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작동해야 한다. 즉 남북 중 어느 한편의 특정한 행동이나 현상이 지수모형 내에서 ‘확정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대응 행동이나 현상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는 값’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호작용 함수를 내포한 지수모형으로 작동해야 한다. 둘째, 영향 모델링은 남북통일과 관련해 ‘현재의 상태 평가’와 ‘가까운 미래 예측’ 간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설명하는 기제로서 작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영향 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분석 방법론으로 현재 게임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있다. 추후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양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향후 연구 구상

구체적인 지수모형을 설계함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지수모형의 구조 및 측정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지수모형의 구조와 측정방법론의 선택은 연구기간은 물론 연구예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수모형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 등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 여건상 후속조치로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분한 사전연구 및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의 측정 및 예측 값을 산출하는 계획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지수모형의 구조 선택과 관련해 남북통일의 현재 단계를 평가해 볼 수 있으며, 향후 통일 가능성을 예측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대응지침 등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은 지수의 구조상 다항목 체계를 갖는 중층형 구조로 설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지표-지수 형식의 단층 구조를 지니는 지수모형도 존재하지만,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국가취약성지수(State Fragility Index)나 캐나다 국제개발처(CIDA)의 국가취약성지수(Index of State Fragility) 등과 같이 지표-지수-포괄지수 형식의 중층 구조를 지니는 지수모형이 다수 존재한다.

지수모형을 위한 측정방법론 선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수 개발, 자료조사 및 측정, 분석 및 결과해석 등의 지수운용 과정을 거치기에 앞서 지수 개발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제

I

II

III

IV

V

기된다. 여기에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은 본격적인 지표개발 및 자료수집에 앞서 모형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사 지수연구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방문조사가 필요하다. 지수모형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결과는 웹으로 공개되는 것이 많지만, 지수모형의 설계배경, 구체적인 측정항목이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수모형의 설계배경 및 어려움, 구체적인 측정항목이나 측정방법, 운영상의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수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 및 지수전문가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방식밖에 없다.

북한연구 및 남북한 관계 연구를 위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자료에 근거해 남북한 신뢰관계를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다양한 기존 자료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동태적 상호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시성을 지닌 새로운 자료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수 산출을 위한 원자료(Raw Data) 생성 필요성 또한 검토해야 한다. 지수산출을 위해 독자적인 원자료 구축없이 타 기관이 생성한 자료나 지수값을 이용하는 지수모형도 존재하지만, 본 남북한 신뢰지수의 경우에는 타기관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다. 또한 타 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 타 기관의 자료생성 기간을 반영해 년 단위 후행적 지수 산출이 불가피해 적시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작성해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 연구팀에서 독자적인 자료조사방

법을 통해 축적해야 할 원자료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수모형의 목적, 분석결과의 내용 및 수준, 결과 산출주기 등에 따라 자료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등이 상이하다. 1년 단위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일반 지수모형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및 타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국가 모니터링 차원의 연구들은 정량적 데이터나 지수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중시한다. 분기단위 또는 월단위로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조사 등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지수의 경우에는 독특한 분석프로그램(CAST)이나 방법론(Event Data Analysis)을 적용한 정량적 분석방식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연구 초기단계에 정성-정량 방법론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성방법과 정량방법을 결합해 남북한 신뢰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수집

표 Ⅲ-2 수집자료 성격별 장단점 비교

	주관적 자료원	객관적 자료원	제3의 자료원
예시	- 전문가 조사 - 탈북자 조사	- 통계 자료 - 이벤트 자료	- 내용분석
장점	- 높은 타당성 - 변경 용이성	- 객관성 - 시계열자료 활용	- 질적 원자료의 양화 방법
단점	- 낮은 신뢰성 - 응답자 전문성과 진실성에 의존	- 낮은 타당성 - 데이터의 질에 의존	- 정교한 정보시스템에 의존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될 수 있는 자료의 내용 및 형식에 따라 변동되며, 여기에 지수의 목적(평가 Vs. 예측), 산출주기(년간 Vs. 월간), 활용범위(등급 Vs. 분석보고)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수집자료별 대표적인 분석방법 및 장단점을 논의한 것이다. 정성적 분석방법은 전문가조사나 탈북자조사와 같은 주관적 자료원을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정량적 분석방법은 통계자료나 이벤트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질적 원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제3의 방법으로 대두하고 있다.

동태적 통일모형 연구를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되, 정성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관계 및 동북아정세 문제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포커스그룹으로 설정해 동일인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기실사지수 방법론을 원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탈북주민이나 북한 왕래인사 등 비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은 독특하고 정교한 분석방법론과 모델링(Modelling)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동시에 개발위험도 존재한다. 하위 지수 또는 영역별 지표에 적용될 수 있는 독특한 분석방법론과 Modelling을 1차년도에 탐색하고, 2-3차년도 연구를 통해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이론의 틀과 방법론의 적용(신뢰-불신행동 게임모형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상호작용의 결과 예측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또는 개별 국가 간 관계를 대상으로 한 단일대상형 지

수모형의 경우, 비교연구형 지수모형에 비해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일기준에 따른 과거 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중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단일대상형 지수모형의 한계점으로 인식되는 외적 타당성 및 내적 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하는 연구과제를 안고 있다.


단일대상 지수모형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수모형에 포함된 지표(indicator) 및 항목(item) 차원에서 관련분야 선행 연구결과의 적용 및 유사한 타국가와의 비교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신뢰성을 지닌 평가자료의 확보 및 자료처리 방법의 적용과 함께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 및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던 해외 전문가 그룹과의 국제적 연구협력 및 분야별 비교연구를 추진, 둘째,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등을 포함한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방법론 개발해 적용, 셋째, 자료의 체계적 축적정도에 따른 분야별 추세연구와 함께 측정자료 간의 상관성 분석 등의 시도 등이다.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전문연구집단 형성, 국제적으로는 공동워크숍이나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데이터 공유, 연구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자문, 연구 진행결과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외 부문과의 연구협력은 위탁연구 방식보다는 공동연구, 연구자문,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I
II
III
IV
V

을 두어야 한다.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학술용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합성을 갖는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시계 동태적 지수모형의 경우 양자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개선되는 시기에 보다 효과적인 신뢰구축 및 평화협력관계를 만드는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IV. 2015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1. 통일예측시계

2015년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합의형 통일시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3:48	4:59
2014년 대비 +0:01	2014년 대비 -0:07

출처: 저자 작성

5년간 수행될 제2기 통일예측시계 조사의 두 번째 연도인 2015년 조사는 2014년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시계 열 지수로 기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예측시계 12개 문항은 동일한 형태와 구성으로 유지하였으며, 통일요인 역시 미세한 자구 수정 외에는 36개 문항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델파이 패널은 2014년에 참여한 전문가 61명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은퇴 또는 안식년 등으로 인해 계속 참여가 어려운 4명이 빠지고 새롭게 3명이 추가되어 60명의 패널로 구성하였다. 추가된 전문가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기존의 스펙트럼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중 2015년 조사에 대해 52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응답자 52명 중 2014년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49명으로 94.2%가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지난 조사는 2014년 10월 델파이 패널에 대한 최종조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통일예측시계와

I
II
III
IV
V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1월에서 2015년 9월 초순까지의 변화에 대한 패널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2011년 및 2014년의 변화에 비해 급격한 시간변화가 없다.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48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4시 59분으로 기록되었다. 2014년에 합의형 통일시계의 3시 47분에 비해 불과 1분 차이이다. 이에 반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14년 5시 6분보다 오히려 7분 후퇴한 4시 59분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최초 조사된 2009년 5시 56분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후퇴 추세에 있으며,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5시 대가 무너졌다.

총 12개의 시계 중 5개의 시계가 12시(통일)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나, 대부분 10분 이내의 미세한 변화에 그쳤다. 시간이 늦춰진 시계는 7개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이며, 2014년 하반기 4시 12분에서 11분 후퇴하였다. 계량분석의 차원에서 10분 이하의 변화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6시 이후를 기록하던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14년보다 5분 후퇴한 6시 정각으로 기록되었다. 동 시계는 2009년 통일시계 조사 이래 유일하게 통일의 가능성과 관련 “미세한 긍정”의 답변을 얻었던 시계이다. 2015년 6시 정각이라는 기록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이며, 2011년 6시 35분을 정점으로 점차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시 정각은 12시 기준 시계의 정중앙 지점이다. 이 분야 시계가 6시 대를 버티지 못할 경우 모든 12개 통일시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표 IV-1 2009년~2015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통일전반		정치		경제	
		합의형	한국 주도형	합의형	한국 주도형	합의형	한국 주도형
2009년	시계 환산	4:19	5:56	3:53	5:44	4:57	6:26
2010년	시계 환산	3:45	5:20	2:45	4:25	4:42	6:22
2011년	시계 환산	3:31	5:30	2:40	4:38	4:48	6:35
2014년-상	시계 환산	3:17	5:06	2:27	4:06	4:34	6:10
2014년-하	시계 환산	3:47	5:06	2:56	4:12	4:58	6:05
2015년	평균	31.69	41.62	25.58	33.60	41.62	50.13
	표준편차	16.549	16.609	17.709	17.731	17.988	18.293
	시계 환산	3:48	4:59	3:04	4:01	4:59	6:00
	시간 변화	+0:01	-0:07	+0:08	-0:11	+0:01	-0:05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형	한국 주도형	합의형	한국 주도형	합의형	한국 주도형
2009년	시계 환산	4:26	5:38	2:51	4:53	4:27	5:40
2010년	시계 환산	4:01	5:26	2:14	4:01	3:44	4:29
2011년	시계 환산	4:07	5:35	2:11	3:46	3:35	4:53
2014년-상	시계 환산	4:47	5:15	2:07	3:41	3:29	4:49
2014년-하	시계 환산	4:09	5:23	2:27	3:35	3:53	4:51
2015년	평균	36.10	45.69	19.48	29.54	31.81	39.56
	표준편차	19.078	18.379	16.827	17.864	19.402	19.996
	시계 환산	4:19	5:28	2:20	3:32	3:49	4:44
	시간 변화	+0:10	+0:05	-0:07	-0:03	-0:04	-0:07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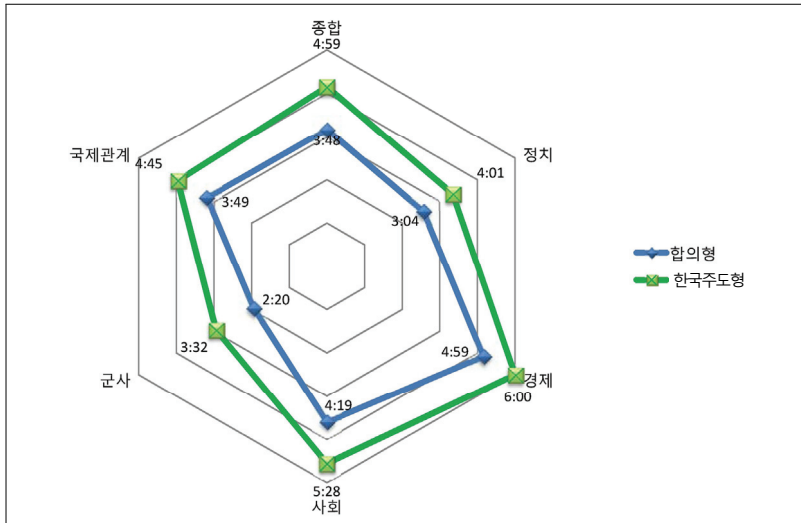
다년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12개 통일시계의 상대적 시간차는 2015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선 합의형 6개 시계는 해당분야

I
II
III
IV
V

한국주도형 시계에 비해 통일과 더 멀어지는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패널은 평균적으로 한국주도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더 가까우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5개 하위분야 중 정치 및 군사분야가 가장 통일에 먼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사회분야가 통일에 가깝다. 국제관계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통일시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에도 두 시계의 격차는 1분으로 거의 동일하다. 반면 국제관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전반적인(종합)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비해 통일에 먼 경향이 있는데, 2015년의 경우 통일전반보다 15분 느리게 움직였다. 이는 국제관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환경이 전반적인 통일환경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통일예측시계의 조사과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6개 분야 중 사회분야를 제외한 5개가 후퇴추세에 있으며,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통일전반,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미세하게 진전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2015년 통일시계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한국주도형 통일환경이 후퇴하고 합의형 통일환경이 “정체 속에서” 미세하게나마 진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할 사실은 여전히 12개 통일시계가 중간점인 6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및 군사분야의 시계는 여전히 통일과는 역행하는, 즉 멀리 떨어진 수준이라는 것이다.

● 그림 IV-1 2015년 통일예측시계



출처: 저자 작성

가. 합의형 통일시계

합의형 통일시계는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고 그 결과 점진적인 통일이 이뤄지는 상황을 전제한다. 통일 예측시계가 개발된 이래 6개 합의형 통일시계는 그러한 통일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3시 48분을 기준으로 경제와 사회분야는 4시 대, 정치와 군사분야는 각각 3시와 2시 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합의형 통일시계의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는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와 일부 공유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남북대화의 활성화나 고위급 접촉과 그에 따른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합의

I
II
III
IV
V

형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이에 반해 빈번한 상호비방과 비난, 대화의 결여 등은 이 분야 통일의 시침과 분침을 뒤로 돌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합의형 통일시계를 뒤로 돌리는 매우 강한 인자이다. 반면, 경제·사회분야는 합의형 통일시계를 견인하는 가장 큰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형 통일이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남북경협 활성화와 민간교류의 증대라는 비정치적 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의 경우 어떤 요인이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호감이 증가할수록 두 가지 유형의 통일에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이들 두 국가의 상호관계가 합의형 통일과 정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합의형 통일시계의 6개 분야가 전반적으로 2014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우 미세하게 12시(통일)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계의 전진 폭은 10분 이내로 여전히 동 유형의 통일이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2014년 합의형 통일시계의 전반적 하락은 남북관계의 정체 현상과 300mm 신형 방사포, 로동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2015년에도 반복되었다. 특히 2015년 5월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화(5월 20일 북한 국방위)를 주장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였다. 특히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군 장병이 부상당하자 남한당국은 8월 10일 11년 만에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8월 22일-24일간 판문점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와 접촉하였다. 회담 결과 북한은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5·24 조치는 2015년에도 지속되었으나 민간 차원의 인적 왕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하였으나 2015년 7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UN 인권사무소 개설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9월 7일 남북 적십자는 10월 20일-2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경제분야는 개성공단이 현재 거의 유일한 남북 인적·물적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2013년 5개월간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은 재개 이후 신속하게 정상가동되었으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액은 2014년 23억 4,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자의적인 규정과 임금책정,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형 통일은 한국주도형에 비해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2013년 이후 주목할 만한 국제관계는 한중관계의 긴밀화와 북중관계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관계는 냉각국면을 지속하였다. 중국의 대 한반도 관계의 단면은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룡해 비서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에 반해 북러관계는 2014년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 빈번한 고위급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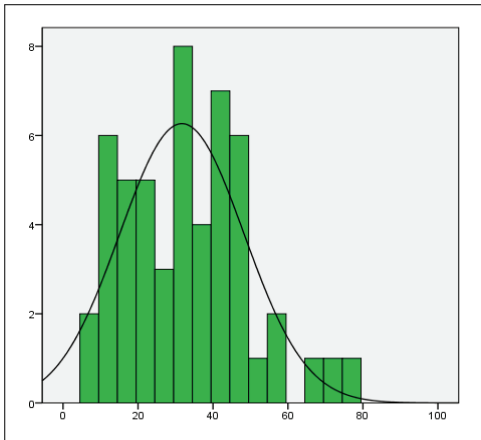
I
II
III
IV
V

속히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주변 4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개최되고 있지 않으나, 북한을 제외한 회담참여국 간의 회담은 지속되었다.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4:19	3:45	3:31	3:17	3:47	3:48
	-0:34	-0:14	-0:14	+0:30	+0:01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1.69
중위수		30.00
최빈값		30
표준편차		16.549
왜도		.530
첨도		.010
최소값		7
최대값		75



2009년 4시 19분으로 기록된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이후 3시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일 환경이 합의형 통일에 대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패널의 평

가를 반영한다. 특히 2014년 상반기의 통일시계가 3시 17분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후계가 진행된 시기인 2011년 말부터 2013년까지의 상황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하고 2013년 2월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결의되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3년 4월~9월에는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3년이 역대 가장 낮은 시간대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2014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선언과 소위 ‘통일대박론’에 대한 비난 공세를 전개하면서 3월 이후 4차 핵실험 가능이라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47분으로 30분 앞당겨 졌으나, 그 절대적인 시간은 여전히 이 유형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2015년 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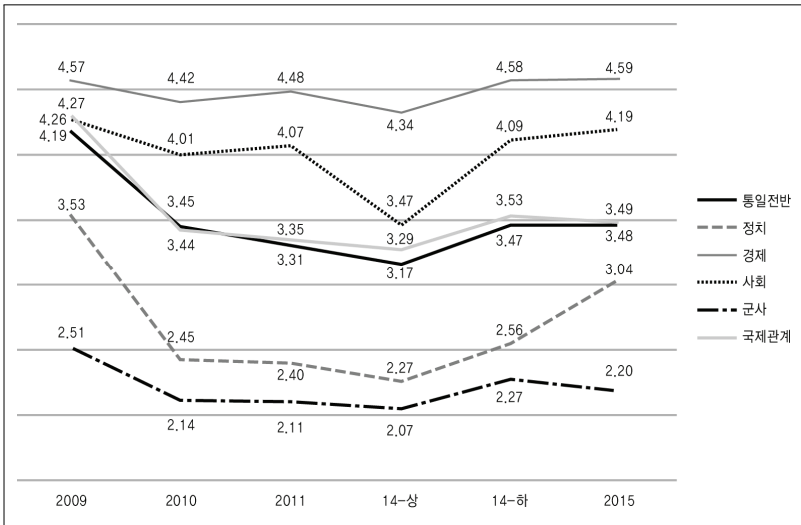
2015년 9월 조사된 합의형 통일시계는 100점 척도에서 평균은 31.69(표준편차 16.549), 중위수는 30이다. 평균을 12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시 48분이다. 최빈값은 30점과 40점이며 각각 6명(11.5%)씩 응답하였다. 응답범위는 7점에서 75점 사이인데 50점 미만에 47명(90.4%)이 집중되어 있으며, 양의 왜도이므로 동 시계에 대한 응답 분포는 장기적으로 낮은 점수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응답이산성과 관련, 2015년 조사는 매우 흥미로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과거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조사경험에 따르면, 일부 패널

I
II
III
IV
V

의 경우 특정 시계에 대한 당위성과 호불호에 따라 극단치를 제시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의 경우 그러한 극단치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며, 응답범위는 68점에 불과하다. 동일 시계에 대해 2011년 응답범위가 1점에서 80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이는 2014년 수행한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패널들이 중심집중도를 일정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림 IV-2 2009년~2015년 합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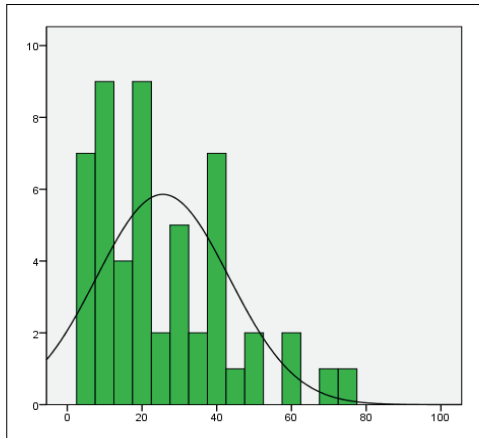
5개 하위분야의 변화는 분야에 따라 독특한 변화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우선 통일 또는 남북관계 관련 가장 낮은 점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의 조사가 누락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009년 수준에서 하락하다 2014년 하반기에 회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이며, 특히 경제는 4시대 후반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어 다른 분야의 등락과 대조되고 있다. 국제관계의 경우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통일시계와 시간이 거의 겹칠 정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는 2014년 상반기 최하점을 지난 이후 미세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시대 후반에서 3시대 초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분야 합의형 시계가 도표상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3:53	2:45	2:40	2:27	2:56	3:04
	-0:08	-0:05	-0:13	+0:29	+0:08

N	유효	52
	결측	0
평균		25.58
중위수		20.00
최빈값		20
표준편차		17.709
왜도		.933
첨도		.352
최소값		5
최대값		75









- I
- II
- III
- IV
- V

정치분야와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통일에 먼 시간으로 측정되는 분야이다. 정치분야는 2009년 3시 53분을 기록한 이래 2010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후퇴한 2시 후반대에서 3시 초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는 2시간 27분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에 29분 상승하여 2시 56분까지 올라왔으며, 2015년에는 3시 4분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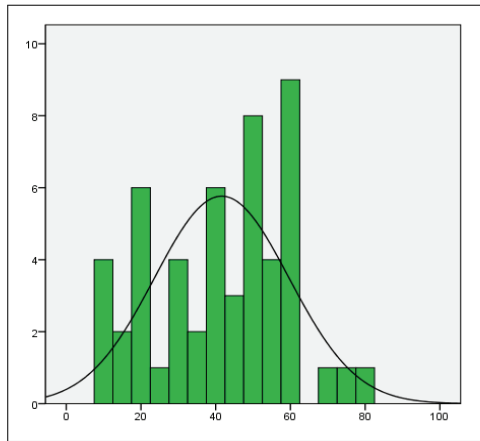
패널의 응답범위는 5점에서 75점이며, 이 또한 과거 조사에서 극단값인 1점과 80점 이상에 점수를 분배하던 패널이 상당부분 평균값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듯이 패널은 20점을 기준으로 낮은 점수대에 집중되어 있다. 50점 이하에 응답한 패널은 47명(90.4%)이며, 9명(17.3%)이 20점에 응답하여 최빈값을 기록하였다.

대체로 6개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대응하는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보다 표준편차가 낮고 첨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만큼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응답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015년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첨도는 .650인데, 같은 시계 한국주도형의 경우 -.164이다. 이렇게 높은 응답집중도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패널이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의 값을 가진 왜도 역시 동 시계가 급격하게 통일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2015년 조사에서 6개 합의형 통일시계의 왜도는 경제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다.

○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4:57	4:42	4:48	4:34	4:58	4:59
	-0:15	+0:06	-0:14	+0:24	+0:01

N	유효	52
	결측	0
평균		41.62
중위수		45.00
최빈값		50
표준편차		17.988
왜도		-.184
첨도		-.869
최소값		10
최대값		78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 통일시계 중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간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적은 변화를 보여온 시계이기도 하다. 2009년 4시 57분으로 최초 측정된 이래 2014년 상반기 4시 34분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동년 하반기 회복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 동 시계는 4시 59분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4시 후반 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0년 5·24조치 이후 동 시계가 15분 뒤로 후퇴한 것을 감안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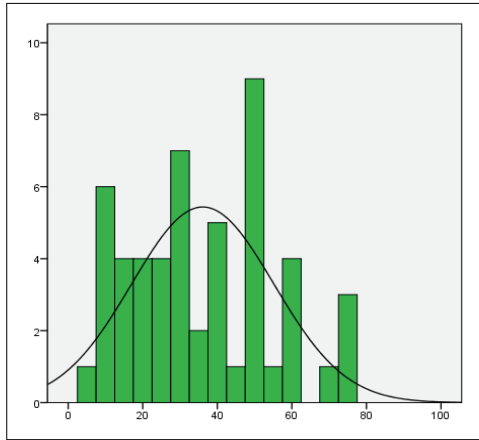
하면,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핵위협이 심해진 가운데 남한 정부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된 160일간의 개성공단 잠정폐쇄가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를 상당부분 뒤로 후퇴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남북경협이 유일한 통로는 개성공단이므로 동시계는 개성공단의 발전과 타 영역으로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평균은 41.62(표준편차 17.988)이며, 중위수는 45점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50점과 60점으로 각각 8명(15.4%)이 응답하였다. 응답범위는 10점에서 78점이며, 중위수 45점을 중심으로 비교적 좌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경제분야 합의형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포는 다른 합의형 시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합의형 시계의 공통적 특징이 양의 왜도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시계에 대한 낮은 점수의 응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 유형에서 유일하게 경제분야의 경우는 -1.84 의 음의 왜도가 나타났다.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응답분포는 향후 경제분야 합의형 시계의 변화가 좀 더 통일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4:26	4:01	4:07	3:47	4:09	4:19
	-0:25	+0:06	-0:20	+0:22	+0:10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6.10
중위수		32.50
최빈값		50
표준편차		19.078
왜도		.333
첨도		-.769
최소값		5
최대값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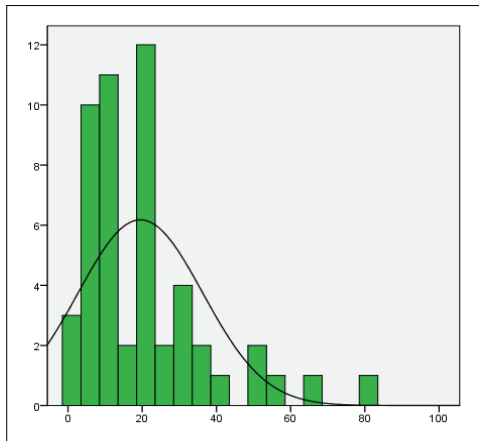
2009년 4시 26분으로 조사되었던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이후 4시 초를 유지하다 2014년 상반기에 3시 47분으로 급격히 후퇴하였다. 사회분야는 그간 합의형 시계 중 경제분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경제분야보다 40~50분 늦은 시간으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2014년 상반기의 급격한 후퇴는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조사가 누락되어 보다 정확한 추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분야의 높은 변동성은 동 분야가 남북한 인적 교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적 교류가 비교적 전반적 환경 중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즉, 경제분야보다는 사회분야가, 정치분야보다는 군사분야가 통일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쉽게 변화시키는 변수이다.

I
II
III
IV
V

○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2:51	2:14	2:11	2:07	2:27	2:20
	-0:37	-0:03	-0:04	+0:20	-0:07

N	유효	61
	결측	0
평균		20.52
중위수		15.00
최빈값		10
표준편차		16.292
왜도		1.523
첨도		2.739
최소값		0
최대값		80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 2시 51분을 기록한 이래 다소 후퇴하였으나 지속적으로 2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동 시계는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낮은 시간이며, 조사 이래 패널 간 응답일치도가 가장 높은 시계에 해당한다. 2시대의 통일시계는 현재 군사분야 합의형이 통일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일과 상반되는 방향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4년 상반기 동 시계는 2시 7분으로 조사 이래 전 통일시계 중 역대 최저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다소 회복되었다. 2015년은 전년 대비 7분이 다

시 후퇴된 2시 20분을 기록하였다.

2015년 기록된 2시 20분은 통일예측시계가 비교적 정확한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은 군사적으로 가장 낮은 시간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동 사건은 일단락된 바 있다. 사건의 종료 직후 시행된 델파이 조사는 동 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대비 7분 후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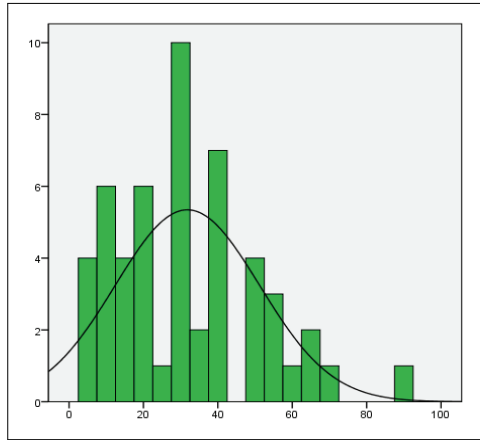
2015년 군사부문 합의형 통일시계의 평균은 19.52(표준편차 16.783)이며 중위수는 17.5점이다. 최빈값은 20점이며 12명(23.1%)이 응답하였고, 5점과 10점에 각각 10명이 응답하였다. 낮은 점수대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음은 12개 시계 중 가장 높은 왜도(1.637)와 가장 높은 첨도(2.980)로도 알 수 있다. 49명(94.2%)은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4:27	3:44	3:35	3:29	3:53	3:49
	+0:17	-0:09	-0:06	+0:24	-0:04

- I
- II
- III
- IV**
- V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1.81
중위수		30.00
최빈값		30
표준편차		19.402
왜도		.714
첨도		.288
최소값		5
최대값		90



2009년 조사 이후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통일시계와 거의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한 변화패턴을 보여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회의 조사에서 두 시계 간 시간차는 각각 8분, 1분, 4분, 12분, 6분, 1분이다.³⁴⁾ 현 시점에서 국제관계분야와 전반적인 합의형 시계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한 이유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이는 패널이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가장 큰 변수로 국제관계분야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관계분야의 통일시간이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합의형 통일을 초래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 또는 우연히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가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시계와 일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두 개의 시계가 동일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향후 국제

34) 2015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와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상관관계는 .880($p < .01$)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동일 유형의 통일시계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8 이상) 국제관계가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계의 증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내의 합의형 통일환경이 변화하여 두 시계 간 격차가 벌어질 경우 시간일치가 우연인지 아닌지에 대한 더 정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국제관계분야의 합의형 시계도 2014년 상반기에 최저점인 3시 29분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 3시 53분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2015년 동 시계는 다시 뒤로 4분 후퇴하여 3시 49분을 기록하였다. 국제분야의 응답이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준편차는 19.402이며 응답범위는 5점에서 90점이다. 응답은 최빈값 30점(10명, 59.6%)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남한정부체제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2010년 통일예측시계 사후분석 과정에서 한국주도형 통일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내부의 권력갈등이 증가하고,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우호적일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정치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한다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뒤로 후퇴할 것이다.

2012년 김정은의 공식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3차 핵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독특한 인사스타일로 집권 초기 권력공고화를 이루려 하였다. 당과 군의 고위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전면 재배치되거나 숙청되었으며, 특유의 군부 길들이기를 통해 충성을 유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과의 관계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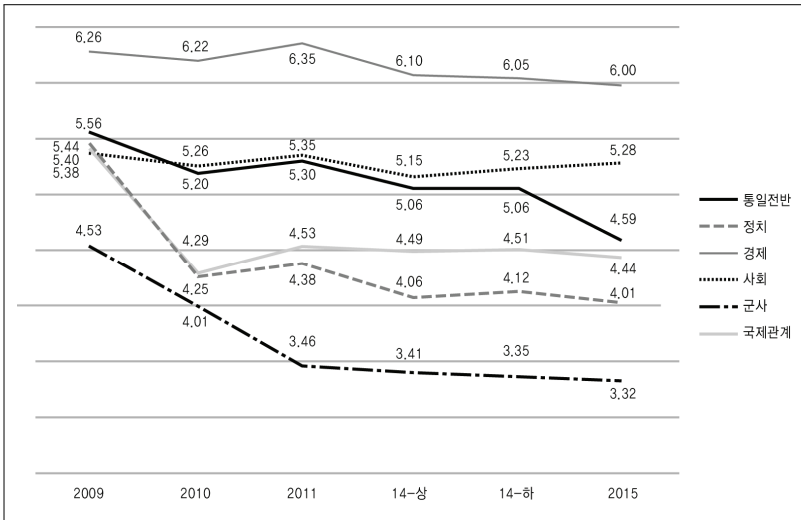
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나, 그 빈자리는 2013년 이후 채무탕감과 철도연결로 상징되는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으로 대체되었다. 2015년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는 장기적인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계승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제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원인은 북한 내 경제 위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평양과 관광지에 대규모 위락 시설을 건설하고 평양 1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핸드폰을 허용하는 등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재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분야의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이다. 특히 동 조치는 가족단위 영농제를 도입하고 자율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GDP 2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분야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는 비공식경제의 확대와 위안화(yuanization), 제조업의 회복불능으로 불안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나, 단기적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의 경제안정화의 목표는 미세한 GDP 성장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최초 조사에서 5시 56분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4시 59분으로 무려 한 시간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다. 합의형 통일시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분야는 유사한 상대적 크기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제관계분야, 정치분야, 군사분야의 순이다.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전체 12개 시계 중 유일하게 6시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경제에 의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다른 통일분야에 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2015년 조사의 경우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 지점을 6시 정각이라는 시간으로 겨우 유지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통일시간 역시 5시 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비교 과정에서 종합적인 통일시계와 국제관계분야 통일시계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전반적인(종합)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사회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15년 조사에서 두 시계의 격차는 크게 증가하였다.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53분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1시간 20여분 후퇴한 3시 32분으로 기록되었다. 군사분야의 급속한 하락은 델파이 패널이 북한의 상대적인 대칭·비대칭 군사력의 증진에 대해 남한의 대비태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그림 IV-3 2009년~2015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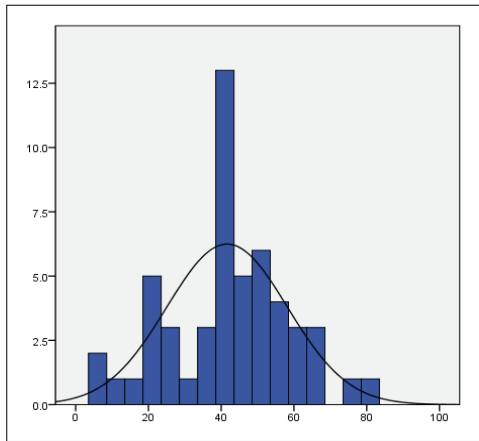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 전반적인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5:56	5:20	5:30	5:06	5:06	4:59
	-0:36	+0:10	-0:24	0:00	-0:07

N	유효	52
	결측	0
평균		41.62
중위수		40.00
최빈값		40
표준편차		16.609
왜도		-.134
첨도		-.177
최소값		6
최대값		80









텔레파이 패널은 2015년 현재 전반적인 통일환경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한국주도형 통일이 더욱 불리하다고 평가하였다. 최초 조사시기인 2009년과 비교할 때,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5년 31분 후퇴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5시 56분에서 4시 59분으로 57분 후퇴하였다. 한국주도형 통일의 하락경향은 2015년 더욱 가속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정권승계와 경제위기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합의형 통일시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상대적으로 합의형에 비해 넓은 응답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응답이산성도 큰 편이다. 전반적인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응답범위는 6점에서 80점 사이에 있으며, 중위수 40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최빈값 역시 40점이며 12명(23.1%)이 응답하였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4시 59분은 평균 41.62(표준편차 16.609)에서 환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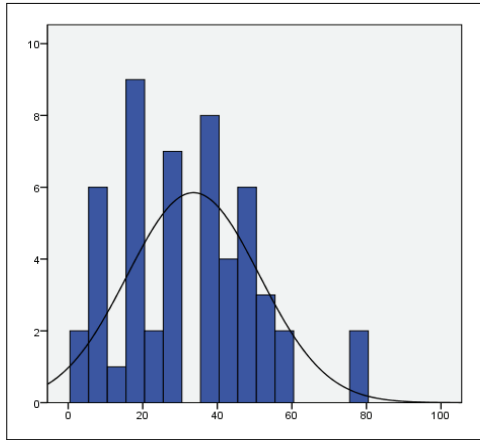
전반적인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이래로 약 1시간 35분에서 2시간 가량의 시간차를 나타내왔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의 경우 두 시계 간 시간차는 1시간 19분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시간 11분으로 재차 후퇴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국주도형 통일의 제반 여건이 2015년 현재 더욱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5:44	4:25	4:38	4:06	4:12	4:01
	-1:19	+0:13	-0:32	+0:06	-0:11

- I
- II
- III
- IV**
- V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3.60
중위수		30.00
최빈값		20
표준편차		17.731
왜도		.377
첨도		-.164
최소값		3
최대값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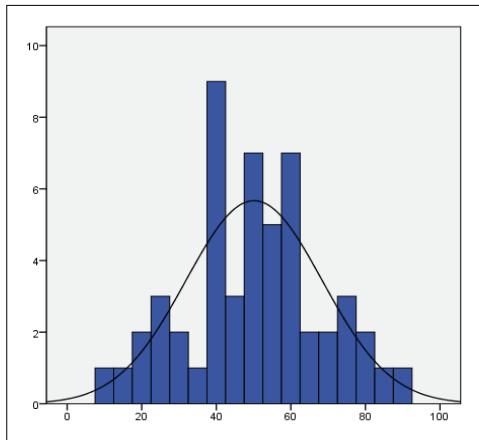
통일예측시계 중 가장 큰 진폭을 보인 시계는 정치분야와 군사 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5시 44분으로 측정된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11년 미세하게 반전되는 듯 했으나 2015년 4시 1분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009년과의 시간차는 1시간 44분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큰 등락폭을 기록하였다. 동 시계의 급격한 등락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 등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4시 1분이라는 급격한 하락은 김정은 집권 이후 후계자 계승과 체제안정이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패널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평균은 33.60(표준편차 17.731)이며, 중위수는 30점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20점이며 9명(17.3%)이 집중되어 있다. 45명(86.5%)이 5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6:26	6:22	6:35	6:10	6:05	6:00
	-0:04	+0:13	-0:25	-0:05	-0:05

N	유효	52
	결측	0
평균		50.13
중위수		50.00
최빈값		40
표준편차		18.293
왜도		-0.017
첨도		-0.297
최소값		10
최대값		90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대를 넘겨왔다. 즉, 12개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통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시계이다. 동 시계는 2011년 6시 35분으로 정점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2015년에는 6시 정각에 머물렀다. 중위수는 50점이며 평균은 50.13(표준편차 18.293)이다.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시계에 8명(15.4%)이 40점으로 평가했으며, 60점에 7명(13.5%), 50점에 6명(11.5%)이 응답하였다. 응답범위는 10점에서 90점이다. 즉, 중위수 50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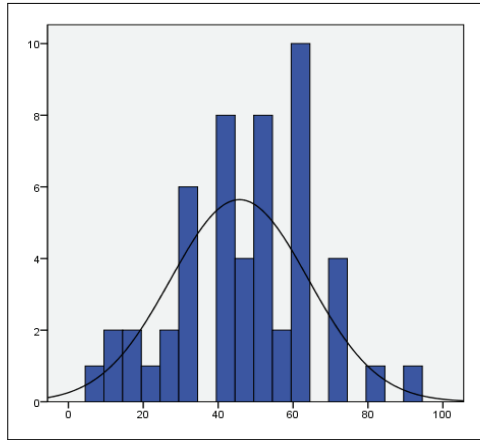
분포되어 있으나 40점과 60점을 정점으로 하는 미세한 쌍봉형 분포(bimodal distribution)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빈값 50점을 중심으로 50점 미만에 22명, 50점 초과에 24명이 분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델파이 기법의 강점은 전문가 패널의 집단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자 간 평가는 객관적인 북한관련 현상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합의정보다는 한국주도형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정치·군사부문보다는 경제·사회부문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2014년 상반기에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의 극단치가 일부 소거되기는 하였으나 패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나타나는 쌍봉형 분포를 완전히 소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일시계의 추가적인 조사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5:38	5:26	5:35	5:15	5:23	5:28
	-0:12	+0:09	-0:20	+0:08	+0:05







N	유효	52
	결측	0
평균		45.69
중위수		49.00
최빈값		60
표준편차		18.379
왜도		-.143
첨도		-.147
최소값		7
최대값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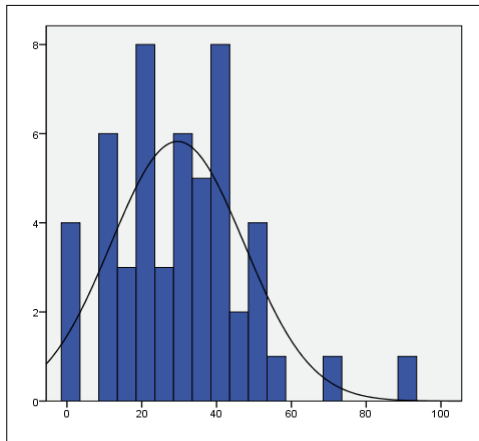
사회분야는 경제분야 다음으로 통일에 가까운 분야로 평가되어 왔으며, 2015년 조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분야는 2009년 5시 38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까지 급격한 등락 없이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다만 북한 내에서 목격되는 남한 상품 및 남한 문화의 확산 등이 사회분야 시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지할 사실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서 사회분야가 상대적으로 통일에 가까운 시간대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간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시계의 간극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56분과 1시간이었으며, 2015년은 32분이다. 이 역시 앞으로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그 간극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4:53	4:01	3:46	3:41	3:35	3:32
	-0:52	-0:15	-0:05	-0:06	-0:03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9.58
중위수		30.00
최빈값		20
표준편차		17.800
왜도		.798
첨도		1.505
최소값		1
최대값		90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53분에서 급격한 하락추세를 이어오다 2009년에는 1시간 21분 후퇴한 3시 32분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주도형 군사분야의 하락추세는 2010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년 3월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연평도에 대규모 해안포 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뚜렷한 감소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군사도발은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급격한 하락을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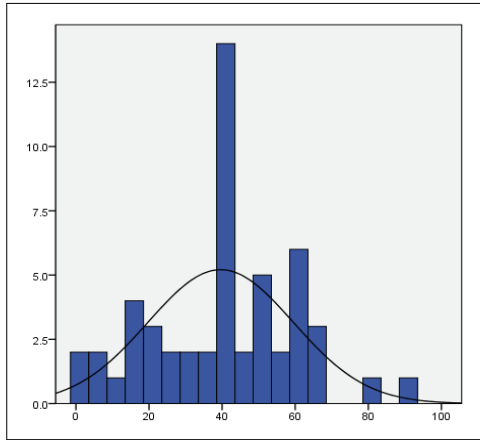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해 패널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중 가장 높은 응답일치도를 보였다. 패널의 응답 평균은 39.58(표준편차 17.800)이며, 중위수는 30점이다. 최빈값은 20점과 40점이며 각각 8명(15.4%)이 응답하였다. 전체 패널 중 48명(92.3%)이 50점 이하로 응답하였다. 히스토그램 상 군사분야 한국주도형의 분포는 전형적인 쌍봉형 분포이다. 그러나 모두 낮은 점수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50점 이상으로 응답한 4명의 패널로 인해 양의 왜도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첨도값 1.505는 6개 합의형 통일시계 중 월등하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국제관계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상	2014년-하	2015년
					
5:40	4:29	4:53	4:49	4:51	4:44
	-1:11	+0:24	-0:04	+0:02	-0:07

- I
- II
- III
- IV**
- V

N	유효	52
	결측	0
평균		39.60
중위수		40.00
최빈값		40
표준편차		19.919
왜도		-.026
첨도		-.125
최소값		1
최대값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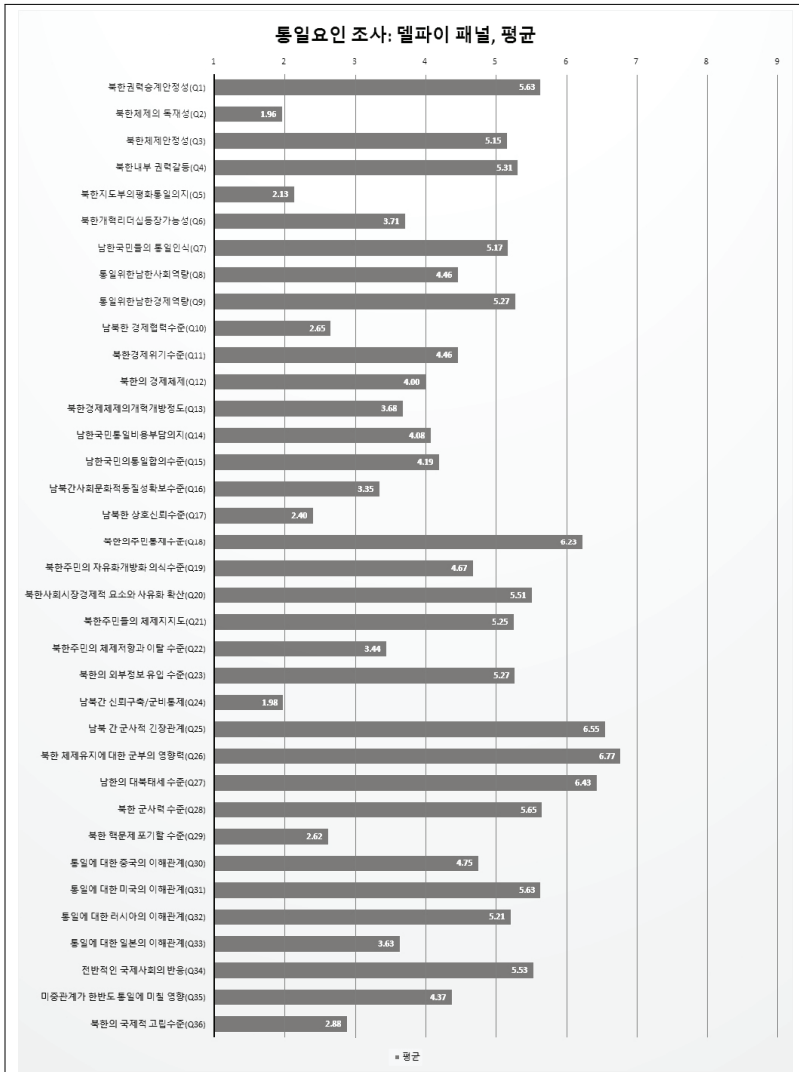


국제관계 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40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시간은 4시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4시 44분으로 평가되었다. 합의형 통일시계에서 국제관계분야는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시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국제관계는 전반적인 통일시계에 비해 15분~17분 늦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그 간극이 각각 51분과 37분 늦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주도형 통일 환경에 부정적인 현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국제관계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군사분야와 동일한 1점에서 90점까지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다만 군사분야와 달리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패널의 이 분야에 대한 합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히스토그램에서도 나타나며, 군사부문의 1.505에 비해 크게 낮은 -.125의 첨도값과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0점이다. 12명(23.1%)이 40점이라고 응답하였다.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그림 IV-4 통일요인 조사: 델파이 패널, 평균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2009년 제1기 통일예측시계 구축과정에서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의 결정요인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500여 개의 통일요인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통일요인이 제시된 이유는 12개 통일시계를 결정하게 될 변수군을 개방형 설문 형식으로 취합하였기 때문이다. 이 요인은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의 구분 없이 다시 재분류와 통합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조사과정에서 33개의 통일요인은 기본적인 구성을 유지한 채 중의적 문항을 재조정하여 현재 36개 통일요인으로 확정되었다. 36개 통일요인은 여전히 중의적 문항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요인 침삭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일 추가적으로 문항을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답피로도의 증가를 감안하여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조사에서는 36개의 기존 설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수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설문문항은 피조사 집단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임을 고려하여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였다. 당초 리커트 척도는 10점으로 제시하였으나, 2010년 이후 9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9점 척도는 작은 사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량척도 분석기법이 적용가능한 수준의 척도이며, 중간점이 정수인 5점으로 점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일요인 설문은 앞서 연구방법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통일요인이 변화의 도상에 있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지배적인 문항의 경우 빈번하게 쌍봉형 또는 다봉형 분포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당 요인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 불일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봉형 분포가 분명할 경우 중심집중도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분포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쌍봉형 분포는 조사시기에 따라 분포의 형태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보다 면밀한 해석을 요한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문항의 경우 패널 간 의견일치 수준이 매우 높은 문항도 있다. 예로 들면, 남북의 군사적 신뢰(문24)의 경우 거의 모든 패널이 최하수준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굳이 설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동 문항 역시 개방형 설문에서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통일요인으로 수렴된 문항이며, 장기적인 지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변화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가. 북한 정치분야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1. 권력승계의 안정성	5.80	5.69	5.52	5.36	5.63
문2. 북한 체제의 독재성	1.77	1.69	1.90	1.90	1.96
문3. 김정은 체제 안정성	4.43	4.90	4.41	4.79	5.15
문4. 북한 내부 권력갈등	5.41	5.69	4.95	5.16	5.31
문5.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	2.29	2.44	2.12	2.25	2.13
문6.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	4.29	3.83	3.73	3.89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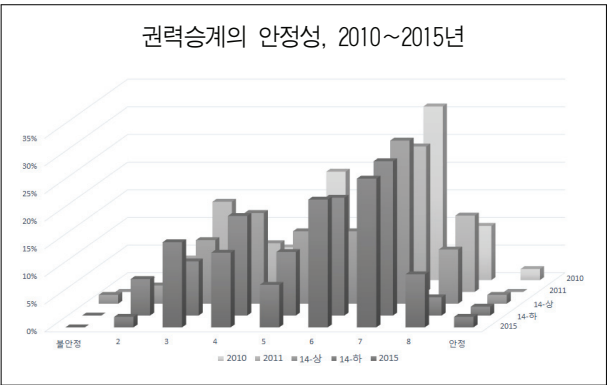
북한 정치분야 중 합의형 통일과 관련 있는 문항은 북한체제의 안정성(문3),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문5), 북한의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문6)이며, 한국주도형 통일의 경우 북한 체제의 독재성(문2),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문4)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

I
II
III
IV
V

계를 갖고 있다.³⁵⁾ 또한 권력승계의 안정성(문1)은 북한 체제안정(문3)과 내부의 권력갈등(문4)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체제안정이 증가하고 권력갈등은 낮아졌다.³⁶⁾ 북한의 체제안정성(문3)은 개혁리더십의 등장가능성(문6)과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문5)와 북한 체제의 독재성(문2)은 매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에 집중되어 있다.

문1. 현재 김정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63
중위수	6.00
최빈값	7
표준편차	1.749
왜도	-.325
첨도	-.961
최소값	2
최대값	9



35) 합의형 및 한국주도형을 종속변수로 놓은 뒤 북한 정치분야 6개 문항을 후진($F \leq 1$)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두 가지 유형의 통일시계에 대한 기여를 간략히 확인하기 위해 회귀계수만을 확인하였다. 정치분야 6개 문항의 기여도는 .2 수준이며($p > .01$) 관계심도는 높지 않다.

36) 문1의 문3과 문4의 상관관계는 각각 .633, .480이며, 유의수준은 .001이다. 통상 필답형 설문조사의 경우 좌에서 우의 방향이 낮음-높음, 나쁨-좋은 순서로 배열된다. 그러나 권력갈등(문4)은 응답자 신뢰성 확인을 위해 문항의 방향이 반대이다. 즉, 권력갈등(문4) 점수가 높으면 갈등이 적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문항이므로 의도적으로 몇 개 문항의 방향은 통상의 반대방향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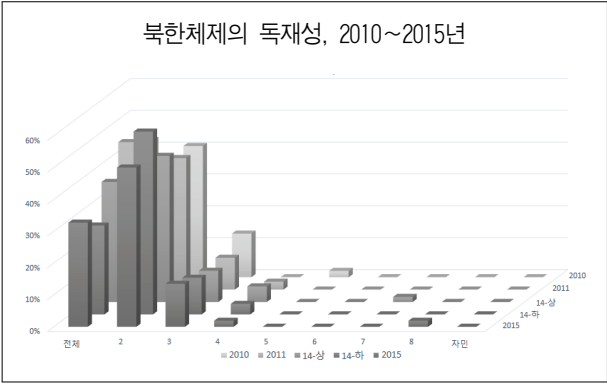
2009년 후계자로 지명된 뒤 3년이 채 못되는 승계시기를 거쳐 집권한 김정은에 대해 다수의 여론이 집단지도체제를 언급하거나 불안정한 승계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전에 이미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여왔다.

김정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불안정’(1점)에서 ‘안정’(9점)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동 문항은 김정일 사망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2011년 델파이 조사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이라는 문항으로 설문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델파이 패널은 약 60%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6점 이상)라고 응답한 바 있다. 2년의 공백 이후 시행된 2014년 조사에서 김정은 권력승계는 현저한 변화 없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2015년의 경우 미세하게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다만 본 문항은 앞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조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5점을 중심으로 좌우 분포가 분리되는 유사쌍봉형(quasi-bimodal) 분포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평균값과 함께 분포의 변화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평균 5.80에서 5.36으로 미세하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 다시 5.63으로 반등하였다. 2015년 패널은 61.5%(32명)가 ‘안정적’(6점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4점 이하는 16명(30.8%)이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7점이며 14명(26.9%)에 해당한다. 응답범위는 2점에서 9점으로 매우 넓으며, 낮은 척도(-.961) 역시 높은 응답이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패널의 동 문항에 대한 평가는 조사 기간 이내에 한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다. 즉, 패널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1.96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1.120
왜도	3.217
첨도	16.043
최소값	1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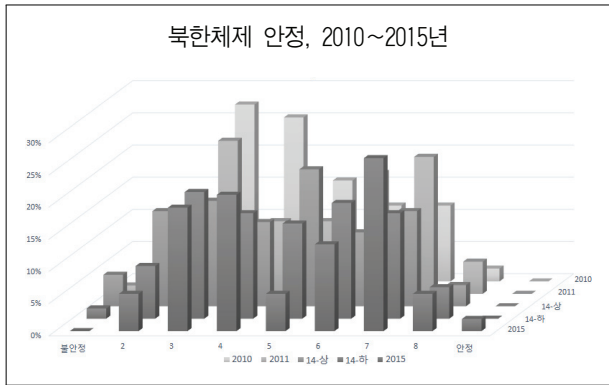


본 문항은 36개 통일요인 중 가장 응답집중도가 높으며,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 패널 96.2%가 1~3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 1.96이라는 매우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문항은 단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 통일시계 설계 당시부터 합의형 통일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합의형 통일시계와의 상관관계는 -0.230 (유의수준 $.052$)로 나타났다. 이는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통상 합의형 통일의 경우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개혁을 이룩한 뒤 남북이 비정치적 통합을 이룩하고 궁극적인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만일 독재체제가 유지될수록 합의형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러한 합의형 통일의 대전제가 경험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관관계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합의형

통일시계와 북한체제의 독재성이라는 두 변수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충분한 변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문2의 경우 실질적으로 변수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상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일정한 변화가 전개된 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3. 현재의 북한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15
중위수	5.00
최빈값	7
표준편차	1.893
왜도	.022
첨도	-1.273
최소값	2
최대값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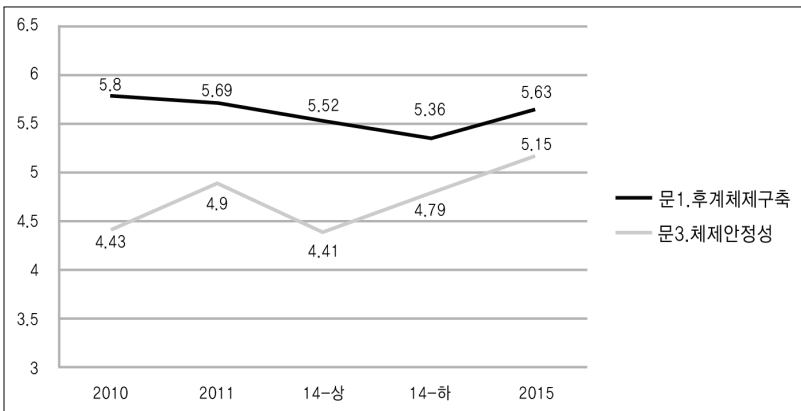
본 문항은 전형적인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2010년부터의 분포변화를 보면 2010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쌍봉형 분포에서 점차 부정과 긍정이 비슷한 형태의 쌍봉형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포의 변화만을 볼 경우, 조사기간 내 북한의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문1)과 매우 높은 상관

- I
- II
- III
- IV
- V

관계(.628)를 보인 문항이다. 다만 <문1>의 경우 2010년 이후 시행된 모든 조사에서 평균 5점대를 유지한 반면, 현 문항의 경우 2010년 4.43 이후 4점대 평균이 지속되었다. 즉, 2010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꽤 넓은 북한의 체제안정성에 대해 미세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조사에서 4점대에 머물던 평균이 5점대로 진입하였으며, 체제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미세하게 강세를 띄고 있다. <문1>과 <문3>의 시간차는 조사기간 동안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계체제 구축의 공고화가 체제안정성을 견인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 **그림 IV-5** 후계체제 구축과 체제안정성, 2010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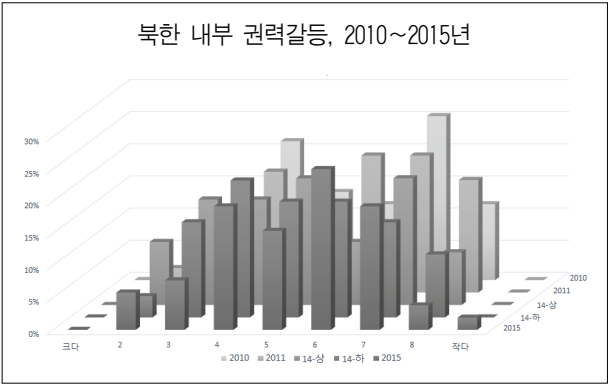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2015년 <문3>에 대한 조사에서 46.2%가 ‘불안정적’(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반면, ‘안정적’(6점 이상)이라는 응답은 48.1%(25명)이다. 최빈값은 7점으로 14명이 응답하였으며, 4점과 3점에 각각 11명, 10명이 응답하였다.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5.31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643
왜도	-.191
첨도	-.470
최소값	2
최대값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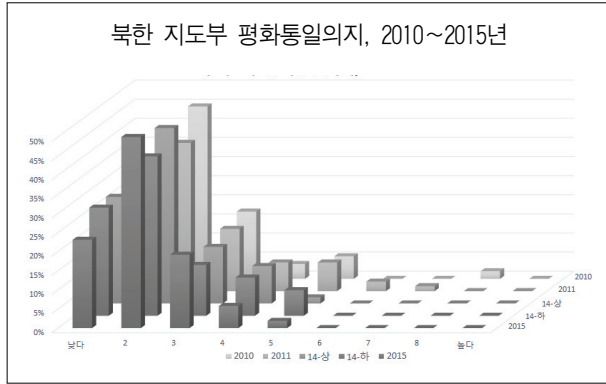


본 문항은 북한의 권력갈등을 ‘매우 심각’(1점)에서 ‘전혀 없다’(9점)의 연장선에서 설문하였으며, 응답은 2점과 9점 사이에서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2014년 상반기 조사에서 동 문항의 평균은 4.95, 하반기에는 5.16이었으며, 2015년에는 5.31로 계산되었다. 즉, 쌍봉형 분포이지만 점진적으로 내부 권력갈등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6점에 가장 많은 13명(25.5%)이 응답하였으며, 4점과 7점에 각각 10명(19.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5년 패널 중 ‘심각하다’(4점 이하)는 평가가 33.3%이며, ‘갈등이 없다’(6점 이상)는 51%이다.

- I
- II
- III
- IV
- V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2.13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908
왜도	.868
첨도	1.007
최소값	1
최대값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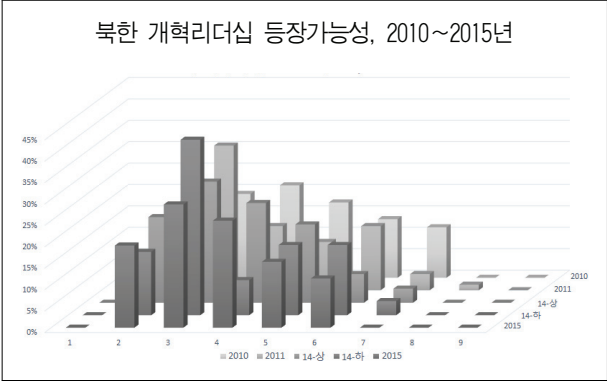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는 사실상 북한의 합의형 통일을 향한 의지를 묻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동 문항 역시 <문2>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응답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패널은 1점에서 5점의 범위로 응답하였으며, 52명 중 51명이 ‘낮다’(4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본 문항은 합의형 통일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합의형 통일의 수준과 <문5>는 유사성이 높아 동의어 반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문5>의 경우 ‘의지’를 묻는 반면, 합의형 통일시계는 전체적인 통일의 현 수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순차와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 다만 <문2>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거의 동일한 수준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은 상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문항이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3.71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273
왜도	.334
첨도	-.865
최소값	2
최대값	6



북한의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에 대해 ‘없다’(1점)에서 ‘많다’(9점)의 기준으로 설문하였다. 동 문항은 2010년 평균 4.2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3점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의 범위가 2점에서 6점으로 비교적 넓게 나타나고 있어 차년도 조사 시 응답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혁리더십 등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경우 현재의 넓은 단봉형 분포는 넓은 쌍봉형 분포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반대로 개혁리더십의 등장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현재의 넓은 분포는 좁아질 것이다.

개혁리더십에 대해 ‘부정적’(4점 이하)인 의견이 73.1%로 압도적이며, 5점에 15.4%, 6점에 11.5%가 응답하였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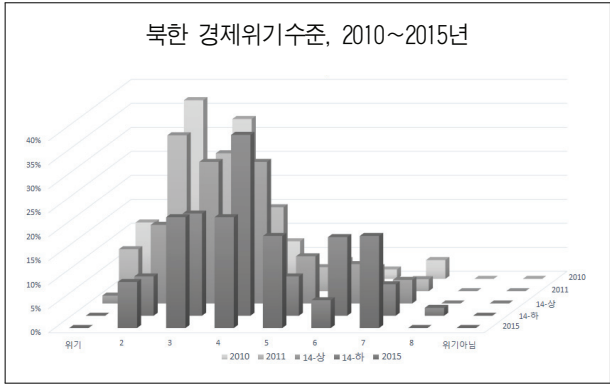
나. 북한 경제분야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11. 북한 경제위기 수준	2.76	3.03	3.74	4.30	4.46
문12.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	3.14	2.90	3.56	3.79	4.00
문13. 북한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	2.80	2.83	3.32	3.62	3.68
문20.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	4.84	4.79	5.03	5.38	5.51

북한경제에 대한 4개의 설문 문항 역시 한국주도형과 합의형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문항이다. 북한 경제분야는 2014년 통일요인 중 가장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문1)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개방(문13)과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문2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북한 경제는 극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초기변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경제문항이 부정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의 경우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이중경제의 심화에 의한 영향으로 2014년과 2015년 평균 5점대를 기록하였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4.46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614
왜도	.305
첨도	-1.004
최소값	2
최대값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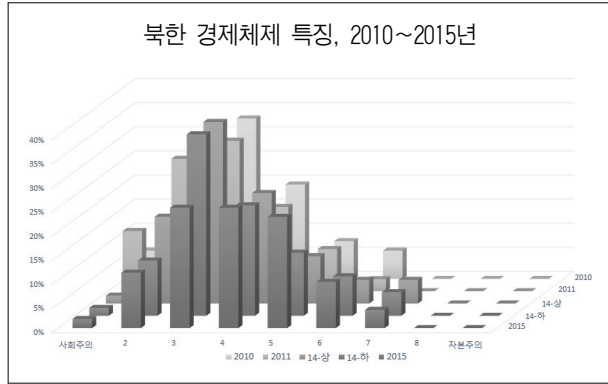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위기는 ‘극심한 위기’(1점)에서 ‘전혀 위기가 아니다’(9점)의 연장선에서 설문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위 분포도를 보면, 2010년에 비해 분포도 전체가 우측으로 한두 칸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평균값 역시 2010년 2.76, 2011년 3.03, 2014년 상반기에 3.74를 거쳐, 하반기에는 4.30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평균 4.46을 기록하였다. 분포의 형태만을 보면, 우선 2011년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87.5%로 압도적이었으나 2014년 하반기 67.2%로 줄었으며, 2015년에는 55.8%로 연속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4년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양의 왜도를 가진 단봉형 구조의 분포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 미약한 쌍봉형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될 경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와 관련한 동 문항은 통일요인 중 비교적 현저하게 변화한 항목이다.

- I
- II
- III
- IV
- V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4.00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372
왜도	.142
첨도	-.421
최소값	1
최대값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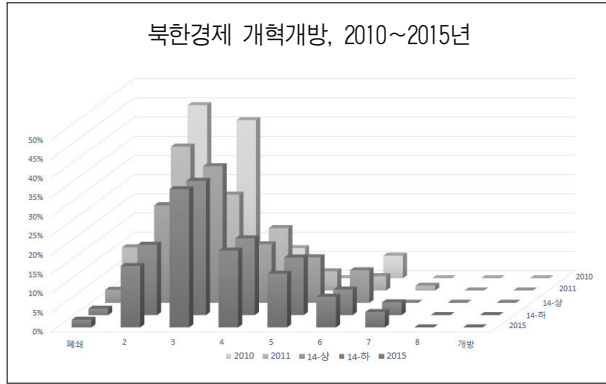


본 문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1점)와 자본주의 시장경제(9점)의 축선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른 경제문항에 비해 경제체제에 대한 본 문항은 비교적 변화가 미미한 편이다. 답변은 1점에서 7점까지 분포되지만 63.5%가 4점 이하로 계획경제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본 문항은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이중구조를 가진 북한경제체제를 고려할 경우 6점 이상의 응답자가 실제 기능하는 비공식 경제를 고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문항의 일관성을 위해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다. 즉,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확대될수록 또한 북한의 공식경제가 비공식 경제의 변화를 흡수할수록 동 문항의 응답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동 문항의 평균은 2014년 상반기 3.56, 하반기 3.79에서 2015년 4.00으로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문 13> 및 <문 20>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세 문항의 상관관계도 0.450~0.606($p < .01$) 수준이다.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5
N	50
결측	2
평균	3.68
중위수	3.00
최빈값	3
표준편차	1.392
왜도	.605
첨도	-.120
최소값	1
최대값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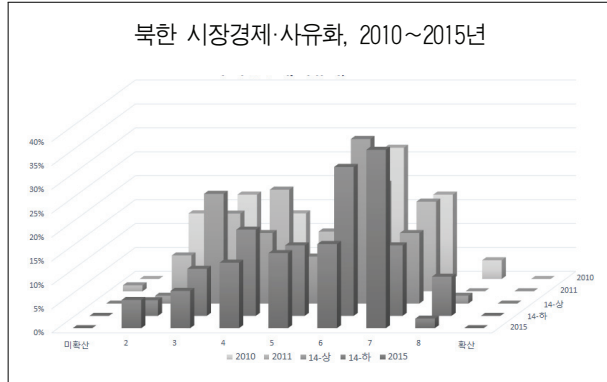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수준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1점)에서 ‘이루어 졌다’(9점)까지의 척도로 설문하였다. 응답은 중위수 3점을 중심으로 분포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미세하게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2010년 평균 2.8점에서 2014년 하반기 3.62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68을 기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6·28 방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자율경영권을 전면화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패널은 2014년과 2015년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에 대해 5·30 조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평균 역시 3.68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패널 중 74%가 동 문항에 대해 부정적(4점 이하) 응답을 하였으며, 6점 이상의 응답은 12%에 불과하다.

I
II
III
IV
V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5.51
중위수	6.00
최빈값	7
표준편차	1.617
왜도	-.683
첨도	-.605
최소값	2
최대값	8



시장경제와 사유화는 위의 <문12> 및 <문13>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평균값은 경제분야 중 유일하게 5점대를 넘고 있어 다른 경제분야 문항과 명확히 대비되고 있다. 이는 패널이 공식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점진성과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어온 비공식경제의 확산을 염두에 둔 판단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 문항은 2009년부터 넓은 응답범위를 갖는 유사쌍봉형 분포의 형태로 조사되어 왔으며,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밝힌 바 있는 전형적인 쌍봉형 곡선의 변화과정을 따르고 있다. 즉, 제1기(2009년~2011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동 문항은 평균 4점대의 쌍봉형 분포를 보였다. 이는 미확산-확산의 연속선 상에서 미확산의 응답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4년 상·하반기와 2015년은 연속적으로 5점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패널의 56.9%가 6점 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며, 4점 이하의 응답은 27.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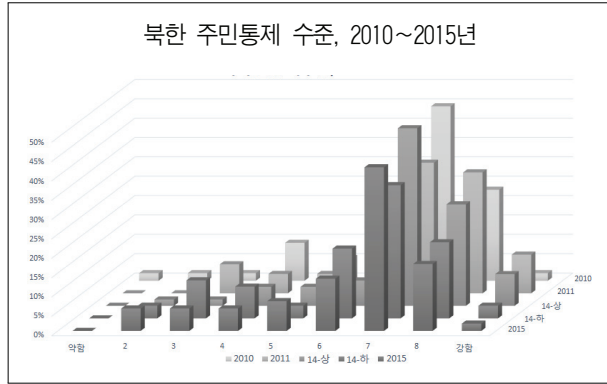
다. 북한 사회분야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18. 북한 주민통제 수준	6.49	6.89	6.97	6.21	6.23
문19.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	4.65	4.61	4.48	4.85	4.67
문21.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	4.92	4.73	5.10	5.05	5.25
문22.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	3.98	3.99	3.85	3.74	3.44
문23.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	4.94	4.49	5.25	5.33	5.27

북한의 사회분야는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문18)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응(문19, 문21, 문22),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의 유입 수준(문23)으로 구별하였다. 문항 간 어느 정도 구별되지만 상당한 상호관계가 예측되어 간략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중 한국 주도형 통일시계와의 회귀분석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북한 주민들의 체제지지도(문21)가 낮을수록, 외부정보의 유입(문23)이 높을수록 한국주도형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23>, <문19>, <문22> 사이에는 상당한(.3~.4 수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문23)이 증가하면 주민의 체제지지도(문21)가 하락하여 결국 체제저항과 이탈(문22)이 증가한다는 논리가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6.23
중위수	7.00
최빈값	7
표준편차	1.745
왜도	-1.106
첨도	.449
최소값	2
최대값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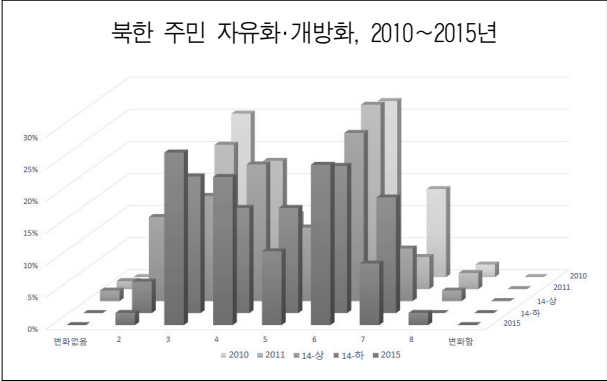


북한의 주민통제 수준은 ‘매우 약하다’(1점)와 ‘매우 강하다’(9점)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응답범위는 2점에서 9점으로 매우 넓은 편이지만 대체로 6점 이상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역시 2010년부터 6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평균 역시 6.23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내부결속과 기강을 잡기 위해 보안·보위기구를 통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세습의 정당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심화시켜 왔다. 패널은 이러한 김정은 시기의 주민통제가 김정일 시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4.67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491
왜도	.259
첨도	-1.078
최소값	2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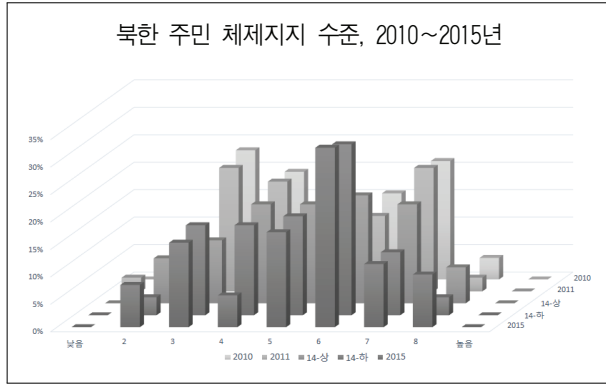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변화하지 않았다’(1점)에서 ‘변화하였다’(9점)의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동 문항의 자유화와 개방화는 체제전환국에서 거의 동시에 발현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엄밀하게 살펴볼 경우 구별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수 증가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 문항과 외부정보 유입(문23)의 상관관계는 .328(p<.01), 체제저항과 이탈(문22)은 .402(p<.01)이다.

본 문항은 전형적인 쌍봉형 분포이며,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패널 중 4점 이하의 응답은 51.9%이며, 6점 이상의 응답은 36.5%이다. 즉,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더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평균 역시 이를 반영하여 4점대로 고정되었다.

- I
- II
- III
- IV
- V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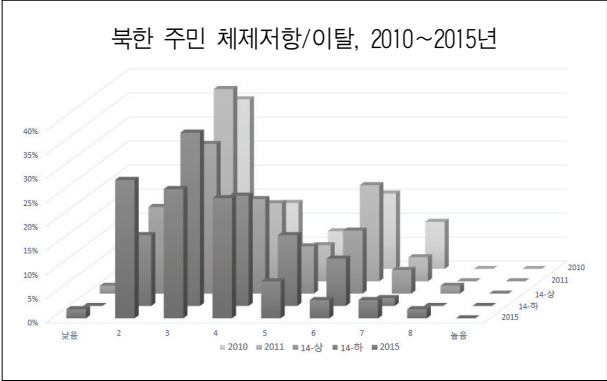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5.25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736
왜도	-3.55
첨도	-7.43
최소값	2
최대값	8



북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다’(1점)와 ‘매우 높다’(9점)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동 문항은 비교적 현저하게 현재 북한의 변화가 통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2010년 동 문항에 대해 패널은 비교적 뚜렷한 쌍봉형 분포의 응답을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에 대해 패널의 응답이 쌍봉형으로 나타남에 따라 점차 이완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의 조사에서는 쌍봉형 분포가 소멸되고 음의 왜도를 가진 단봉형 분포로 변화하고 있다 즉, 2014년 이후 패널은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동 문항에 대해 6점 이상의 응답은 패널 28명 (54.3%)이 집중되었으며, 4점 이하는 28.8%에 불과하다.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3.44
중위수	3.00
최빈값	2
표준편차	1.487
왜도	1.083
첨도	1.157
최소값	1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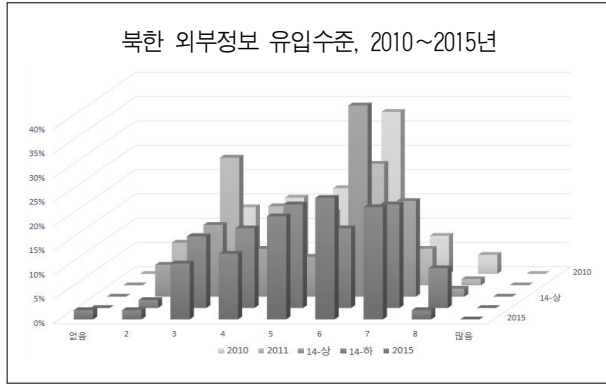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 문항이다. 문항 간소화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초기 문항을 유지하였다. 체제저항과 이탈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높다’(9점)의 사이에서 측정하였으며, 논리적으로 위의 체제지지도(문21)와 연계될 수 있는 문항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0.431(p<.001)$ 로 뚜렷한 역관계를 갖고 있다. 즉, 체제지지도가 높을수록 주민의 저항과 이탈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응답범위는 비교적 넓으나 82.7%에 달하는 패널이 4점 이하의 ‘낮다’에 집중적으로 응답하였다. <문21>과 현 문항으로 보건대 2015년 현재 패널은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체제에 대한 저항과 이탈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I
- II
- III
- IV
- V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27
중위수	5.50
최빈값	6
표준편차	1.548
왜도	-.603
첨도	-.148
최소값	1
최대값	8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은 다른 사회분야 문항에 영향을 주는 선행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척도의 범위는 정보유입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9점)이다. 외부정보 유입은 2010년 평균 4점대 후반에서 2014년 상·하반기에는 5점대로 진입하였으며, 2015년에도 그 추세가 유지되었다. 13명이 최빈값 6점에 집중되었으며, 6점 이상은 50%가 응답하였다. 4점 이하에 대한 응답은 28.8%이다.

앞서 다른 사회분야 문항을 통해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가 높으며 저항과 이탈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건대,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의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강력한 주민통제(문18)로 인해 내부결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군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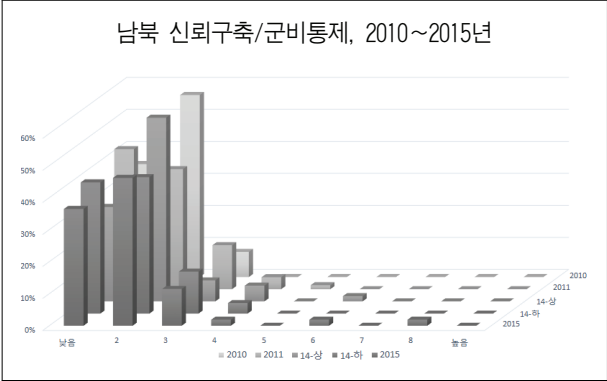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24. 남북 간 신뢰구축/군비통제	1.73	1.81	1.93	1.79	1.98
문25.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	7.27	7.15	6.92	6.53	6.55
문26.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7.43	7.55	7.13	6.95	6.77
문27.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	6.47	6.29	6.21	6.36	6.43
문28. 북한의 군사력 수준	5.69	5.93	5.72	5.74	5.65
문29.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	2.76	2.56	2.46	2.44	2.62

2015년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시 20분으로 전 12개 시계 중 가장 통일로부터 먼 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주도형 역시 3시 32분으로 측정되었다. 두 개의 시간이 말해주듯이 군사분야는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통일요인 역시 통일시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시계와 같이 매우 높은 침도와 낮은 응답범위를 보여 패널 간 견해가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널의 응답은 남북의 신뢰구축/군비통제(문24), 군사적 긴장(문25), 북의 군사력(문28), 북핵문제(문29) 모두 부정적 극단에 집중되어 있다. 패널은 북한의 군사력 수준(문28)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남한의 대북태세(문27)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I
II
III
IV
V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1.98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1.260
왜도	2.850
첨도	10.938
최소값	1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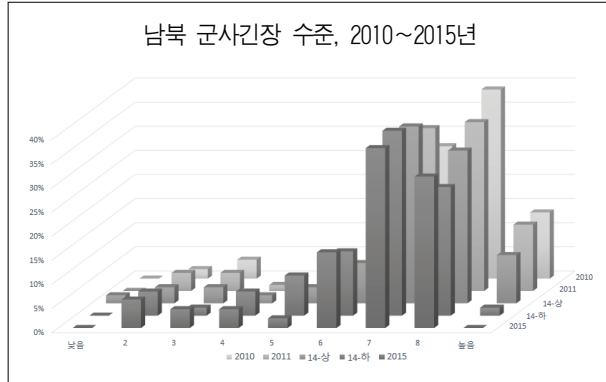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중의적 문항이나, 분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였다. 응답은 ‘전혀 없다’(1점)와 ‘매우 높다’(9점)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2010년 조사 이래 북한의 독재수준을 묻는 <문2>와 더불어 가장 낮은 평균(1점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점대 평균에서 나타나듯이 패널 96.2%가 4점 이하에 응답하고 있다. 첨도 역시 10.938로 매우 높은 응답집중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 문항은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문26) 및 북한의 군사력 수준(문28)과 -3대의 역상관관계에 있다. 즉,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높아지고 있다.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6.55
중위수	7.00
최빈값	7
표준편차	1.689
왜도	-1.553
첨도	1.702
최소값	2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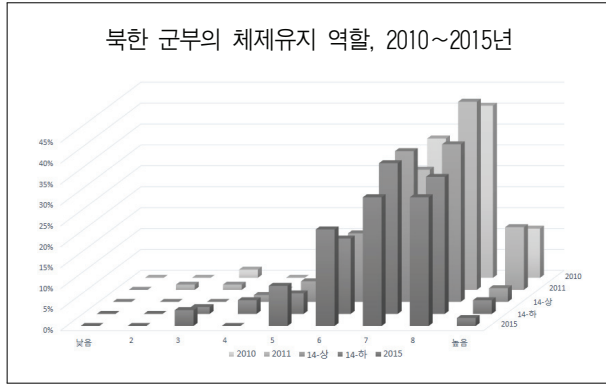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전혀 없다’(1점)와 ‘매우 높다’(9점)의 연속선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답변의 범위는 2점에서 9점으로 매우 넓은 편이지만 패널의 84.3%가 6점 이상에 집중적으로 응답하였다.

2009년 통일시계연구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도발은 고조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패널의 평가 역시 이와 일관되고 있다. 다만 2014년 하반기 이후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의 조사에서 우측 극단치인 9점에 대한 응답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위도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평균 역시 2014년 상반기 6.92에서 하반기에는 6.53, 2015년에는 6.55로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 I
- II
- III
- IV
- V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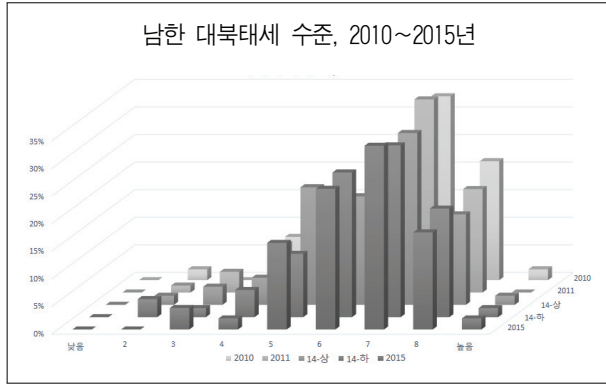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6.77
중위수	7.00
최빈값	7
표준편차	1.262
왜도	-1.006
첨도	1.322
최소값	3
최대값	9



북한 군부의 체제유지에 대한 역할은 ‘매우 낮다’(1점)에서 ‘매우 높다’(9점)의 범위이다. 동 문항은 2010년 당시 7.43으로 시작하여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각각 6.95와 6.77점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미세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다. 6점 이상 응답한 패널은 86.5%로 압도적 다수가 군부의 체제유지 기능에 동의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조사에서 9점에 응답한 패널의 숫자가 2014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6.43
중위수	7.00
최빈값	7
표준편차	1.285
왜도	-.637
첨도	.505
최소값	3
최대값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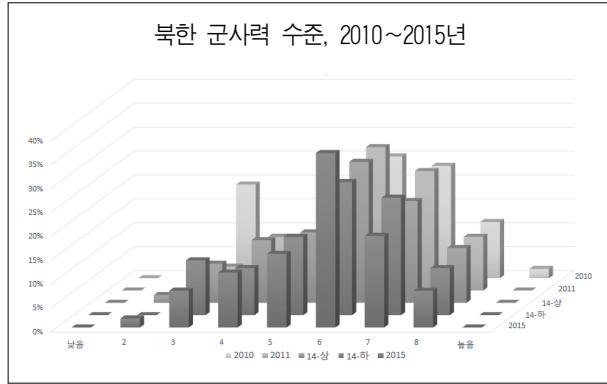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남한의 대북태세는 2010년 조사 이래 평균 6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패널 62%가 6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평균은 6.43이다.

대체로 군사분야에 대한 통일요인이 매우 유사한 분포형태를 갖고 있으며, 본 문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군사분야의 다른 문항의 경우 일정수준(3 이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남한의 대북태세는 남북 간 신뢰구축(문24), 군사적 긴장(문25), 북한의 군사력(문28)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현재 패널은 남한의 대북태세가 남북의 군사관계나 북한의 군사력과 무관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동 문항과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는 차년도 조사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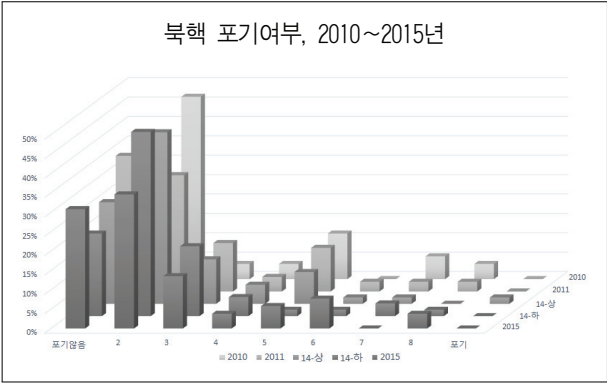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5.65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426
왜도	-.535
첨도	-.109
최소값	2
최대값	8



설문피로를 피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패널의 응답이산성은 다른 군사부문 통일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패널은 2점에서 8점 사이에 응답하고 있으며, 첨도는 6개 군사분야 통일요인 중 유일하게 음수(-.109)를 기록하였다. 음수의 첨도값 역시 매우 넓은 응답분포를 의미한다. 2015년 평균은 예년과 유사한 6.65이며, 패널 중 63.5%가 6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2.62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1.849
왜도	1.427
첨도	1.389
최소값	1
최대값	8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82.7%가 4점 이하로 응답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 조사 이래 동 문항에 대한 극단치인 1점에 응답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2015년 패널 16명(30.8%)이 1점에, 18명(34.6%)이 2점에 집중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값에 반영되어 2014년 하반기 2.44, 2015년 2.62를 기록하였다. 남북한 신뢰 구축(문24)과 유사한 분포이지만 그 첨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5점에서 8점 사이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52명 중 6명이 6점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3명이 5점을 선택하였다.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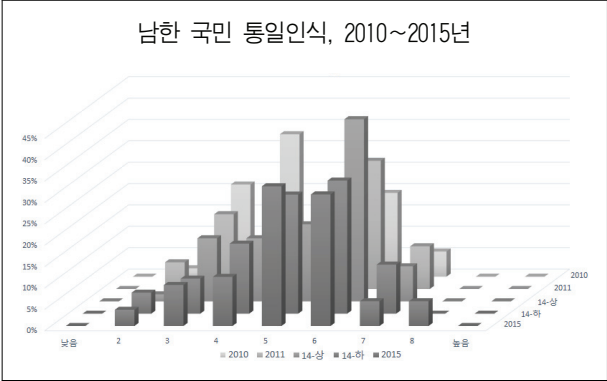
마. 남한의 역량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7. 남한국민의 통일인식	4.49	4.81	5.10	5.07	5.17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	4.02	4.25	4.03	4.45	4.46
문9.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	4.92	4.96	5.08	5.52	5.27
문10.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	2.94	2.64	2.57	2.67	2.65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	3.78	3.86	3.88	4.19	4.08
문15.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	3.96	4.04	4.23	4.33	4.19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3.33	3.24	3.28	3.34	3.35
문17.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	1.94	1.88	2.20	2.15	2.40

남한의 통일역량은 그 특성상 공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항 간 상관관계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예로 들면, 사회적 역량(문8)과 경제적 역량(문9)의 상관관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남한국민의 통일인식(문7)과 통일비용 부담의지(문14)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통일비용(문14)과 통일합의(문15)도 같은 맥락의 문항이다. 그러나 각 문항의 분포와 평균은 주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구별되고 있다. 패널은 남한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해 남한국민의 통일인식(문7)과 경제적 역량(문9)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17
중위수	5.00
최빈값	5
표준편차	1.382
왜도	-.231
첨도	.187
최소값	2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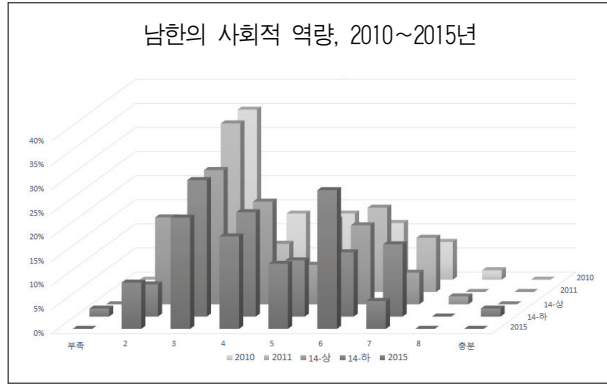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은 ‘낮다’(1점)와 ‘높다’(9점) 사이에서 평가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조사에서 패널의 평균은 4점대 후반이었으나 2014년 5점대에 도달하였으며, 2015년 5.17로 다소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5점이며 17명(32.7%)이 집중되어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3명(25%)이며, 6점 이상은 22명(42.4%)이다.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은 남한의 역량 중 경제역량(문9)과 함께 평균 5점을 넘는 항목이다. 동 문항은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 통일비용(문14),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문15)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42~.54)를 갖고 있다.

- I
- II
- III
- IV**
- V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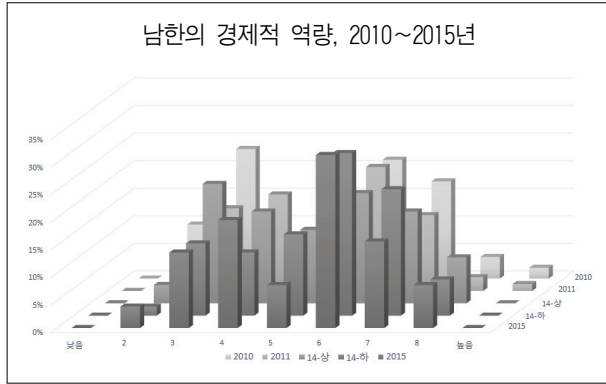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4.46
중위수	4.00
최빈값	6
표준편차	1.501
왜도	-.050
첨도	-1.239
최소값	2
최대값	7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해 5점 수준의 평균을 기록했던 패널의 답변은 사회적 역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족’(1점)과 ‘충분’(9점)의 척도에서 패널의 평균은 2014년 상·하반기에 각각 4.03, 4.45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4.46이다. 2015년 남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응답분포는 쌍봉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향후 조사에서 동 문항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널 중 27명(51.9%)이 4점 이하로 응답하였으며, 최빈값은 15명이 집중한 6점이다.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경제적 역량(문9)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67)를 갖고 있다.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5.27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650
왜도	-.209
첨도	-.939
최소값	2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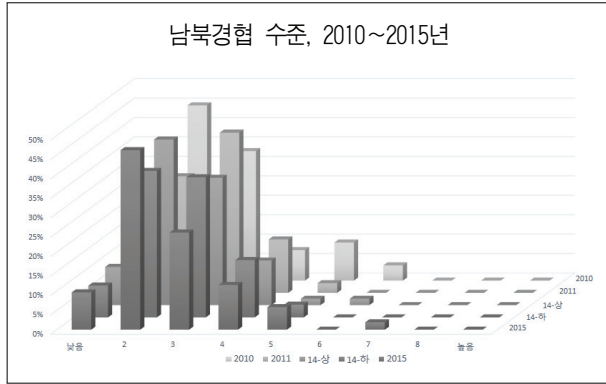


패널은 통일에 대한 남한의 역량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경제적 역량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답변이 많았다. 동 문항은 2014년 상반기 쌍봉형 분포를 보였으며, 2015년에도 그러한 경향은 반복되었다. 또한 응답분포도 낮은 첨도(-.939)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넓은 편이다. 패널의 응답은 6점에 집중되었으며, 6점 이상의 응답은 54.9%이다. 평균은 5.27로 남한의 역량 8개 문항 중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I
II
III
IV
V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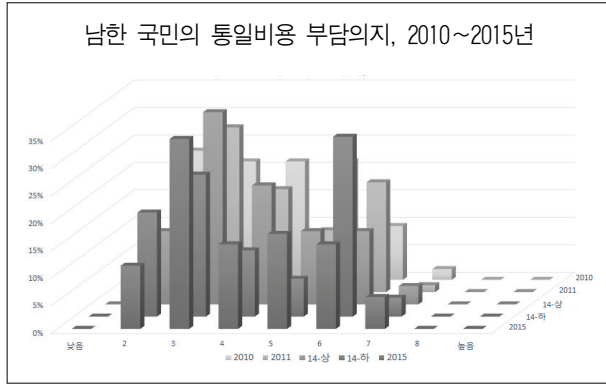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2.65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1.186
왜도	1.303
첨도	2.489
최소값	1
최대값	7



합의형 통일시계가 일차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전제한다고 할 때 남북경협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조사가 5·24 조치 이후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10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2009년의 경우도 91.1%가 5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척도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09년 조사 시기에도 동 문항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남북경협에 대한 패널의 평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는 경협의 수준이 크게 진전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다만 통일예측시계 조사 이래 패널의 동 문항의 평가가 매우 심각하게 부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패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 문항에 대해 평균 2점대 중후반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 패널은 92.3%가 4점이하의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극단치 1점에 대한 응답도 5명(9.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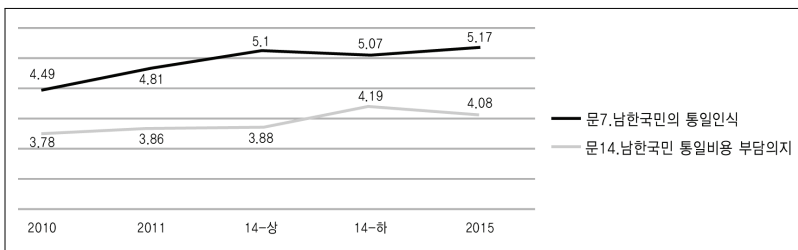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4.08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467
왜도	.405
첨도	-.940
최소값	2
최대값	7



남한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낮다’(1점)와 ‘높다’(9점)의 연장선에서 설문하였다. 패널 평균은 2014년 상반기 3.88이었으나 하반기에 4.19점으로 소폭 태도를 변경하였다. 2015년에는 다시 4.08로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다. 통일비용 부담의지는 4점을 중심으로 응답 이산성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유사한 문항인 남한국민의 통일인식의 경우 5점대로 진입한 것과 대조되는데, 이는 통일의 당위성과 실제 경제적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 간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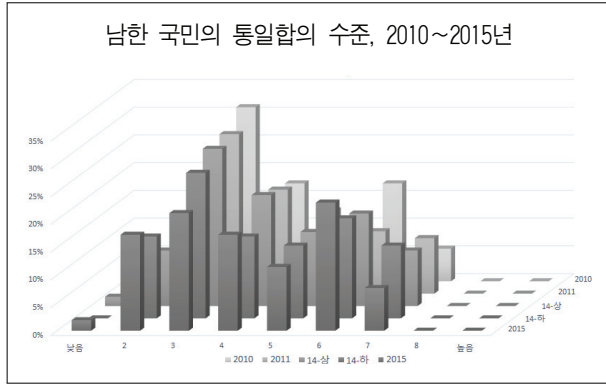
●그림 IV-6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과 통일비용 부담의지, 2010년~2015년



출처: 저자 작성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4.19
중위수	4.00
최빈값	6
표준편차	1.681
왜도	.071
첨도	-1.214
최소값	1
최대값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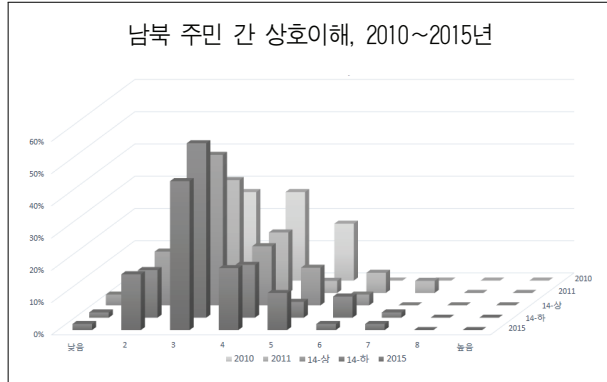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는 2010년 평균 3.96에서 미세하게 증가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4.33점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 4.19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 패널은 비교적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응답분포를 가진다. 최빈값 3점에 11명(21.2%)이 집중되며, 6점에는 12명(23.1%)이 응답하였다.

요컨대, 2015년 패널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이 대체로 낮다(57.7%)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30.8%) 패널의 경우 다소 높다고 평가하였다.

문1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3.35
중위수	3.00
최빈값	3
표준편차	1.136
왜도	.857
첨도	1.255
최소값	1
최대값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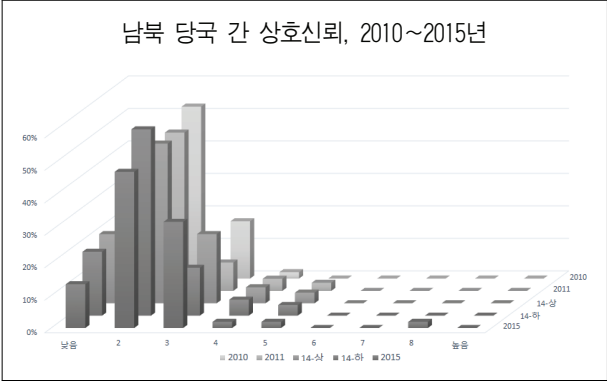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는 2010년 조사 이래 3점을 전후로 한 부정적 견해에 집중되었다. 동 문항은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 및 남한 국민의 통일합의(문15)와 각각 .503, .468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84.6%가 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최빈값 3점에 26명(46.2%)이 집중되었다.

I
II
III
IV
V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2.40
중위수	2.00
최빈값	2
표준편차	1.125
왜도	2.571
첨도	11.481
최소값	1
최대값	8



당국 간 상호신뢰의 수준은 ‘낮다’(1점)와 ‘높다’(9점)의 범위로 제시되었으며, 답변은 2점에 집중되었다. 당국 간 신뢰는 군사부문의 응답과 유사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4점 이하의 응답은 96.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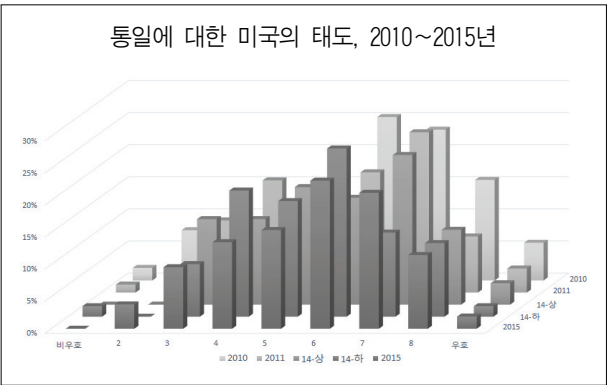
바. 국제관계 분야

문항	2010	2011	14-상	14-하	2015
문31.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5.96	5.54	5.72	5.51	5.63
문30.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3.39	3.40	4.27	4.21	4.75
문32.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4.84	4.74	5.24	5.11	5.21
문33.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	4.41	4.19	3.98	3.85	3.63
문34.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반응	5.37	5.39	5.59	5.69	5.53
문35.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3.75	4.30	4.08	4.30	4.37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	2.53	2.45	2.57	2.64	2.88

2010년 통일예측시계 연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미국의 태도(문 31)는 한국주도형 통일에, 중국의 태도(문30)는 합의형 통일에 일정한 경험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주변 4국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짧은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순위가 변화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순으로 통일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상관관계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미국-일본은 .459($p<.01$), 중국-러시아는 .546($p<.01$)에 달한다. 국제관계 분야 전반에 대해 패널의 응답이산성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문36)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첨도가 음수인 것에서도 확인된다.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63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715
왜도	-.299
첨도	-.648
최소값	2
최대값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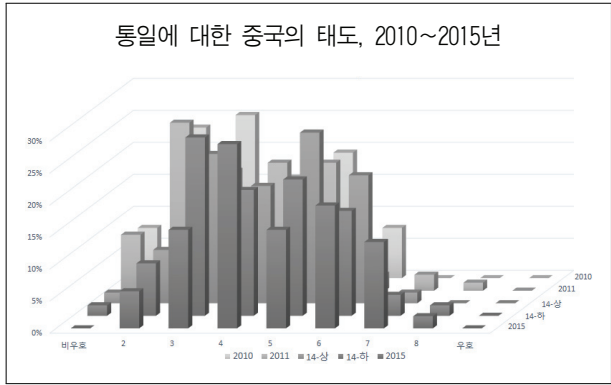
주변국의 이해관계는 ‘비우호’(1점)와 ‘우호’(9점)의 범위로 제시되었다. 패널은 대체로 주변 4국 중 미국이 통일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판단하였다. 2010년 조사 이래 미국의 평균은 5점대를 유지하였으며, 2015년 조사 역시 평균 5.63을 기록하였다. 다른 국



제분야와 마찬가지로 동 문항 역시 넓은 응답분포와 낮은 첨도를 가지고 있다. 답변은 최빈값 6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6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과반수가 넘는 30명(57.7%)에 달한다.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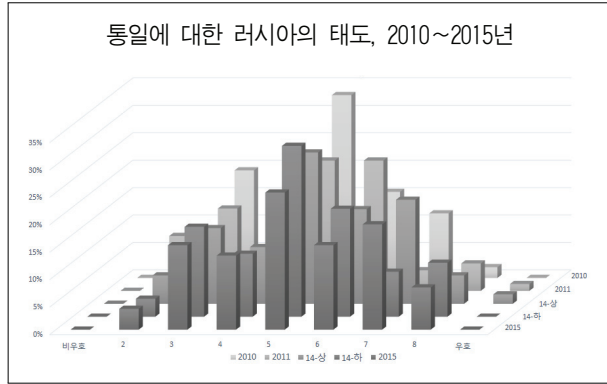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4.75
중위수	4.50
최빈값	4
표준편차	1.519
왜도	.129
첨도	-.840
최소값	2
최대값	8



주변 4국 중 통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의 경우 2010년 조사에서 평균 3.3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점대로 이동하여 2015년 4.75로 최고 평균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은 꽤날 간 찬반의 쌍봉형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부정적 응답이 다소 많은 상황이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26명(50%)이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18명(34.6%)이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2
결측	0
평균	5.21
중위수	5.00
최빈값	5
표준편차	1.649
왜도	-.080
첨도	-.898
최소값	2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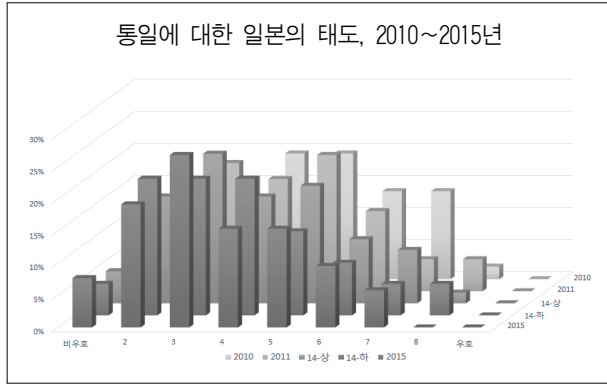


러시아 역시 2010년 조사 당시 평균 4.84로 다소 통일에 비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 이후 5점대의 평균에 도달하였다. 즉, 2014년 이후 러시아는 미세하게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평균은 5.21로 중위수 5점을 기준으로 거의 좌우 동형의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42.3%,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32.7%이다.

I
II
III
IV
V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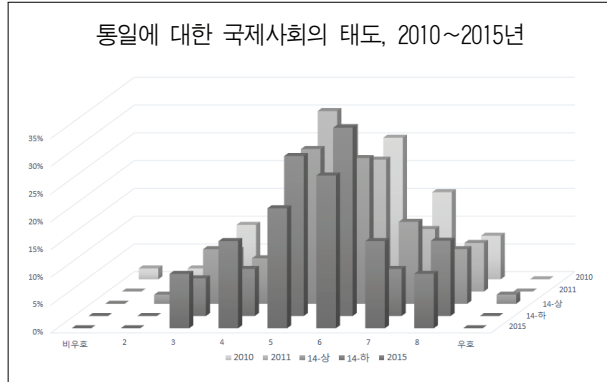
	2015
N	52
결측	0
평균	3.63
중위수	3.00
최빈값	3
표준편차	1.645
왜도	.370
첨도	-.670
최소값	1
최대값	7



중국의 경우와 반대로 일본은 2010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010년 평균 4.41로 중국보다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되었던 일본은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주변 4국 중 통일에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2014년 상·하반기와 2015년 동 문항의 평균은 3.98, 3.85, 3.63이다.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5.53
중위수	6.00
최빈값	6
표준편차	1.447
왜도	-.061
첨도	-.753
최소값	3
최대값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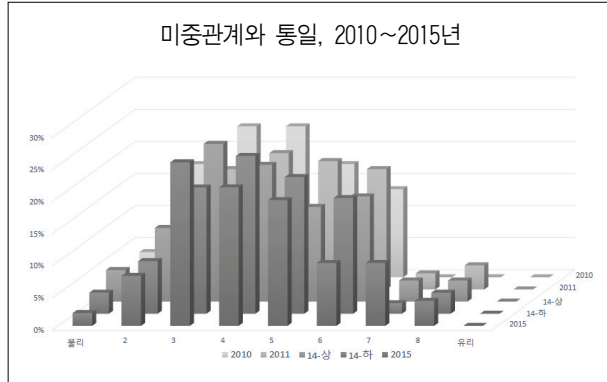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 문항은 2010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5점대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태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비우호적’(4점 이하)이라는 응답이 25.5%인데 반해 ‘우호적’(6점 이상)이라는 응답은 52.9%에 달한다.

I
II
III
IV
V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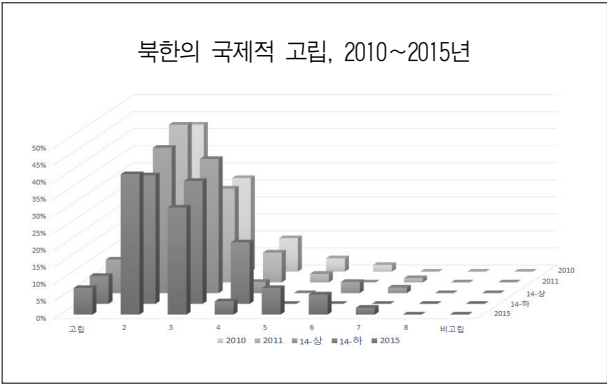
	2015
N	51
결측	1
평균	4.37
중위수	4.00
최빈값	3
표준편차	1.661
왜도	.383
첨도	-.451
최소값	1
최대값	8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패널의 제안에 따라 2010년부터 동 문항이 신설되었다. 패널의 답변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미중관계의 역할에 대한 패널 간 합의가 어려움을 암시한다. 2010년 평균 3.75로 시작되었던 미중관계와 통일과의 관계는 2014년 하반기 4.3, 2015년 4.3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5점 미만의 평균에 그쳐 패널의 동 문항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4점 이하의 응답은 56.9%, 6점 이상은 23.5%이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2015
N	51
결측	1
평균	2.88
중위수	3.00
최빈값	2
표준편차	1.395
왜도	1.230
첨도	1.084
최소값	1
최대값	7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은 ‘매우 고립’(1점)과 ‘고립되지 않았다’(9점)의 범위로 제시되었으며, 큰 이견 없이 2점과 3점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2015년 패널 중 84.3%가 4점 이하에 응답하였다.

3. 계량분석

가. 통일시계에 대한 중심집중도 검토

2014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순환(feedback) 조사를 수행할 경우 극단치가 다소 완화되고 중심집중도의 미세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매우 촉박한 기간 동안 축소조사되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극단치를 소거하고 중심집중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합의된 예측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델파이 기법을 적용

I
II
III
IV
V

하였을 경우에도 여전히 완고한 응답자가 존재하였으며, 응답이산성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평균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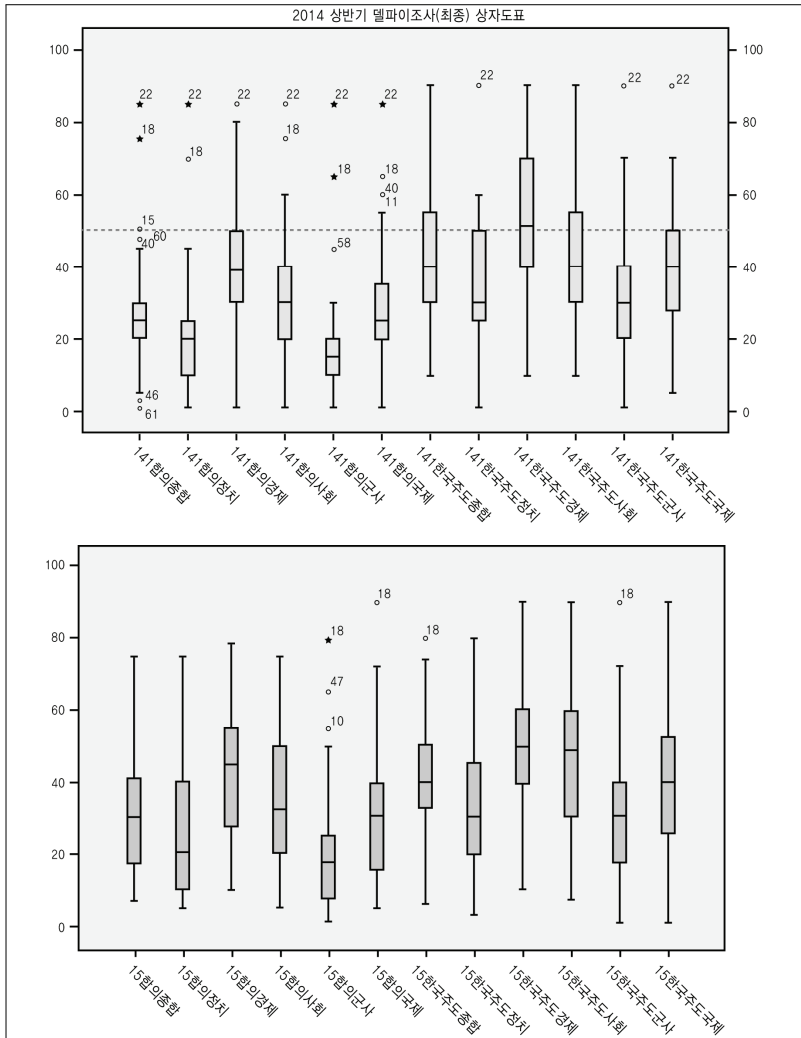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5년 조사와 2014년 순환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2015년의 조사결과가 대표성이 훼손될 정도로 극단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응답이산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심 집중도와 극단치 확인을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본 연구는 널리 사용되는 상자도표(box plot)의 비교를 통해 간략히 2015년 통일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자도표는 사분위를 이용하여 상하 극단치와 중집중도를 판별하는 유용한 기술분석 도구이다. 상자도표에서 가운데 선은 중앙값(median)을 의미하며 상자의 좌우 끝단은 각각 1사분위(Q1, 25%)와 3사분위(Q3, 75%)이다. 이를 IQR이라고 한다. IQR은 표본의 50%를 포괄한다. 상자의 양쪽 꼬리는 상자에서 $1.5 \times \text{IQR}$ 떨어진 지점을 나타낸다. 이 때 양 끝단은 전체 분포의 99.3%에 해당한다. 관측치가 상자 바깥에 존재할 경우 극단치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상자에서 $2 \times \text{IQR}$ 을 벗어날 경우 기호로 표기한다.

<그림 IV-7>은 2014년 순환(feedback) 과정이 종료된 상자도표(위)와 2015년(아래) 상자도표이다. 그림에서 두 도표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각 상자 양 극단의 상하길이의 차이이다. 2014년 상자도표의 경우 12개 통일시계의 끝단이 아래 2015년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패널 중 일부가 제시된 집단평균을 이용하여 자신의 초기 점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효 분포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시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극단치 응답자 중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는 극단치로 부각되었다. 다음 그림의 도표 상단

에 표시된 점들이 그러한 극단치들이다.

● 그림 IV-7 2014년 순환처리된 통일시계(위)와 2015년 통일시계(아래)의 상자도표



출처: 저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통일시계의 경우 모든 극단치가 상자도표의 위쪽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통일시계 12개는 기본적으로 1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를 제외하면 모든 시계가 50점 이하에서 중위수를 갖게 되며, 낮은 중위수로 인해 하단 극단치는 통일시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음수(-) 값을 갖게된다. 이에 따라 50점 이하의 중위값을 갖는 대부분의 시계는 70점 또는 80점 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를 극단치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상자도표는 순환과정에서 꼬리가 짧아졌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시계에서 극단치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5년(아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꼬리를 갖고 있으며 4개의 시계만 극단치가 나타났다.

이렇게 극단치가 감소한 이유는 패널 대부분이 2014년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얻게된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의 범위에 비해 2015년 응답범위는 상대적으로 극단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앞서 개별 통일시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좌우극단치의 상쇄효과로 인해 시계 자체의 시간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통일시계 조사의 원자료는 시계로 환산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평균값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델파이 패널의 특성 검토: 군집분석

2009년 시작된 통일예측시계는 자료의 원천으로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의 명단에서 임의추출된 표본에 의존하고 있다. 통일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야와 사상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거 남북관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좌우대립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통일문제의 이념편향성 역시 통일예측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상이성을 극복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지수획득을 위해서는 양 극단치가 상쇄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통일예측시계의 소위 ‘텔레파이 패널’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포괄하려 하였다.

텔레파이 패널은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으로 대별될 수 있는 통일시계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집단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간명한 수단은 기술분석 기법 중의 하나인 군집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과정으로 2015년 텔레파이 패널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기준이 될 12개 통일시계를 모두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요약할 수 있는 요인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 기준이 설정되면, 해당 기준에 각 패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살펴본다. 산점도는 이들 패널 각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다음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몇 개의 군집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적절한 군집을 확정한다. 끝으로 요인분석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군집의 분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먼저 12개 시계의 요약을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2014년 조사는 52명의 패널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사례수도 52개이다. 그런데 다수의 변수가 존재할 경우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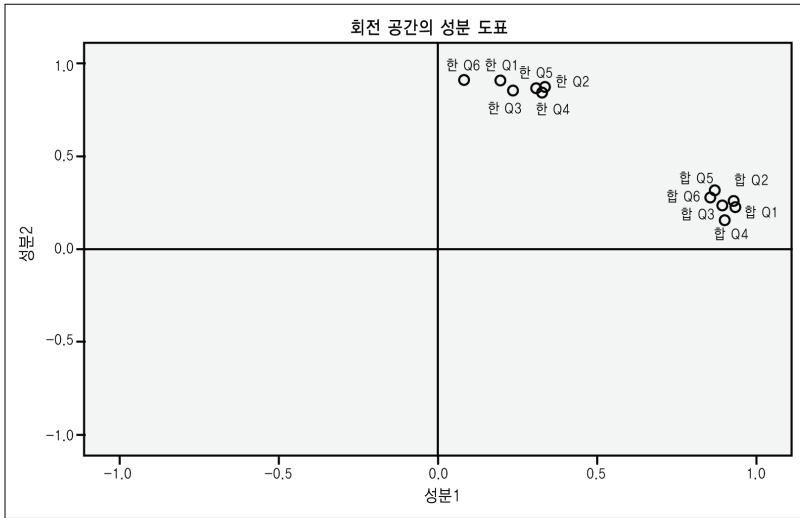
상당한 크기의 표본과 상관관계가 전제된다. 이를 구형성 검정이 라고 하며, KMO(Keiser-Meyer-Olkin) 측도와 바틀렛(Bartlett) 검정이 대표적이다. KMO 측도는 변수 간의 편상관을 조사하여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사례수가 적절한지를 알 수 있는 표본적합도 검사이다. 이 값이 .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인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바틀렛 검정은 이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바틀렛 검정의 p값이 .05보다 작아야 한다. 구형성 검정 결과 KMO 측도는 .823, 바틀렛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요인분석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으로 선택하고 요인회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리맥스 방법(varimax method)을 이용하였다. 배리맥스 방법은 각 요인의 로딩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 직교회전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요인은 2개로, 요인 1에는 합의형 시계 6개, 요인 2에는 한국주도형 시계 6개가 결합되었다.

12개의 통일시계 중 유형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평균을 가진 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요인분석 과정에서 이들 변수는 같은 요인으로 결합되지 않았으며,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의 6개 시계가 정확하게 유형에 따라 분리·요약된 것은 시계의 설계와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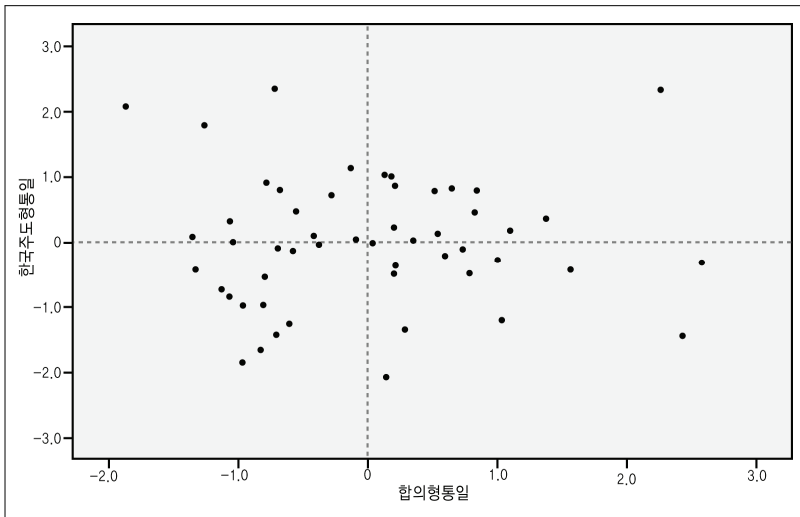
12개 시계가 2개의 요인으로 재설정되었으며, 각각 같은 유형끼리 회전되어 도출된 결과는 <그림 IV-8> 12개 통일시계의 요인 성분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9>는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의 2개 요인을 기준으로 한 패널의 산포도이다.

●그림 IV-8 12개 통일시계의 요인 성분도표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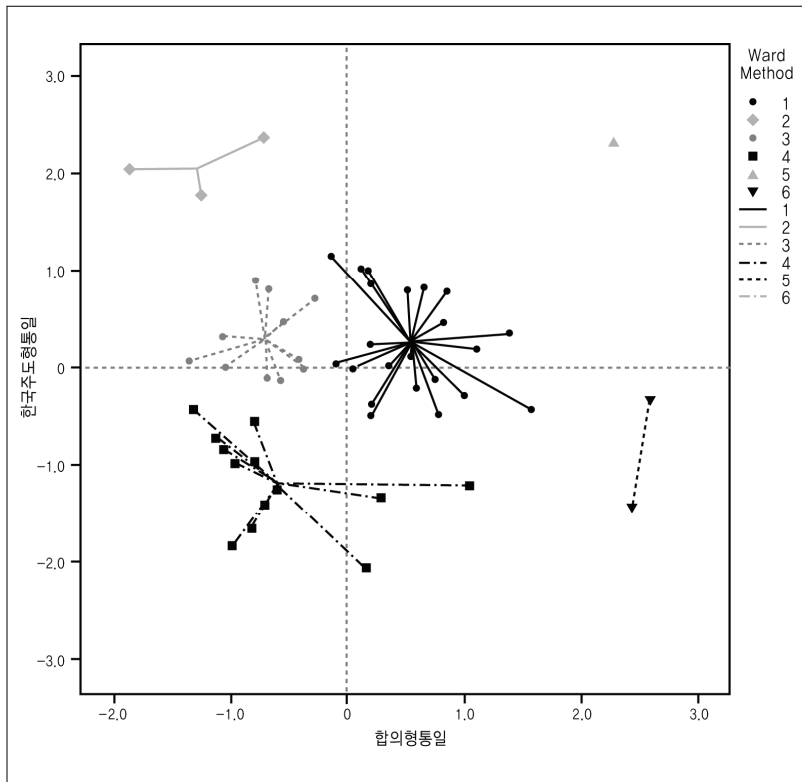
●그림 IV-9 합의형-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패널의 응답산포도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그림 IV-10 합의형-한국주도형 요인에 대한 군집분포



출처: 저자 작성

2015년 한국주도형과 합의형 요인에 따라 나타난 각 패널의 태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워드 방법(ward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군집방법은 제곱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였다. 총 4개에서 8개의 군집을 채택하여 비교한 결과 6개 군집이 패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요인에 대한 패널의 군집은 위 <그림 IV-10> 합의형-한

국주도형 요인에 대한 군집분포에 나타나 있다. 군집의 집단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좌하: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한 패널
- (2) 중앙: 합의형에는 부정적이며 한국주도형에는 보통수준의 응답을 한 패널
- (3) 중앙우측: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에 대해 모두 평균이거나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한 패널
- (4) 좌상: 합의형은 부정적이나 한국주도형은 매우 긍정적인 패널
- (5) 우상: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모두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패널
- (6) 우하: 합의형에는 매우 긍정적이나 한국주도형은 매우 부정적인 패널

다. 회귀분석

통일요인 36개 설문문항은 원래 12개 통일시계의 각 분야를 결정할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을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하고 요약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각 문항이 어느 정도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례 수는 크지 않으나 통일요인 설문이 정량척도 분석기법에도 이용할 수 있는 9점 리커트 척도이므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종속 변수는 전반적인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를 각각 상정하고 36개 통일요인을 후진(backward)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후진방법은 t값에 대한 유의수준이 낮은 변수를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I
II
III
IV
V

다수의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걸러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변수의 제거는 F 확률 .10을 채택하였다. 변수 간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더빈왓슨(DW) 통계, 오차항 검증은 현 단계에서는 무시하였다.

분석결과 제거되지 않고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2 2015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후진)

변수	B	표준 오차	베타	t	sig.
(상수)	18.609	11.261		1.653	.106
통일위한 남한사회역량(Q8)	6.778	1.977	.603	3.429	.001
통일위한 남한경제역량(Q9)	-4.512	1.770	-.439	-2.549	.015
남북한 상호신뢰수준(Q17)	4.728	2.460	.231	1.922	.062
북한사회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Q20)	-2.986	1.192	-.295	-2.505	.017
남북 간 신뢰구축/군비통제(Q24)	6.341	2.104	.364	3.013	.005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Q32)	4.115	1.208	.408	3.407	.002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Q35)	-2.806	1.275	-.288	-2.200	.034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Q36)	-3.183	1.380	-.276	-2.307	.026

R: .760, R²: .577, Adj R²: .490 (F=.000)

출처: 저자 작성

회귀분석 결과 합의형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 사회의 역량’(Q8), ‘남한의 경제적 역량’(Q9), ‘남북 상호신뢰’(Q17), ‘시장 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Q20), ‘남북 신뢰구축/군비통제’(Q24), ‘러시아의 이해관계’(Q32), ‘미중관계’(Q35), ‘북한의 고립’(Q36)이 통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조사의 경우 대체로 남한의 역량과 상호 신뢰구축, 그리고 국제관계가 합의

형 통일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과다한 독립변수가 존재할 경우 일차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걸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후진방법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가 존재할 경우 탈락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조사 과정에서 동일방식으로 분석했을 경우 도출된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북한의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 등의 변수가 탈락되었다고 해서 동 통일요인의 역할이 소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미중관계’ 등의 부호가 모두 음수이다. 이는 패널의 통일시계와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데, 예컨대 합의형 통일을 높게 평가한 패널이 남한

● 표 IV-3 2015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후진)

변수	B	표준 오차	베타	t	sig.
(상수)	97.853	16.427		5.957	.000
북한 권력 승계 안정성(Q1)	2.581	1.126	.272	2.292	.028
통일위한 남한경제역량(Q9)	-2.267	1.093	-.231	-2.074	.045
북한경제체제의 개혁개방정도(Q13)	-3.139	1.192	-.277	-2.633	.012
북한주민들의 체제지지도(Q21)	-3.783	1.276	-.413	-2.964	.005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Q23)	6.030	1.227	.550	4.916	.000
남북 간 신뢰구축/군비통제(Q24)	4.313	1.640	.260	2.629	.012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Q26)	-3.493	1.210	-.261	-2.886	.006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Q27)	-2.943	1.126	-.239	-2.613	.013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Q35)	-2.146	.965	-.231	-2.224	.032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Q36)	-5.066	1.279	-.459	-3.959	.000

R: .849, R²: .721, Adj R²: .645 (F=.000)

I
II
III
IV
V

의 경제역량은 낮다고 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패널의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와 일치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후진방식의 회귀분석에서도 ‘권력승계의 안정성’(Q1), ‘남한의 경제역량’(Q9) 등 10개의 통일요인이 분류되었다. 2014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권력승계의 안정성’, ‘남북 신뢰구축’(Q24), ‘미중관계’(Q35)가 동일한 독립변수로 유지되었다. 합의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회귀분석도 부호에 따라 통상적인 한국주도형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경제역량, 남한의 대북태세, 미중관계, 북한의 고립수준의 경우 논리적 해석과 통계적 결과가 상이하다.

통일시계와 통일요인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각 통일시계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독립변수(통일요인)의 경우 그 부호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각각의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통일요인의 통일시계에 대한 통계적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요인이 델파이 패널의 통일시계 설문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엄밀히 볼 경우 패널의 통일시계에 대한 점수와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 간의 통계적 관계이다. 다만,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통계적 관계는 2010년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대체로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변화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매년 그러한 변화과정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회귀분석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

수의 통일요인이 지난 수년간 큰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사적 상황, 정치권력의 구성, 북한의 국제적 고립 등은 수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즉, 상당수의 통일요인이 변수로서 작동하기보다는 그간 상수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중요한 통일시계 결정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독립변수로 제시된 통일요인 역시 통일시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 끝으로 패널이 통일시계와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패널은 통일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어진 정보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일시계의 경우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객관적 상황평가와 당위성에 대한 평가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양자 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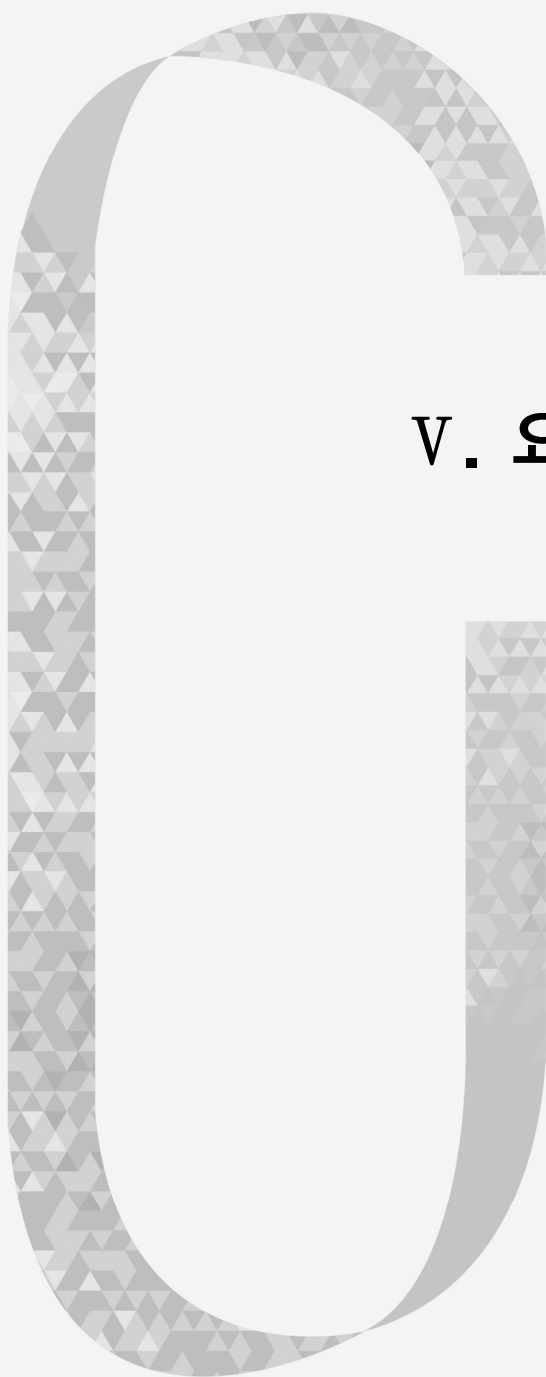
I

II

III

IV

V



V. 요약 및 결론

2015년의 전문가 조사는 1회 수행되었으나 본 통일시계 연구가 시작된 이래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보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처럼 전문가 패널에 대한 델파이 조사의 대조군으로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지 못했으나, 전문가 패널 조사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통일의 가능성이나 통일 시기에 대한 평가 또는 예측은 북한 상황, 남북관계의 현실, 국제적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수의 실제적 전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경우 오랜 기간의 연구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단기적인 상황 전개나 특정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 예측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채택한 델파이 기법의 경우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험적으로 2009년 이후 연구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

2015년도의 통일시계는 지난 연구과정에서 안정화된 패널을 통해 조사되었다. 60명의 패널 중 52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조사시간의 제한과 일부 패널의 해외 출장 등의 요인으로 100% 응답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94.2%가 2014년 하반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므로 패널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특히 응답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는 패널의 일관성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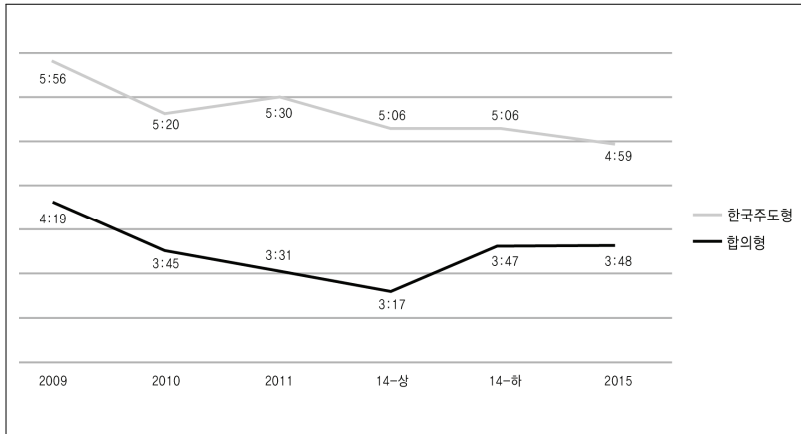
조사 및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4년 하반기의 조사 시간보다 1분 진전된 3시 48분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체

I
II
III
IV
V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초까지 거의 1년 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통일시계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남북관계나 북한 상황, 통일의 외적 환경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큰 성과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합의형 시계가 미세하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와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후퇴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은 남북 군사적 갈등이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문제가 합의형 통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통일외교의 강화가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부터의 조사 결과의 추세는 상기와 같은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정치 분야의 합의형 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였으나, 정치 분야는 여전히 군사 분야와 함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 시계가 여전히 통일에 부정적 또는 통일의 시기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제, 사회, 국제관계 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시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은 진전되기 보다는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그림 V-1 통일예측시계, 2009년~2015년



출처: 저자 작성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후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회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인 것 이외에는 모든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후퇴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반적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처음으로 5시 이전으로 후퇴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서는 거의 1시간 정도인 57분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만큼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을 전제로 하는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도의 조사에서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도 후퇴한 것은 북한 내부의 시장화 현상 확산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14년의 두 차례 조사보다는 통일의 방향으로 진전되

- I
- II
- III
- IV
- V

었으나, 아직 2009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경제 분야에 이어 다른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보다는 앞서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6시 이전에 머무르고 있다. 군사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도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문가 패널의 응답이산성, 응집성 등과 관련한 통계적 분석에서도 전체의 경향을 의미 있게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이 경험연구의 측면에서 매우 안정화되어 있으며, 집단지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5년 9월의 시점에서 예측된 통일시계는 합의형 시계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주도형 시계에서는 시간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예측 시계 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9년에 비해서는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 모두 시간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후퇴하였다. 두 유형의 통일의 가능성이 모두 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관련 기구 또는 위원회 참여, 정책자문, 건의, 토론회 및 검토회의, 과제 수행, 언론 활동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투입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 및 통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함의를 검토·파악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향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기반 구축에

보다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구체적 정책 개발과 적극적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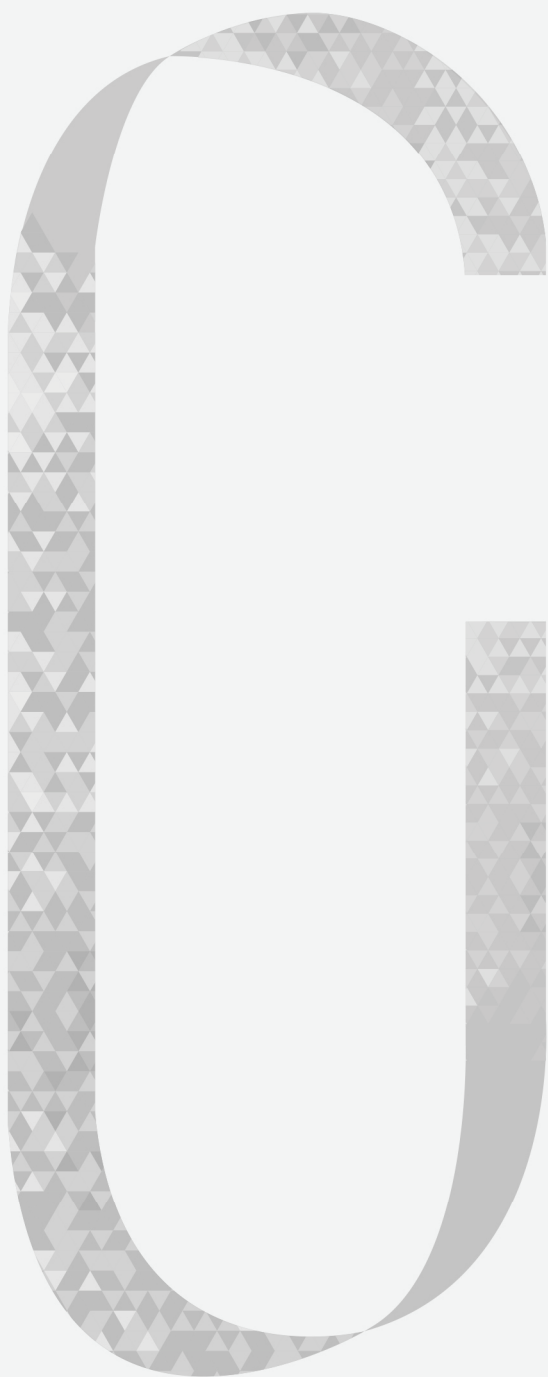
I

II

III

IV

V



부 록

2015년 통일예측시계 델파이조사

안 내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예측시계” 프로젝트팀에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답변과 인적사항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빠진 문항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일예측시계
적절한 점수를 괄호 안에 넣어 주십시오.
2. 설문조사
9점 척도표 상자 안에 “0” 또는 “v”표를 넣어 주십시오.
3. 개방형 질문
분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 후 저장하신 뒤 위 메일주소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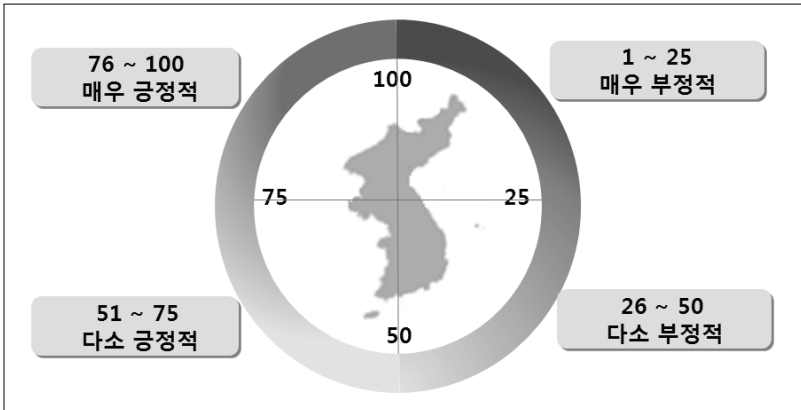
※ 답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엄격히 보호됩니다.

1. 통일예측시계

가. 합의형 통일시계

아래 그림을 보시면 1부터 100까지 표시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 즉,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합의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

우 1점에서 50점을, 합의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합의형 통일은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시) 정치적 측면 (합의형): (50) 점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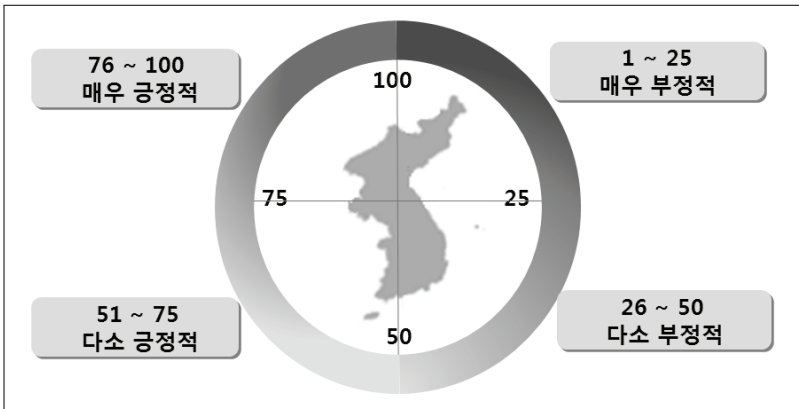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아래의 시계는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입니다. 한국주도형 통일이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주도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한국주도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1점에서 50점을, 한국주도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흡수형' 통일시계로 설문조사하였으나, 용어의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주도형'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음.

예시) 정치적 측면 (한국주도형): (50) 점

전반적인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별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한국주도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한국주도형): () 점

(4) 사회적 측면 (한국주도형): () 점

(5) 군사적 측면 (한국주도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한국주도형): () 점

2. 통일에측시계 설문항

※ 아래는 통일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9점 리커트 척도에서 선생님의 평가를 상
자안에 "0"나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은 2014년 4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1. 현재 김정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안정하다

매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주의독재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 현재의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안정적

매우 안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외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6. 북한에 개혁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대단히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미하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극심한 위기상황이다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주의계획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함

매우 잘 이해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약하다

매우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

매우 변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확산되지 않았다

매우 확산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5.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리하다

매우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고립되었다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개방형 질문

아래는 통일예측시계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입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누락된 항목 없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 향후 1~2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향후 1~2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향후 1~2년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문항을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영호·김형기. 『2011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박영호·김형기. 『2014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Goffman, E.. *Strategic Intera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9.
- Macintosh, J..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Canadian Perspective*. Ottawa, Canad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1985.

2. 논문

- 김여근·김재윤. “경쟁 공진화 알고리즘에서 경쟁전략들의 비교분석.” 『대한산업공학회지』. 제28권 1호. 2002.
- 김정훈.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재정포럼』. 제14권 6호. 2009.
- 박영자.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찬욱·구갑우·김영순. “유럽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국가와 초국가적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4.
- 송경재. “북한 체제 안정요인 분석: 김정일 체제를 중심으로(1994년~2001년).” 『사회연구』. 제3권 1호. 2002.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세종정책연구』. 제2권 2호. 2006.
- 심귀보·김지윤·이동욱. “게임 이론에 기반한 공진화 알고리즘.”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14권 3호. 2004.
- 양운철. “박근혜 정부의 주요현안과 정책제언: 남북관계.” 『정세와 정책』. 통권 202호. 세종연구소, 2013.
-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2002.
-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전략논총』. 11권. 1999.
- 홍우택. “이슈연계(Issue Linkage)전략의 성공조건 분석: 게임모형을 이용한 ‘비핵·개방·3000’정책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주관 건국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주관패널 발표자료』. 2008.
- Basu, Shankar & Roger G. Schroeder. “Incorporating Judgements in Sales Forecasts: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at American Hoist & Derrick.” *Interfaces*. vol. 7, no. 3. 1977.
- CSI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A Working Group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2002.

Dalkey, Norman & Olaf Helmer.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vol. 9, no. 3. 1963.

3. 기타자료

웹스터사전. <webster.com/dictionary>.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포츠희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립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명*		입금일자*		
소속*		입금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5년 통일예측시계

